JAN 1 1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illegible] George Street
[illegible] FLOOR
TORONTO, CANADA [illegible]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713-714 1982년1월5일(화), 6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Wednesday, January 5, 6 1982

한국 내각 개편

국무총리에 유창순 (무역협회장)

경제각료 교체, 일부 도지사도

(서울 4일=연합)한국정부는 3일 대폭적인 내각개편을 단행, 신임 국무총리에 무역인협회회장 유창순씨를 임명했다.

3일 전두환대통령은 신임 부총리및 경제기획원장관에 김준성 한국은행총재를, 재무장관에는 나웅배 국회의원을, 동력자원부장관에는 이선기 민정당 경제고문을, 건설부장관에는 김종호 전남지사를, 통일원장관에는 손재식 내무부차관을 각각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공석중인 대통령비서실장에는 이범석 국토통일원장관이 임명됐다.

한편 4일 발표된 각부차관및 국책은행장 개편에서 경제기획원차관에 정인용 재무차관, 내무차관에 이춘구민정당의원, 재무차관에 강경식 경제기획원차관보, 문공차관에 허문도 청와대 정무담당비서, 한국은행 총재에 하영기산업은행총재, 산업은행총재에는 최창락 경제기획원 차관이 각각 임명됐다.

이밖에 과학기술처 차관엔 김용한 경제기획원예산국장, 충남지사에 유흥수 치안본부장, 전남지사에 김창식 청와대 정무비서관, 제주지사에 최재영 내무부 민방위 본부장, 치안본부장에 안응모 치안본부 제2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의 개각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앞둔 전대통령정부의 경제각료개편 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각에 대해 일부 관측자들은 특별히 새로운 인사들은 볼 수 없고 재계, 관계, 금융계등 고위 행정관리들의 자리바꿈에 불과하다고 풀이했다.

유 신임국무총리는 61년부터 62년에 걸쳐 민주당 정권아래에서 이미 한은총재, 상공장관등을 역임했고 67년부터 롯데그룹회장으로 재계에 깊숙히 관련됐었다.

유총리대행은 국회의 동의가 있기전 까지는 총리대행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유총리대행은 무역협회 회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한·카경제협력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유창순 신임총리가 맡았던 한·카경제협력 위원회의 한국측 위원장 후임은 호남재벌의 구평회씨인것으로 밝혀졌다.

새 내각 진용

국무총리서리	유창순(신임)
경제기획원장관	김준성(〃)
재무부장관	나웅배(〃)
법무부장관	이종원(유임)
국방부장관	주영복(〃)
문교부장관	이규호(〃)
농수산부장관	고 근(〃)
상공부장관	서석준(〃)
동력자원부장관	이선기(신)
건설부장관	김종호(〃)
보건사회부장관	전명기(유)
교통부장관	윤자웅(〃)
체신부장관	최광수(〃)
문공부장관	이광표(〃)
총무처장관	김용휴(〃)
과학기술처장관	이정오(〃)
통일원장관	손재식(신)
제1정무담당장관	정종택(유)
제2정무담당 〃	노태우(〃)
노동부장관	권중동(〃)

◇한·가경협위 한국측 위원장을 지낸 유창순 신임 국무총리(왼쪽)가 B·A·베네토 캐나다측 위원장과 환담하고 있는 모습

통행금지 폐지

중·고교생 머리형·교복 자유화

(서울=연합)한국정부는 야간통행금지를 5일부터전면 해제하고 중고교생들의 교복착용, 머리형 제한등을 폐지했다.

야간통행금지는 5일부터 휴전선, 해안등 안보 취약지구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실시됐다. 정부는 이방안을 금년 3월로 연기 실시하려했었다가 안보 상황에 이상없다고 생각, 예정대로 1월부터 실시키로 한것이다.

정부는 또 금년부터 중, 고등학생들의 헤어스타일을 자유화했고 83년부터중, 고등학생들의 교복착용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청와대 이웅희대변인은 관계당국의 여론조사에 따라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착용과 머리모양제한은 1888년부터 내려온 전통이었고 통행금지제는 해방후 30여년간 계속돼 왔었다.

관계자들은 교복착용이 폐지됨에 따라 기성복시장이 보다 활기를 띄게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폴랜드에 계엄령이 선포된 뒤인 12월16일 그댄스크의 레닌조선소 부근에서 데모군중들이 군인들이 쏜 최루탄에 쫓기는 모습. 이 사진은 AP통신에 의해 5일 런던에 입수, 공개했다.

"개고기 먹지말자"

개해맞아 도보시위

(서울 5일=연합)82년 개의 해를 맞이하여 한 개애호가는 일반국민들에게 개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마일의 거리를 걸었다.

서울에 본부를 둔 애견협회 회원인 고한직(22)씨는 새해 첫날인 1일에 고향인 경북 점촌을 떠나 4일하오 서울에 도착했다.

그는 등과 가슴에 커다란 개사진을 달고 "개고기를 먹지말자", "동물에게잔인한 행위를 막는 법을 만들라"는 구호가 적힌 띠를 둘렀다.

고씨는 이번 도보여행에 애완견 2마리를 동행시키려 했으나 개들이 피곤하고 굶주리게 될까 염려, 당초의 계획을 포기했다고말했다.

한국에서는 개고기(보신탕)가 정력을 돋구는 음식으로 알려져 특히 여름에 많은 개가 보신탕 애호가들때문에 희생당한다.

"실명에 광명을"

맹인후원회 모금전개

지난 23일 맹인후원회회원들은 토론토의 한인상가를 루어 일대를 돌며 교포 가게들을 방문, "불우한 맹인들에게 광명을 주자"고 개인수술비용, 맹인자녀의 장학금및 노인맹인구제 모금운동을 벌였다.

지난번 $1천3백을 한국으로 보낸 동후원회는 이날 모금운동에 힘입어 개안수술비등으로 다시 $9백을 서울 맹인침례교회강용준 목사, 맹인 선교위원회 김선태 목사앞으로 추가 송금했다.

12월 모금운동에 협조한 15개단체, 개인중 $100이상 회사자는 아래와 같다.

벧엘교회 $300/미시사가한인연합교회 $200/제일장로교회주일교 $137.16/유영일 $100/미도파$100/거북이선물 $100.

한국에는 11~15만명의 맹인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수술을 통해 광명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캐나다 이민의길은 열려있다."

냉동기술, 재봉틀정비사, 간호원, 컴퓨터분야

투자이민, 소규모상점헬퍼가능

캐나다에 이민오고 싶으면 냉동기술이나 재봉틀정비기술을 배워라 하는것이 이민전문 변호사 멘델그린씨의 조언이다.

지난 12월17일부터3일간 체한했던 그린씨는 5일.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외에도 캐나다에는 간호원, 컴퓨터분야등의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고문변호사로 소속된 제빵회사 브렌드맨의 후렌차이즈에 누차 [illegible] 이민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물색하는 것이 그린씨의 방한목적의 하나였다. 그는 이번 방한에서 이미 6가구와 접촉했고 내년에는 그 숫자를 80가구로 늘일 예정이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약 4만명의 한인교포들은 가까운 친척들을 캐나다로 데려오려고 한다. 이에 관한 수속과정을 대행하는 것이 내 일의 하나이다"고 밝힌 그린씨는 80년도의 한국인 캐나다이빈수는 약 1,200명이었고 81년도에는 이보다 약간 늘어 났다고 밝혔다.

그린변호사는 이번방한에서 주한 캐나다대사관의 써더랜드 이민관등을 만나 이민수속을 간편화 하는방안으로 홍콩에서 이민신체검사를 확인하던 제도를 서울에서 직접 하도록 제안했고 [illegible] 계속 연방정부 이민관계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하고 서울에서 직접 신체검사를 받게 될 경우 현재 약 8개월 걸리는 이민수속기간을 약 5~6개월로 줄일 수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린변호사는 "이밖에한인상점경영주들이 친척을 초청, 가게운영을 같이 하는 방법도 이민의 가능한 길"이라면서 캐나다이민의 길이 아직 많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정말 멋있는 나라"이라면서 금년봄 다시 한번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 림▶~~

본보는 보다 신속한 보도사명을 다하기 위해 현지판 8일자 발행예정(1일자"휴간안내")를 앞당겨, 6일자로, 모국판은 5일자 부터 발행합니다.

일본 한국에 10억불 차관

(뉴욕 4일=연합)일본은 미국의 압력때문에 한국정부가 민간투자및 차관으로 요청한 10억달러에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즈지가 4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타임스지는 대한원조가 일본 스즈끼내각이 우선적으로 취급할 3대 대외정책중 하나라고 말했다. 나머지 2개의대외정책은 수입관세장벽을 폐지함으로 서방국가에 대한 일본의 막대한 무역흑자를줄이는 것과 소련과 흑까이도 북부에 있는 섬들의 반환문제에 대해 협상하는것이다.

이 신문은 3대정책중 대한원조가 가장 덜 까다로운 것으로 미국은 일본의 한국지원과 전대통령에 대한 국제적 신임을 보이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호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70년대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되풀이하려는 2번째의 도약 목표를달성하기 위해 일본의 원조를 요청했다고 NYT 지는 지적했다.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옆)

단국대학동문회

신년을 맞이하여 동문회에서는 신년파티겸 총회모임을 마련하였아오니 부부동반 하시어 꼭 참석을 바랍니다. 새로오신 분들의 참석을 더욱 환영 합니다.

—아 래—

일 시 : 1982년1월9일(토)저녁7시
장 소 : 2117 CLIFF RD. MISSISSAUGA(Q.E.W & HWY10)
연락처 : 김현모(279-8899)
최남권(491-2532)

◈단국대학교동문
회장 : 김현모◈

✵ 정기총회공고 ✵
온타리오 한국맹인후원회

존경하는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은해를 뒤로하고 대망의 새해 문턱을 들어서며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위에 보다 알찬 결실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온 고국을 돌아보면 참으로 도움을 필요로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읍니다. 특히 시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자 지금 이 시간에도 필사의 경주를 거듭하는 불우한 맹인들이야말로 우리가 도와주어야할 이웃이 아니겠읍니까. 두눈을 뜨고도 살벌한 생존경쟁의 대열에서 때때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들을 맞고 있읍니까. 눈을뜨고 밝은 세상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 희망을 안고 일생을 어둠속에서 헤메이는 맹인들에게는 빛은 곧 생명인줄 압니다.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꿈에도 소원은개안 바로 그것일줄 믿습니다. 삶의 저편에서 신음하는 불우한 맹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나누어 주시지 않으시겠읍니까?
82년도 본후원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뜻을 같이 하시는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불우한 맹인들의 가슴속에영원히 기억 될 것입니다.

일 시 : 1982년1월16일(토)오후2시
장 소 : 미시사가 한인연합교회(유환진 목사담임)
2500MIMOSA ROW, MISSISSAUGA
연락처 : MR. KIM 791-9769또는교회 276-5163

온타리오한국맹인후원회 회원일동

미시사가한글학교
학생모집공고

미시사가 한글학교에서는 1982년도부터 고학년반(GRADE8이상)을 신설, 아래와 같이 학생을 추가로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업기간 : 1982년1월9일~6월19일
수업시간 : 매주 토요일 아침9시~오후1시까지
수업내용 : 한글, 음악, 미술, 영어
수업장소 : 퀸·엘리자베스 SENIOR PUBLIC SCHOOL
수 업 료 : 1인당 : $26(한글공부 : $15 예능 : $11, 3번째 학생부터는 무료)
＊고학년반
수업기간 : 1982년 1월9일~3월13일
수업내용 : 한글및 영어(영어는 현직영어교사가 담당함)
수 업 료 : 1인당 : $13

미시사가 한글학교
교장 : 문가자

2ND CLASS MAIL NO. 5[illegible] MAIL 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5514

우리 단체의 업적과 계획 (1)

빛부시게 동트는 개해 우애 함께 번영하는 한인사회

81~82년도 토론토 각한인단체 조감도

★한 인 회(회장 : 박인순)

●업 적
① 탁구대회(5월2일)
② 어버이날 행사(5월9일)
③ 야구대회(7월4일)
④ 임시총회(8월29일, 박인순씨 회장당선)
⑤ 한인의 날 행사(10월3일)
⑥ 경노잔치(10월17일)
⑦ 볼링대회(11월7일)

●계 획
① 한인회총회(1월)
② 3·1절 행사(3월)
④ 미인대회(4월)
④ 어버이, 어린이 날 행사(5월)
⑤ 캐라반 행사(6월)
⑥ 8·15경축(8월)
⑦ 추석경노잔치(9월)
⑧ 한인의 날 행사 퍼레이드(10월)
⑨ 회장단 선거(11월)
⑩ 교민위안의 밤(12월)

★한인연합회(회장 : 오기송)

●업 적
① 코리안 컨벤션(4월17일~19일, 한인의 날 제정, 짐·플레밍 복합문화성 장관및 다수의 연방, 주정부 인사 참석)
② 캐나다 헌법을 위한 인권헌장 국가위원회 참석(3월14일)

●계 획
① 한인의 날 행사(10월3일)
② 단체장들 모국방문 계획
③ 한민족 심포지움(2세교육문제, 한인사회의 나아갈길등 제반 분야에 대한 토의)

★노 년 회(회장 : 정인기)

●업 적
① 정기총회(1월)
② 서예학원개원(2월)
③ 척사대회(3월)
④ 3·1절 기념식(3월)
⑤ 오타와 튜울립 관광(5월)
⑥ 딸기농장 관광(6월)
⑦ 모국방문(60명, 8월)
⑨ 노년회 수양강좌(11월 강사 : 김보경 박사, 주제 : 노년 정신건강)
⑩ 크리스마스 파티(12월)

●계 획
① 정기총회(1월)
② 척사대회(2월)
③ 영화상영(3월)
④ 플로리다 관광(4월)
⑤ 연날리기대회(5월)
⑥ 요리강습(6월)
⑦ 체리농장관광(7월)
⑧ 노년회 캠핑(8월)
⑨ 잔디볼링(9월)
⑩ 단풍놀이(10월)
⑪ 가정문제 세미나(11월)
⑫ 송년파티(12월)
⑬ 한인회주최 체육대회 참가(8월)
⑭ 한인의 날 행사 참여(10월3일)

★신 용 조 합(이사장 : 한상훈)

●업 적
① 자산 180만 달러 달성
② 조합원 1,200명 확보
③ 적금제도 실시(6월1일)
④ 데일리 세빙 제도실시(11월1일)
⑤ 사무실 확장이전(11월1일)
⑤ 대출한도액 5,000달러로 증액(10월) ⑥

●계 획
① 자산 500만 달러 달성
② 조합원 2,000명 확보
③ 당좌구좌(P. C. A.)실시

★교역자협의회(회장 : 홍순관 목사)

●업 적
① 부활절연합예배(4월, 이날 걷힌 헌금은 한국의 불우아동단체인「사랑방 선교회」에 보조)
③「사이비종교란」책자 발간
③ 매달 교역자 모임
④ 성탄연합예배(12월)

●계 획
① 전체교역자 금식기도회(1월)
② 신학사상강좌(2월, 프린스턴 대학 신학과 이상현 교수모시고 교역자 중심으로)

★장로연합회(회장 : 전택균)

●업 적
① 조찬기도회
② 장로·목사 합동야유회

●계 획
① 조찬기도회
② 수양강좌2번
③ 임원개선(4월)

★문 인 협 회(회장 : 박충도)

●업 적
① 교양강좌 4번 개최(강사 : 이석현, 장연탁, 김삼우 박동규)
② "이민문학" 제4호 발간(제작중)
③ 제5회 "신춘문예" 모집(9~12월)

●계 획
① 한인장학재단과 합동시화전
② 교양강좌
③ 한인회공동주최 백일장
④ 제6회 신춘문예 모집
⑤ 한국문화단체와 긴밀한 유대관계 추잔
⑥ "문학의 밤" 개최

★토론토한인합창단(단장 : 한기철)

●업 적
① 보스턴 연주여행(5월)
② 제1회 메시아 공연(12월4일, 메시홀에서 노스욕 관현악단 협연)

●계 획
① 세계 기아민을 위한 자선음악(4월말)
② 시카고 연주여행(5월중순)
③ 제2회 메시아 공연(12월)

★한인컴퓨터회(COSKA) (회장 : 이태영)

●업 적
① 매월 컴퓨터관계 세미나 개최
② 매월 뉴스·레터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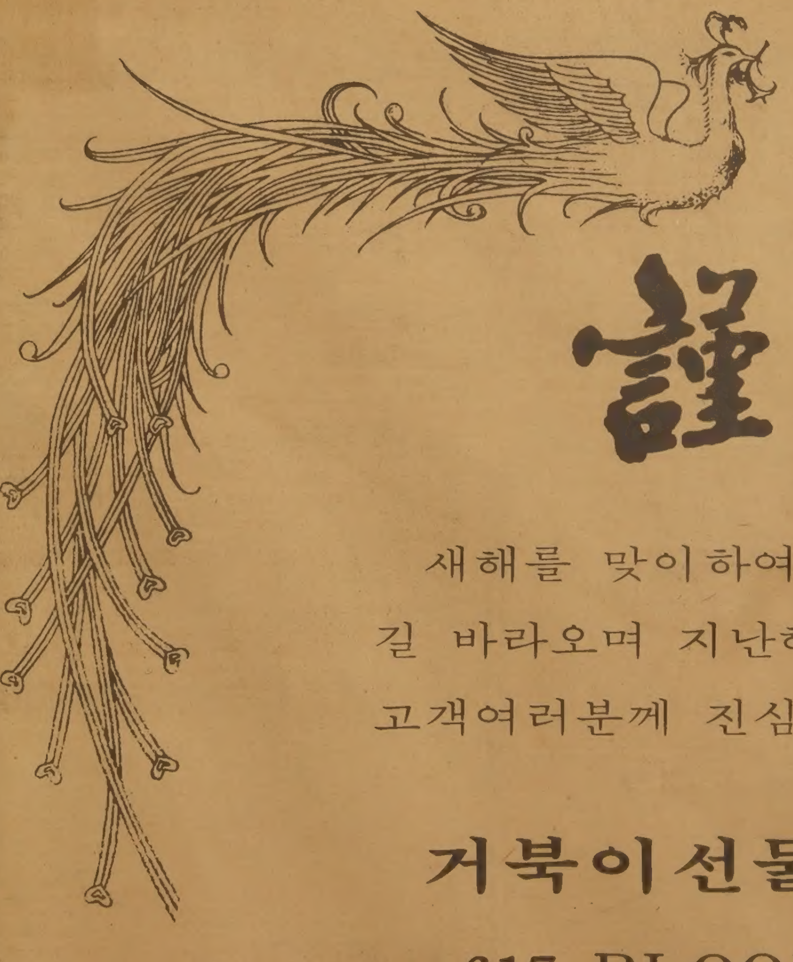
●계 획
① 매월 세미나및 대학진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② COSKA기구확장(1) Main, 2) Data, 3) Micro Computer분과위원회 구성)
③ 취업정보교환및 알선

(계 속)

◇4일하오 쉰들러씨가 애견 버스트양(?)을 데리고 눈·비로 범벅이된 하이팍의 벤취위에 서있다. 신년초의 캐나다날씨는 이변중의 이변, 폭풍우가 몰아치는가하면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다가 눈발이 날리기도. 캐나다측후소의 고든·지씨는 올 연말연시의 기상이 그다지 이변이 아니라,캐나다는 전통적으로 12월말부터 1월초에 폭풍이 몰아친다 고 했다.

海外걸작漫畫

<無題>



謹賀新年

새해를 맞이하여 교민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오며 지난해에 거북이선물센타를 애용해주신 고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북이선물센타 이 정 석

617 BLOOR ST. W. 535-2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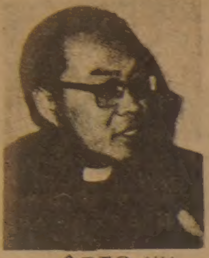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①

고마태오

첫 부임(고삿갓)


◇고종욱 신부

"이세상의 이방인"(1978년 서울서 출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도밍고수도회에 입회할 것을 결정하고, 1963년6월 하순경에 캐나다 모래알 (영어 로는 몬트리얼)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홍도 관구장 신부와 빠헤드 수련장 신부가 나와 나를 맞이해 줬다.

그날은 몹시도 더운 날이었다. 공항의 온도계 는 화씨 93도를 알리고 있었다. 캐나다라면 눈의 나라요 추위의 나라라고 들었는데, 프랑스에서 겪어보지 못한 무더위였다. 북극에 가까운 나라라,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기에 그만큼 더위가 심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더위에도불구하고 가로수는 싱싱하기만 했다.

홍도 관구장 신부의 전용차에 몸을 싣고 시내로 들어오면서 받은 첫 인상은 캐나다는 넓고 젊은 나라라는 것이었다. 넓직한 하이웨이와 그 위를 질주하는 큼직한 자동차들의행렬, 그리고 유럽에서 볼 수 없었던 고층빌딩들의 운집과 서부 개척영화에서나볼 수 있었던 그러한 바락크식의 집들이 도로 연변에 줄지어 있는 모습은 아직도 뭔가 정돈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면의 많은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유럽은 50대의 성숙하고 세련되었으나 이미 쇠퇴의 피곤함이 엿보이는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었으나 캐나다는 젊고 발랄한 20대초 틴에이저의 인상을 주고 있었다. 하여튼 뭔가 친근감을 느끼게 했으며, 내가 와야할 곳에도 착한 것같은 일종의 안도감도 없지 않아 있었다.

나는 우선 일주일간 관구본부에서 쉬며 여독을 풀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뽀스틸라(수도회 지망생이 갖는 단기수련기간)에 들어갔다. 우리 지망생은 모두 22명이었다. 몇 년전부터 현저한 성소(聖召)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그해만은 이상하리만치 입회지망자가 많다고 수도원 당국은 말하고 있었다. 1개월간의 뽀스틸라가 끝나자, 도밍고 수도회 창시자인 도밍고성인의 축일인 8월4일 나는 21 명의 동료들과 함께 삭발 하고 착복식을 받은 다음 본격적인 수련생활에 들어갔다.

◇ ◇

나는 수도원의 가족적분위기를 좋아했다. 우리가 수련하던 쌩·히아센드 수도원에는 우리들 수련자들을 제외하고도 20여명의신부와 수사들이 있었다. 수사들은 주로 수도원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고, 신부들은 본당사목과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또 대학에 나가 강의하는 신부도 몇분 계셨다. 제각기 분담된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으며 형제적사랑과 일치성을 위한 공동체적정신이 대단했다. 신부든 수사든 수련자든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같은 수도회 이상을 지향하는 동반자였다.

나는 이미 30대를 넘어선 신부였지만 나이 어린 동료 수련자들과 똑같은수련을 받았다. 새벽 기도에서 밤기도에 이르기까지함께 생활하며 공부와 노동과 청소도 차별 없이 했다.

모든 일이 나에게 즐거웠다. 이미 7년간의 신학교생활에서 익숙된 공동생활은 나의 수련생활을 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큰 영산적 선을 얻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생각하면 7년간의 신학대학 생활은 나에게 있어 지식습득을 위한 과정이었다. "이 세상의 이 방인"에서 말한 바와 같이나는 서울의 가톨릭신학대학에 청강생 자격으로 입학했었다. 그리고 학기말시험에 낙제하면 자진퇴거하라는 학교당국의 지시를받았었다. 이러한 여건 아래 내가 보낸 2년6개월간의서울 신학대학 생활은 그야말로 공부만을 위한 생활이었다. 심지어는 밤중에 화장실에서 "도독공부" 를 할 정도로 그 엄한 학교규칙을 어기면서까지 공부에만 열중했었다. 그리고5년간의 프랑스 신학대학 생활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어 한마디 모르고 유학간 나였으니 그 생활이 오죽했으랴! 프랑스어를 배우랴, 신학공부를 하랴, 신학생으로서의 신심을 연마하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영적독서와 묵상시간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나였다. 내가 보낸 프랑스생활 5년간, 하루에 다섯시간 이상의 잠을 자본일이 없을 정도로 오로지 공부에만 전력을 다했었다.

그러했던 내가 수도원에 들어와 그동안 나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던 공부에 대한 일체의 걱정을 버리고, 수도자로서의 기초훈련을 받게 되니 아니 즐거울 수 없었다.그동안 소홀히 했던 영적독서를 중점적으로 하는 한편 묵상시간을 충분히 갖고 신심생활에 전념했다.

여기서 나는 주님을 찬미하는 기도생활의 달가움을 처음으로 절실하게 체험하며 주님과의 일치에서 오는 기쁨에 마냥 행복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사제성소를 재확인하며, 내가 신부가 된 것을 주님께 무한히 감사했다. 이렇게 나는 수련기간을 통해 신부로서 갖추어야 할 덕성(德性)과 신심을 닦는 한편 지식과 신심의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신부는 지식만을 갖고성무집행을 해나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지식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부는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것이 아니다.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예수·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신부라면, 신부는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품성(品性)에 맞갖은 인격과 덕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주님의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하는 제사인 미사를 봉헌하는 신부는 첫째로 신심과 덕이 있어야 하며,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신학생 시절의 지도 신부의 말씀이 새삼 간명있게 회상되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신심과 덕을 신학생 시절에 제대로 연마하지 못했었다.

◇ ◇

나는 형제들이 많은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남과 어울려 사는 것을 좋아한다. 물론 성격과 사고방식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국인과 함께 수도원에서 공동생활하는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런 생활이 마음에 짐이 될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다보면 필시 외견상으로 충돌하게 마련이지만 나는 이 충돌을 통해 나를 더 깊이 발견할수 있었고, 또 남을 배울 수 있었다. 남들과 접촉할 때 남의 장점은 나에게 선의 자극이 되었고, 남의 단점은 내가 모르는 내 안의결점을 깨우쳐 줬다. 그리고 남이 내 마음을 상해주고, 내가 남을 미워하게 될 때, 나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항상 했다.

"주님, 저는 아직 이처럼 부족하고 신심이 약해, 주님께서 마태복음5장에서 친히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고, 축복해 주고, 사랑할 수없읍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잘 되도록 보살펴주십시오. 그들이 잘되는 것을 좋아하고 아껴주는마음을 저 안에 키워주사, 저로 하여금 어느날 주님처럼 그들을 축복해 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며칠이고 계속하고 나면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신앙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남이 내 마음을 상해주는 일이나 또는 내가 남을 미워하게 되는 일을 "기도의 재료와 주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방법"이라고 까지 말했다.

나는 수련기간을 통해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완전하며, 따라서 인간은 서로 보완하고 의지하며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체험했다. 내 이웃 형제가 단순히 남이 아니고, 내 인격수양과 수도자로서의 신심과 덕을 수련하는데 있어서의 없으면 안될 협조자인 동시에 스승이 됨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습관을 키워 나갔다.

수련기간에 나는 바오로 사도께서 데살로니카 전서 5장16절－18절에서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성경말씀을 깨닫게 되었다."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 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해야만 되는지를 나는 깊이 깨달았던 것이다. 즉 기쁨은 사랑의 향기고, 기도는 하느님과의 친교며, 감사는 넘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즐거운 마음의 표현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바오로 사도의 위 말씀을 "그리스도인 다운 생활의 멋"이라고 말한다.

1964년 도밍고성인의 축일인 8월4일, 그러니까 만 1년간의 수련기간이 끝나는 날 나는 15명의 동료들과 함께 첫허원을 바쳤다. 수련기간중 7명의 동료가 수련원을 떠났다. 그후 나는 수도회의 규정에 따라 신학공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옷따와 도밍고회 신학원에 배속되었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신규)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114)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원시 크리인디안들이 이때쯤 그 초원지대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들이고 수렵이 자라는맨 끝까지 밀려와 아타파스칸 인디안들이 사는 남쪽을되려 침공했는데 오늘날 치퓨얀 인디안이 그중의 한 그룹이다.

아타파스칸 사람들은 조직이 엉성했는지 또는 전혀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크리인디안의 압력에 배겨 나지 못했다. 그들은 다만 매복을 해서 돌발 기습을 가했을 뿐 이렇다할 저항도 못해보고 북쪽으로 도망처 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곧장 바렌으로 빠져 나오게 되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슴에 의존하는 생활양식을택하여 사슴과 함께 이동 하면서 살았다.

그들은 그레이트 슬레이브 레이크에 이미 정착해 살고 있던 내륙 에스키모의 땅을 거치지 않으면 안돼 두 종족간의 피의 상잔은 피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사무엘·헌(Samuel Hearne)이 1771년 코퍼마인리버를 답사한 기록을 보면 아타파스칸 인디언들이 한무리의 에스키모를 학살했다고 적혀 있고 그 장소는 지금 블러디·폴스(피의 폭포)라고 불려진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상당히 오랫동안끌었던 생존을 다투는 소모전이었다. 이런 싸움은 거의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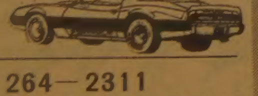
아타파스칸 인디안 들이 크리인디안이 처들어 오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것처럼 전쟁을 자주 해보지 않았던 내륙 에스키모는 재기분발한 인디안들의 침략을 당해내지 못했다. 평원에 살던 사람들이 결국 내륙의 민물바다인 그레이트 슬레이브 레이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할미우트의 민속담에 잇킬릴이 처들어 오지않는 새로운 땅을 찾아서 헤메던 이야기가 수없이 많다. 쫓겨다니던 사람들의 일부는 카리브떼를 따라 바다까지 가서 북동쪽으로 이동했으며 코로네이션 걸프에서 챈트리 인렛에 걸치는 북해 연안까지 와서 정착한 것같다. 북쪽으로 쫓긴 이사람들은 바다에 의존하고 살 수 있는 문화를 개발했고 나머지 평원에남아있던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 넓은 바렌속에 퍼져내륙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

해안문화는 많은 변화와 이동 또는 현지 토착민들과의 혼합으로 복잡다양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바닷가에 살던 원시 에스키모의 한분파는 계속 동으로 이동, 그린랜드로 갔거나 서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 시베리아로 돌아갔다. 평원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계속 내륙에서 살면서 동쪽으로 쫓길때 갖고 온 옛관습을 지켰다. 이들은 남북으로 뻗어 있는 허드슨베이 서쪽 해안과 접해있는 키와틴 테리토리의 광대한 평원에 들어와서 드디어 인디안들의 추적을피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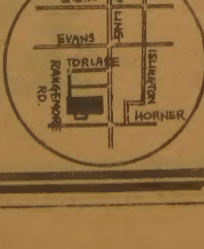
(계 속)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264－2311
(PAUL SHIN)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신 성 우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 CASH & CARRY 에 한함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


사진협회총회공고

회칙 제1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갖고저 하오니 회원 되시는분은 빠짐없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1982년1월23일(토)오후6시
곳 : 한국관(628 BLOOR ST. W. TORONTO)
안건 : 1. 업무보고
2. 감사보고
3. 결산보고
4. 82년도 예산심의
5. 임원개선
6. 기타

사진협회회장 이인덕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5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종역간부모집-어느정도 영어에 융통하고 용모 단정한 분. 당회사는 기반이 잡혀있는 무역회사임.
☎ : 962-0019

웨이츄레스와 키친 헬퍼 구함
459CHURCH ST. TOR. (미치 레스토랑)
☎ : 924-7501

도미니언·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또는 파타임 여자분 구함(YONGE & COLLEGE 빌딩안).
월~금 : 8시30분~9시30분 ☎ : 598-1140

도너스샵에서 주말에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11 : 00PM. ~9 : 00AM. (스카보로 지역)
☎ : 284-9325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성실한 남자구함.
저녁6시~새벽2시
☎ : 531-2689(Mr. 김)

도너스샵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밤11시부터 아침7시까지(일요일~목요일까지)
☎ : 482-4088

스토아 헬퍼 구함(유경험자)
☎ : 491-9701(던밀×세파트 지역)

ROOM MATE구함
6시 이후 연락바람
☎ : 745-5174(MISS. BANG)

NIGHT TIME WAITRESS 구함
460 DUNDAS ST. W.
☎ : 977-2164(Mr. NIKKO)

세살난 미국소녀 친구되어줄 한국 어린이 찾습니다.
위치 : HIGH PARK
☎ : 769-7822

한국일보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매매및 양도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이사관계로 급히 매매코저함. 짧은시간의(10 : 00AM~6 : 00PM)GIFT SHOP으로써 은종류, 크리스탈, 밥상보 등 여러종류 취급. ☎ : 낮(656-6660), 밤(224-2227)

듀폰 수퍼마켓 매매 아스킹 : $5000+인벤토리
☎ : 53 70892
(앨리나 SAM에게 연락요)

베이뷰 & 핀치하우스 4베드룸+훼밀리룸 지하실, FIRE PLACE, 2개 가라지. 아스킹 : $189950
☎ : 221-9338(7시PM이후 연락바람)

부인혼자 할수있는 세탁소 매매(주매상 : $1,200
월세 : $500 리스 : 7년 가격 : $35,000)
오후4시이후 문의바람 ☎ : 423-7280

DELICATESSEN & MEAT STORE
주매상 : $2,300 렌트 : $425
아스킹 : $23,000(모게지가능)☎ : 742-3216

TUCK SHOP 가정사정상 매매코자함.
주매상 : $2,500 렌트 : $600(전기, 물세 포함)
한달 순수익 : $2,200
$28,000+스탁(몰게지가능)
(10 : 00 A.M~10 : 00P.M)
☎ : (416)461-5242(미시사가)

급 매
뎀뿌라, 가마보꾸 제작기계 6점.
냉면기계 3점, 제분기계 1점(ALL NEW)
※기계에 관심있으신 분은 연락바람
☎ : 862-0361(홍)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극장옆 코너위치(로타리오 에이전트)
3344 YONGE ST. (직접 내방 요망)

78년형 VAN(G. M. C.)매매
마일레지 : 45,000마일스 가격 : $3500.
☎ : 281-1938(Mr. KIM)

버라이에티 스토아 주매상 : $4,500
렌트 : $400 리스 : 1+5년 아스킹 : $4,100
☎ : 221-2084(Mr. LEE)

스토아+주택(4베드룸)매매
주매상 : $4,200 $30,000 DOWN+STOCK
☎ : (1)-579-4451

잘꾸며진 미용실, 아파트(2베드룸)
(DUPONT × SPADINA)
☎ : 921-5947

해밀톤 스토아 매매
- 주매상 $6,000, ASKING $195,000
건물포함 다운페이 $90,000
- 주매상 $4,200 ASKING $152,000
건물포함 다운페이 $60,000
- 주매상 $4,000 다운페이 $50,000
건물포함 $159,000
- TUCK SHOP
주매상 $4,200, 좋은리스, 다운페이 $80,000

☎ : 1-662-4705, 1-662-7609
MONTREAL TRUST 전 병 호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집·방세·하숙

분위기좋은 방, 세나 하숙합니다. 교통편리, 큰창문
☎ : 532-9139(Mrs. 조)

사무실·점포 렌트

조용한 사무실 세놓습니다.
(DUPONT & DUFFERIN)
☎ : 533-2364

구 혼

1957년생(26세), 키 167cm,
직업 : 컴퓨터, 결혼할 여자구함.
☎ : 534-9660

1957년생(서울출생. 남)
신장 : 169cm 특기 : 태권도4단(양친 캐나다거주)
☎ : 291-2976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8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자동차수리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VISA master charge
오시지 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8655 531-5440 이 확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 5394(B), 742-0737(R)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8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정 춘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풍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모든 것을 사고파실 때는 우선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

회계사무소

KIM'S & ASSOCIATE
인컴텍스, 어카운팅(노스·욕 AREA)
☎ : 669-2710(김연수, 김명숙)

R. I. 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철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태 권 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부로 앞

사 진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기 타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謹賀新年

한국일보 직원일동

270點이상 7,618명

서울名門大 합격가능선

300點이상	827명
290點이상	2,090명
280點이상	4,260명
250點이상	20,818명
200點이상	139,317명

大入學力고사 成績분포 발표

名門大合格線 낮아져

上位圈줄고 中位圈 늘어 / 2百10~2百40點선택難

문교부 대입 학력고사위원회는 29일 82학년도 대입학력고사 수험생 59만1천7백27명의 성적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이번학력고사의 전체적인 성적분포는 81학년도 大入예시보다 상위권과 하위권이 줄어든대신 중위권성적이 크게불어나 다이어먼드型 분포를 보였는데 수험생의평균 득점은 지난해보다 5점정도 높아졌다. 이결과 82학년도대학별합격선은 명문대인기학과가 81학년도보다 낮아지는대신 비명문대는 높아지고 학교및 학과선택에 더큰 혼란이 예상된다. 82학년도 학력고사의 성적분포를 취득점수대별로 보면▲3백점이상이 8백27명으로 지난해의 1천8백82명의절반도 안됐고 ▲2백90점이상은 2천90명 ▲2백80점이상은 4천2백60명 ▲2백70점이상은 7천6백18명으로나타났다.

또 2백50점이상자는 지난해에는 2만9천2백30명이었으나 이번에는 2만8백18명으로 8천4백12명이 줄어들었고 2백점이상자는 13만9천3백17명으로 지난해의 13만9천74명보다 오히려 8천3백43명이 늘어났다. 3백40점을 1백점만점으로 환산할때 50점과 40점대인 학력고사성적 1백70점과 1백36점에는 6~10%씩 높은 분포를 보여 중하위권집단이 81년도에 비해 두꺼워졌으며 최하위권인 1백2점이하는 지난번에 약 11%였으나 이번에는 4%밖에되지 않았다.

고득점자를 계열별로 보면 이번에도 인문계가 자연계보다 크게 앞서있다. 최고득점은 남자가 3백32점으로 81학년도 3백30점보다 2점、여자가 3백29점으로 81학년도의 3백20점에 비해 9점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점수대별 累加分布및 작년對比 ( )안은 여자

점수	인문계 82	인문계 81	자연계 82	자연계 81	합계 82	(여자)	합계 81	(여자)
330	1	1	—	—	1		1	
325	8	7	7	4	15	(1)	11	
320	26	37	16	27	42	(3)	64	(1)
315	63	123	44	79	107	(9)	200	(7)
310	148	304	92	195	240	(17)	499	(15)
305	278	654	186	412	464	(46)	1,066	(38)
300	483	1,119	344	763	827	(81)	1,882	(83)
295	777	1,717	588	1,246	1,365	(135)	2,962	(161)
290	1,171	2,419	919	1,906	2,090	(226)	4,325	(289)
285	1,677	3,292	1,364	2,758	3,041	(360)	6,050	(496)
280	2,323	4,305	1,937	3,757	4,260	(555)	8,062	(779)
275	3,172	5,508	2,627	4,918	5,799	(853)	10,426	(1,132)
270	4,193	6,844	3,425	6,258	7,618	(1,234)	13,102	(1,579)
265	5,501	8,533	4,471	7,800	9,972	(1,797)	16,333	(2,199)
260	7,086	10,388	5,837	9,642	12,923	(2,516)	20,030	(3,010)
255	9,072	12,566	7,376	11,759	16,448	(3,484)	24,325	(3,961)
250	11,611	15,053	9,207	14,177	20,818	(4,717)	29,230	(5,095)
245	14,709	18,020	11,250	17,034	25,965	(6,340)	35,054	(6,605)
240	18,524	21,442	13,842	20,136	32,366	(8,408)	41,578	(8,392)
235	23,116	25,384	16,722	23,760	39,838	(10,954)	49,144	(10,547)
230	28,690	29,898	20,120	27,678	48,810	(14,073)	57,576	(13,006)
225	35,374	35,009	24,034	32,053	59,408	(17,889)	67,062	(15,816)
220	43,169	40,712	28,494	36,746	71,663	(22,400)	77,458	(18,930)

서울大 2百73…延·高·西江 定員 2百53點

4年制大 定員까진 百85點

한편 이번 성적분포를 대학별모집인원과 단순 비교해볼때 약 7만명이상이 몰려있는 2백10~2백40점대의 수험생들이 학교선택에 가장큰 어려움을 겪을것으로보인다. 서울大의 82학년도 모집인원 6천5백26명에 해당하는 점수대는 2백72~2백73점으로 나타나 이정도의 수준이면 일단 서울大전형이 가능하다고 볼수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낮은점수가 합격선이될수도 있으며 비인기학과의 합격선은 훨씬더 낮아질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또 서울大 高麗大(鳥致院분교제외) 延世大(原州大제외) 西江大의 총모집인원 1만7천6백80명선에 해당하는 점수는 2백53점인데 비해 지난번 예시에서는 2백63점으로 소위 일류대합격선이 10점정도 낮아질 것으로 일단 전망할수 있다. 4년제대학중 61개 전기대학과 11개교육대의 모집인원 16만7천1백28명에 해당하는 점수는 1백93점 선이고 전·후기를 합한 4년제 대학과 교육대의 총모집인원 20만2천7백56명에 해당하는 점수는 1백85점 안팎이다.

한편 이번학력고사에서 성적통지를받은 수험생은 지원자 59만1천7백27명중 전시 결시자 1만6천8백명과 부정행위자3명、방송통신고교평가시험불합격자26명등 모두 1만6천8백29명을 뺀 57만4천8백98명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金利 또 引下

어제부터 일반貸出 17% 定期예금 16.2%

家計性예금은 그대로 施行

한국은행은 29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은행일반대출금리를 1·0% 내리고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1·2%인하해 이날부터 적용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연 18·0%에서 17·0%로、정기예금(1년만기) 금리는 연 17·4%에서 16·2%로 인하조정됐다. 한국은행은 금리인하와 함께 예금제도도 대폭적으로개편、기업들의 자금부담을 가중시켜왔던 企業積金제도를 이날자로 완전히 폐지시켜버리고 아울러 1개월짜리 할인식양도성정기예금증서、우대가계정기적금、정기적금중 만기가 6개월단위로 끊어지는 것、장학적금등을 없애버렸다.

한국은행이 11월의 두차례 인하에이어 이번에 또금리를 인하한것은 국내물가가 연간 상승률12%선 이내의 현저한 안정세를 보이고있고 국제금리도 계속해서 하락추세를보이고있는데 경기동향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있기때문이다. 이번금리조정으로기업들은 1천억원정도의 금리부담을 덜게됐다.

이번금리조정으로 당좌대월금리가 연18·5%에서 16·5%로2·0%인하됐고 나머지 대출금리는 일률적으로 1·0%씩 내렸다. 수출금융과 에너지절약시설자금등 정책금융금리는 이번에도 조정되지않았다. 예금금리는 정기예금 6개월짜리가 연14·6%로0·64%、3개월짜리가 연14·4%로 0·42%씩 각각 내렸고 정기적금3년짜리는 연16·2%、2년짜리는 14·4%、1년짜리는 13·8%로 각각 조정됐으며 통지예금은 30일 미만이 연 1·8%、30일이상이 연 12·0%로 조정됐다. 저축예금과 가계종합예금은 금리가 조정되지않았다.

제2 금융권도 일부 金利내려

또한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조정으로 증권및 보험금리도 1·0~1·2%포인트 인하조정됐으며 短資회사나 신탁금리및 신용금고 금리등은 당분간 조정않기로 했다. 증권금리는 현재 연22·5%로 되어있는 會社債 기준금리를 21·5%로 내려 상하각2%포인트범위내에서 유동화시키며、증권流通金融은 證券金融이 증권회사에 대출하는것은 18·0%에서 17·0%、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대출하는것은 21·0%서 20·0%로 1%포인트씩 내렸는데 모두 내년1월4일부터 적용된다. 보험금리는 수신(확정배당금) 금리가 17·4%서 16·2%、일반대출금리가 21·0%서 20·0%、어음할인금리가 21·0~23·0%서 20·0~22·0%로、주택보험은 18·4%서 17·2%、약관대출은 기업체용이 21·0%서 20·0%、일반용이 20·0%서 19·0%로 내려 29일부터 적용된다.

◇금리인하내용

▲수신 (年 %)

구분	현행 우대	현행 일반	개정 우대	개정 일반
정기예금 1년이상	19·2	17·4	16·2	16·2
6개월 〃	15·24		14·6	
3개월 〃	14·82		14·4	
CD	12.775		廢止	
정기적금 3년	20·3	17·3	16·2	16·2
2년반	19·1	16·1	廢止	
2년	17·9	14·9	14·4	14·4
1년반	13·9		廢止	
1년	12·9		13·8	
6개월	12·1		廢止	
통지예금	5~14일 2·5 / 15~29일 5·5	30일이상 8·3	30일미만 1·8	30일이상 12·0
저축예금	14·4		14·4	
가계종합예금	14·4		14·4	

주 { 우대특별정기가계예금 : 200만원 이하의 1년이상만기 가계정기예금
우대가계정기적금 : 월불입액 6만원 이하의 계약기간 2년이상 가계정기적금

▲여신 (연 %)

구분	현행	개정
상업어음할인 적격	17·5	16·5
〃 기타	18·0	17·0
기타어음 우대	17·5	16·5
〃 기타	18·0	17·0
적금관계대출	15·5	15·5
	16·0	16·0
당좌대월 우대	18·5	16·5
〃 기타	19·0	17·0
군수산업어음	17·0	16·0
우대	17·5~19·5	16·5~18·5
기타	18·0~20·0	17·0~19·0
연체대출금	26·0	25·0
수출지원금융	15·0 (12·0)	15·0 (12·0)
에너지절약시설자금	12·0	12·0
〃 (텀론전환분)	15·0	15·0

주 : ( )내는 82, 6말까지 잠정이율

공무원俸給 평균9% 인상

새해부터 下厚上薄 최고 11%까지

단일號俸制

조정手當 2萬~5萬원 4月부터 월급合算

정부는 29일 82년도공무원봉급을 평균9% 인상、下厚上薄의 원칙을 적용、職級에따라 최고11%、최저 4·5%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처우개선계획을 확정했다. 총무처에서 마련、이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82년공무원처우개선 계획에 의하면 5급(사무관)에게 업무추진비를 신설、매달 5만원을 지급하고 6급(주사)에게는 장기근속 수당을 신설、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月3만원、5년이상은 2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한편 2만원~5만원까지 지급되고있는 調整수당을 오는 4월부터 봉급에 合算、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82년3월까지는 조정수당을 현행대로 지급하는데 4월부터 조정수당을 봉급에 合算、俸給化함으로써 보너스와같은 성격의 期末수당(3、6、9、12월 4회에겹쳐 모두 4백%)과 精勤수당(1월과7월 두차례에 걸쳐 모두 1백~2백% 지급)、퇴직금등이 자동적으로 증액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

이와함께 이번 공무원처우개선계획은 超過勤務수당과 모범공무원수당、子女學費보조수당등의 신설과 조정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수는 9%線을 넘어설 전망이다.

총무처당국자는 이번 처우개선계획의 시행에따라 82년 1월~3월까지는 평균 인상률이 7%선이나 4월부터는 조정수당의 봉급화에따라 인상률이 11%로 높아져 평균 9% 인상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무처는 또 조정수당이 봉급화함으로써 총보수중에서 봉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의 55%에서 57%로 높아지고 1級對9級(初任기준)의 봉급차이가 현재의 4·5對1에서 4·1對1로좁혀져 美國의 9對1、英國의8對1、日本의 4·8對1에 비해 격차가 훨씬좁아진다고 밝혔다.

한편 82년 공무원봉급에서 號俸간의差額이 현재의3천5백원~6천원에서 4천~7천원으로 높아져 장기근속자에게 더많은 보수가 돌아가게 됐다. 이번 報酬조정으로 2급(이사관) 22호봉의경우 현재의 月61만9천5백원에서 65만6천원으로、4급(서기관) 20호봉은 48만5천원에서 52만7천원으로、5급(사무관) 16호봉은 42만4천원에서 45만1천원으로 각각늘어난 보수를 받게된다.

炭鑛근로자들에 防寒服

全대통령、5萬여벌…勞苦치하

全斗煥대통령은 연말을맞아 29일 전국1백97개 탄광에서 근무하고있는 탄광근로자 5만8천3백10명 全員에게 防寒用외투를 각道知事를 통해 전달했다. 全대통령이 이들 탄광근로자들에게 防寒用외투를 선물한것은 어려운 작업환경을극복하며 묵묵히 일하고있는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보낼수 있도록 석탄增産에 힘쓰고있는 탄광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江原道등 탄광이 있는 6개道는 이날 상오 각 道知事와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防寒用외투전달식을 가졌다. 防寒用외투를 선물받은 각 道別 탄광근로자수는 다음과같다. ▲京畿=60명 ▲忠南=4천9백명 ▲江原=4만1천4백80명 ▲全南=2천7백70명 ▲忠北=1천6백명 ▲慶北=7천5백명

優秀공무원 리셉션

全斗煥대통령은 29일하오 청와대에서 吳重根씨(58·국립馬山결핵병원장)등 금년도 우수공무원98명을 위해 리셉션을 베풀고 이들을치하 격려했다. 이날 리셉션에 참석한우수공무원들은 금년도 국무총리표창이상을 수상한 우수공무원9백92명가운데 각부처가 선발한 공무원들이다. 이자리에는 金容烋 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新義州서 수백死傷

11~12月 北傀 대규모 武力충돌

【東京28日=宋孝彬특파원】 11월초순부터 중순에걸쳐 북괴의 新義州일대에서 3대혁명小組와 노동당행정기관원과의 사이에 충돌사건이 일어나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고 한때 이일대의 행정이 마비되었다고 통일일보가 29일자로 보도했다.

최근 북괴를방문하고 돌아온 정통한소식통을 인용보도한 이신문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社勞青제7차대회가 끝난뒤 新義州에서열린 지방대회를 계기로 新義州일대의각 행정기관에들어가 그동안 권력행사를 둘러싸고 사이가나빴던 당기관원들과 집단싸움을벌여 난동사태가 11월5일부터 7일까지 3일동안 계속되었다고 전했다.

이신문은 이소요사태는 12월중순까지도 계속되어 이지역의 민간인출입도 엄격히규제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소요사태로 난동을일으켰던 3대혁명소조원들의 다수가 압록강을건너 중공으로 도피했으며 중공으로 도피한 3대혁명소조원들의 인도문제로북괴와중공간에의견충돌을빚었었다고덧붙였다.

뉴스위크誌

北傀 南侵준비우려 / 冬季훈련 史上최대

【뉴욕29日=聯合】 미국의 일부 정보 분석가들은 미국이 폴란드사태에 신경을 쓰고있는사이에 북괴 金日成이 남침을 준비하고있는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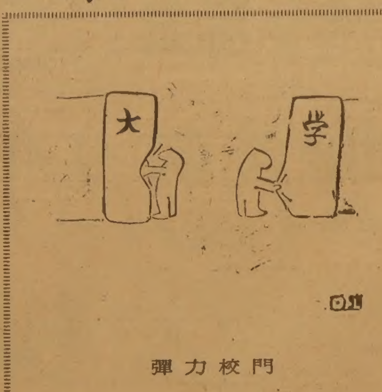
뉴스위크는 최신호에서 미국의 정보분석가들이 북괴의 이번 동계 군사훈련에 민간인들이 대거참여하고 일반수송수단이 군사적 목적에 전용되는등 여느때보다도 훨씬 광범위한훈련이 펼쳐지고 있다는데 주목하고있다고 전했다.

波 自由勞組인정

야루젤스키 밝혀

【바르샤바28日AP=聯合】 폴란드계엄당국은 앞으로 솔리다르노스크와 같은 자유노조의 존재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그러한 노조의활동을 노동지향적인 활동에만 엄격히 제한시킬것으로 보인다.

社會漫評



地平線

우리나라 학생들의 눈이 형편없이 나쁜원인이 밝혀졌다. 가정의 전등불 밝기가 서울등 대도시에서 국제기준의 30%、농어촌에선 10%에 불과하다는것이다. (서울工大 池哲根교수팀 조사결과) ▼특히 공부방의 경우는 서울에선 기준照度의 12%、농촌에선 4%라는 놀라운 실정을 보여주고있다. 에너지가 모자라는나라이기 때문에 절전이 필요하고 50㎾를 넘는경우 누진율요금도 좋지만 국민보건을위해서는 다시생각해야될 문제인것 같다. ▼거실은 3배、공부방은 9배가 밝아져야한다는 얘기인데 그나마 良質의 전기가못돼、깜박깜박하는데다전압마저초저녁과 밤에는 15~23볼트나 오르내리는판이니그냥넘길문제가 아니다. 高3생과 대학생들가운데 안경안낀 학생이 드물정도라면 한심타할수 밖에없다. ▼우리네 시력은 눈이 좋을때 1·2에서 1·5다. 2·0도 간혹 있으나 표준은아니다. 대만의 원주민들은 2·0이 보통이고 3·0도 드물지 않다고한다. 유전적자질이나 수렵생활과도 시력은 관련이 짙은 모양이다. 자동차운전엔 안경을 끼고 두눈으로 0·7、한눈으로 0·3만되어도 오케이다. 하나 비행기의 파일러트만은 1·5시력이어야 된다. ▼갓난아기때의 시력은 아주 나빠、생후2개월에 0·01、1·8개월이 지나면 0·1、6세쯤가야 어른수준의 시력이 되는것은 사실이다. ▼눈의 視野는 서양사람보다 동양사람이 일반적으로 넓다. 서양사람들의 눈은 과여있는데다 코가높아 시야가 좁다. 한국인의 시야는 좌우 1백60도、상하 1백20도며 서양사람들은 이보다 15도~20도정도 좁은것이다. 한데 나이가들면 綠內障이나 網膜色素變性같은 병때문에 시야가 줄어든다고 한다. 또 자동차와 기차로 여행할때 주변의 경치가 눈에 들어오지만 멀리보려고 주의를 집중하기때문에 시야는 좁아지며 視界의 흐린 인상은 대뇌가 커트해서 기억에안남게된다. 피로를덜기위해 자기방위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고치지 못한다. 콘택트렌즈 같은것이 나와 안경대신 눈에 직접써우지만 근본적인치료법은 아니다. 문명은 전기를 얼마나 쓰느냐에 달려있다고들한다. 시력을 보호하기위해 밝은 전등을 켜야할것은 물론이다. 도시나 시골이나 전등만은 환히켜서 우리들가정을 밝게하고 젊은이의 시력을 보호해야되겠다. 전기값、전압、조명기구에이르기까지 모든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아쉽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439—8885(R)

謹賀新年

지난 한해동안 베풀어주신 후의를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아낌없는 성원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거듭 바라오며, 한분 한분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평화식품
구자선 · 이시택
534—0237

한인신용조합 직원모집공고

본 조합의 급성장과 더불어 보다나은 써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한인사회에 이바지하고저하는 봉사심이 강한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함.

구 분	여 자 직 원	외 무 직 원
모집인원	○명	○명
자 격	카나다 거주자로서 일반회계와 사무처리능력을 구비한자 영어에 가능하며 은행근무및 어카운팅 경험자를 환영함.	토론토거주 교민으로서 5년이상 경과자, 남녀불문.
근 무	Full Time으로 정상근무	Part Time근무시간과 주중 근무날자는 형편에 따라 조정가능, 제약치 않음.
대 우	능력에 따라 대우함	업적에 따라 대우함
제출서류	이력서, 한글·영어 각 한통	이력서, 한글·영어 각 한통
제출마감	1982년1월15일	1982년 2월15일

※기타 자세한 것은 본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OREAN(TORONTO) CREDIT UNION LTD.　641A BLOOR ST. W, M6G 1L1　TEL. 533—9387, 9388

김인규회계사무소
개 업 안 내

지난 7년 동안 해오던 회계업무를 더욱 충실히하기 위하여 아래장소에 1월1일부터 사무소를 개업하였읍니다.
Computer, Xerox등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사무실로 아시고 배전의 애호와 편달을 바랍니다.

ACCOUNTING OFF. I. K KIM, RIA
501 Yonge St. Suite 207(Yonge & College)
Toronto, Ont.
☎ : 960—5736(B) 844—0178(R)

약력 : 1964년 서울상대졸업
1975년 RCA RIA
1981년까지 12년간 카나다세조업체에 Accountant, Controller로 근무

1982년 1월 일

공인회계사
김 인 규 배

美、臺灣에 군사販賣 강행

올들어 처음 총9,700萬弗어치

新型FX機는 未定

中共 심한반발 美에 해명要請

【워싱턴28日AP·UPI=聯合】레이건미행정부는 중공의 반대에도 불구、대만에 대한 9천7백만달러어치의 군사부품판매계획을 의회에 통고한것으로 28일 밝혀졌다. 딘·피셔국무성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확인하면서 『거래액이 2천5백만달러이상이기때문에 대의회통고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정부관리들은 이같은 대의회부품판매통고가 지난 11일이뤄졌다고 말했다.

피셔대변인은 이판매액이 군사장비의 부품과 인도비용이라고 강조하고 대만이 요청해온 신형FX전투기판매여부는 아직 결정되지않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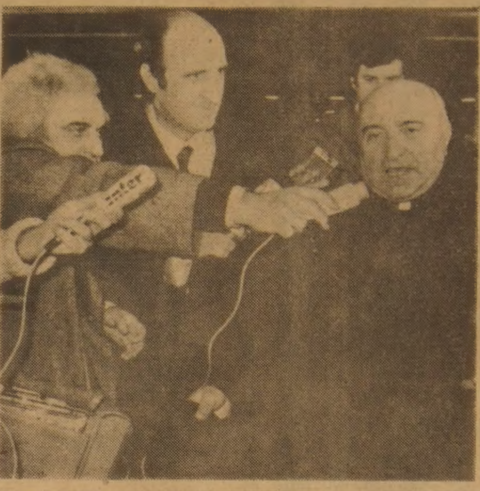
미정부가 대만에대해 군사부품판매를 결정한것은 금년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피셔대변인은 미행정부가 이같은 판매계획을 중공에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北京29日UPI=聯合】중공은 29일 미국의 모든 對대만무기판매에 반대한다는 자국 입장을 재확인하고 현재 미국에 對대만군사부품판매계획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공의 이같은 반응은 레이건행정부가 중공의 반대에도 불구、대만에대한 9천7백만달러상당의 군사부품판매계획을 의회에 통고한데뒤이어 나온것이다. 대변인은 『우리는 대만에대한 미국의 어떠한 무기판매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료한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중공당국이 미국의 이같은 對대만군사부품판매계획에 관해 미정부에 해명을 요청하고있다고 밝혔다.



◇波방문한 敎皇 포기특사의 記者會見 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의 특사로 1주일간 폴란드를 방문하고 27일밤 로마공항에도착한 루이지·포기大主敎가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있다. 포기대주교는 폴란드당국과自由勞組가 조속히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로마28日AP=聯合】

美、對蘇·波 곧추가制裁

레이건 監視특별반·安保회의 소집

【워싱턴·로스앤젤레스28日UPI·AP=聯合】레이건美行政府는 28일 폴란드사태를 감시하기위한 특별상황반회의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통치를 강화하고 있는 폴란드당국과 소련에대해 취할 일련의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레이건 대통령은 금주중 모종 추가제재조치를 발표할것으로 알려졌다.

조지·부시 부통령을 반장으로한 특별폴란드상황반은 이날 백악관에서 2시간30분동안 회의를 열고 가능한 대소및 폴란드제재조치들을 논의한후 현재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부근의 목장에서 휴가중인 레이건 대통령에게 일련의 대응책을 건의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같은 건의와 보고에 따라 일련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주중 최종결정을 내리고 모종조치를 발표할예정이다.

波勞動者들이 不良商品 생산

【빈29日UPI=聯合】폴란드전역의 노동자들은 28일 계엄통치에 항거하는 최후의 저항인것으로 알려진 광부들의 지하농성이 종식된이후에도 결함이 있는 부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속도를 줄이는등 태업을 계속하고있는것으로 처음 보도되었다.

28일 15일만에 종식된 실레지아지역 피아스트탄광의 지하농성은 지금까지 계엄통치에 대한 마지막 항거인것으로 공식적으로 간주되어왔으나 바르샤바방송은 28일늦게 그디니아、「그다니스크」등지의 거대한 조선소를 포함、발트해연안의 대규모 공장들의 공산당부들이 회동한결과 이지역의 사회적 경제적상황이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바르샤바방송은 조선소들의 저항형태가 무엇인지 밝히지않았으나 28일밤 폴란드로부터의 보도들은 폴란드전역의 중요공장들이 계속폐쇄되어 있거나 정상수준을 훨씬밑도는 생산활동만을 보이고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FSO자동차공장의경우 노동자들이 서로맞지않는 부품들을 생산하면서 일종의 태업을 벌이고있다고 전했다.

美、對蘇보복 二元化

全般的 禁輸·구체적 制裁로

【워싱턴29日UPI=聯合】미국은 폴란드계엄사태에 대한 對소보복조치로 전반적인 對소무역금지조치등 경제제재조치와 기타 「구체적인 제재조치」등 二元제재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美고위관리들이 29일 말했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맹방도 미국의 對蘇보복조치에 가담할뜻을 비치지않고있어 소련이 미국으로부터 금수된 상품들을 다른 서방국들로부터 구입할 가능성이있다.

이관리들은 현재 레이건 대통령이 검토중인 對蘇제재조치중에 對소곡물및 고급기술판매를 금지하는방안과 對소여신규제조치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소련에 대한 신규제재조치가 취해질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소련의 구매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들은 또 「기타 구체적인 제재조치로 미국이 지난 11월30일 시작된 제네바 미소군축협상을 『매우 신중하게 예의주시하고있다』고 말해 군축협상중지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中共軍 충성심微溫 役割축소이후 不滿

【北京29日AP=聯合】毛澤東사후 중공군의 정치적역할이 축소된데 따른 군부내의 불만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가운데 공산당의 새정책에 대한 군부의 「충성심」이 큰 두통거리로 등장하고 있는것으로 28일 중공당기관지 인민일보의 한 기사에서 시사되었다.

人民日報는 이날 北京軍區 당위원회가 연말평가에서 『장병들은 당노선、전체적 방향 및 정책을 무조건 따라야한다』고 말한것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중공군부내에 아직도 새정권의 정책에 대한 유보적태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시인하는것이다.

지난 수년간 중공군내의 일부세력들은 毛澤東집권당시 군이누렸던 권위가 그의 사망후 하락된데 불만을 가져온것으로 관측되어왔다.

同僚석방등 3個項 요구

붉은旅團、도지어將軍 석방條件

【로마28日UPI=聯合】이탈리아의 강력한 테러조직 「붉은여단」의 단원임을 자처하는 한남자가 28일 베이루트의 ANSA통신지국에 전화를 걸어 제임즈·도지어미육군준장의 석방조건으로 수감중인 동료석방등 3개요구사항을 제시했다.

ANSA통신은 이 아랍어를 쓰는 남자가 ▲이탈리아에 수감된 동료 3명을 즉각 석방하고 … 관한 정보를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머지1개조건은 이탈리아시간으로 28일 하오3시부터 자정사이에 이탈리아에서 발표될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도지어將軍의 사진 捏造된것으로 推定

【로마29日UPI=聯合】이탈리아의 좌익도시게릴라단체 붉은여단이 지난 전달한 제임즈·L·도지어미육군준장의 사진이 날조된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그의 안전에대한 새로운 우려가 높아지고있다.

경찰소식통들은 지난 17일 베로나의 아파트에서 붉은여단에 납치된 도지어장군이 붉은여단의 깃발을 등진채 사진찍기를 거부했을것이며 따라서 붉은여단은 다른 사진을 만들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전문가들이 진중 타박상으로 보였던 쪽 눈밑의 얼룩이 사실인지를 검사할것이라고 말했다.

◇개와 까마귀의 즐거운 데이트 파리교외의 한 庭園에 새끼 까마귀 한 마리가 매일 날아와 바세트種의 개와 놀고 있어 話題。【키스톤=聯合】

나토團合 심각한試鍊

美 對蘇·波추가보복 西歐서 꺼려

【브뤼셀28日UPI·聯合】레이건미대통령이 만일 특히 소련을 겨냥하는 조치와 함께 폴란드에 대한 후속보복조치를 강구할 경우、나토의 단합은 심각한 시험대에 오를것이라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외교관들이 28일 말했다.

이 외교관들은 미국의 구주동맹국들이 현단계에서 동서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말하고 폴란드의 극적인 사태발전이 더이상 진전되는것을 막고 소련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봉쇄하기위한 서방측의 구체적인 조치는 내년1월5일 워싱턴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헬무트·슈미트 서독수상의 회담이있기까지는 나올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西獨정부는 특히 폴란드에 대한 응징조치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않을것이며 폴란드 위기는 당분간 東西대결로 擴大되지 않는범위내에서 현상을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다.

波軍部 武力탄압에 굴복

피아스트炭鑛광부 操業재개 同意

【빈29日UPI·AP=聯合】폴란드 계엄당국의 노조탄압에 항의하여 마지막까지 집단파업을 벌이고있던 실레지아지역 피아스트탄광의 광부 9백여명이 29일상오(이하 한국시간) 파업을 포기、당국의 조업재개요구에 동의함으로써 계엄3주째를 맞은 폴란드사태는 당국의 무력탄압속에 일단 진정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빈에서 청취된 관영바르샤바방송은 피아스트탄광 지하 6백50m 갱도에서 농성을 벌이고있던 9백여명의 광부들이 파업2주만에 농성을포기、파업위원회를 해체하고 29일상오 1시20분부터 지상으로 나오기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피아스트탄광이 29일 하오부터 정상작업을 재개할것이라고 밝혔다.

올 GNP 7·1%成長

韓銀추계 78年이후 最高기록

올해 GNP(국민총생산)성장률은 7·1%에 달한것으로 추계됐다. 29일 韓銀발표에의하면 81년중 GNP는 75년 불변시장가격으로 14조8천2백억원에달해 지난해보다 7·1% 늘어났다. 이에따라 1인당 GNP는 1백11만4천원(1천6백36달러)에 달해 지난해의 90만원(1천4백81달러)보다 21만4천원이 늘어나게됐다. 연간GNP성장률 7·1%는 78년의 11·6%이래 가장 높은수준이다.

올해 GNP성장률이 이처럼 비교적 높은 수준에 달하게된 것은 농산물작황호조로 농림어업부문이 연간23·0%의 높은 성장을 이룩한데다 수출호조와 물가안정에 따른 부분적인 내수회복으로 광공업부문도 6·8%의 착실한 신장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올해 국민총생산의 부문별동향을 수요면에서 보면 총소비가 4·5%증가로 지난해의 1·0% 마이너스에 비해 견실한 신장세를 나타냈고 총수출도 17·4%증가로 지난해의 7·9%증가보다 2배이상 빠른 신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고정투자는 여전히 5·2%의 감소추세를 나타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아직도 크게 위축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4·4분기(10~12월)중의 GNP성장률은 14·2%에달해 호황해인 78년 2·4분기의 16·7%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4분기중의 고율성장에 힘입어 올해 연간 성장률이 7·1%의 비교적 높은수준에 도달하게됐는데 4·4분기의 고율성장은 미곡생산호조에 주된 원인이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産業別 및 需要項目別 成長率 (單位:%)

	1979	1980	1981
GNP成長率	6·4	-6·2	7·1
農林漁業	6·7	-22·0	23·0
非農林漁業	6·3	-2·5	4·0
鑛工業	9·4	-1·1	6·8
(製造業)	(5·8)	(-1·1)	(6·8)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서비스」	4·1	-3·4	2·0
社會間接資本	8·8	2·0	3·1
其他「서비스」	2·0	-6·1	1·5
總消費	7·4	-1·0	4·2
民間	8·7	-1·4	4·4
政府	-0·6	1·9	2·8
國內固定投資	9·7	-12·0	-5·2
總輸出	-4·0	7·9	17·4
(商品) 1)	(-2·5)	(12·6)	(19·4)
總輸入	8·8	-3·5	10·0
(商品) 1)	(10·1)	(-9·4)	(6·4)

生産·出荷 계속減少

11월중 3·7、2·6%씩 輸出不振에 영향

금년들어 계속 상승세를 견지해온 産業生産、出荷동향이 9월이후의 수출부진으로 10월에이어 11월에도 3·7%、2·6% 각각 전달보다 감소했고 在庫는 4·1%늘어났다.

29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11월중의 경제동향에 따르면 또 금년들어 건축허가면적도 공업용이 작년동기보다 18·9%늘어난대신 住居用、상업용은 각각31·7%、22·4% 가 계속 감소된 추세를 보였다。11월말현재총통화는 24·5%늘었고 수출부진으로 11월중의 무역수지가 다시 4억8천5백만달러의 적자로 바뀌어 11월말현재 무역수지적자는 모두 39억7천3백만달러로 집계되었다。

올해秋穀수매 6백16만여섬 目標보다 3%늘어

지난26일로 끝난 금년産秋穀收買실적은 목표 6백만섬보다 3%가 늘어난 6백16만2천섬으로 최종집계됐다. 29일 농수산부에따르면 쌀값안정을위해 收買기간을 6일연장、수매에 응하는 물량을 모두 사들이기로 했으나 일반품종 4만3천5백섬을 비롯 9만5천섬에 그침으로써 收買실적은 목표대비 3%증가에 머물렀다.

道別로는 慶北이 1백17만3천섬으로 계획 1백5만7천섬보다 11%가 늘어난것을 비롯、慶南이·81만1천섬으로 10%、全南北이 96만3천섬、1백58만8천섬으로 각각 3%와 2%가 증가한 반면 京畿·江原·忠南은 계획에 미달、新品種쌀생산이 적은것으로 나타났으며 品種別로는 일반벼가 전체의 9·7%인 59만5천섬을 차지、1등비율이 50·2%로 지난79년의 50·8%보다 9·4%포인트가 늘어났는데 市道別 수매실적은 다음과 같다。(단위 천섬)

▲釜山4 ▲大邱16 ▲仁川1 ▲京畿327 ▲江原162 ▲忠北421 ▲忠南692 ▲全北963 ▲全南1、588 ▲慶北1、173 ▲慶南811 ▲濟州4 ▲計6、162

輸出2백6억弗 目標를초과

상공부가 집계한 28일현재 수출실적은 2백6억8백만달러로 금년도수출목표 2백5억달러를 초과달성했다。금년말까지 수출실적은 2백9억달러내외가 될것으로 보인다。

換率 7百원線 돌파

매도율7百10원50전

달러 환율이 7백원선에도 달했다。한국은행은 29일 미국돈 1달러에 대한 집중기준율(교환기준비율)을 7백원으로 고시하고、전신환 매도율은 7백2원10전、전신환 매입률은 6백97원90전으로 각각 고시했다。현찰의경우는 매도율(은행에서파는가격)이 7백10원50전、매입률(은행에서사는가격)이 6백89원50전으로 각각 고시됐다。

이에따라 달러환율은 29일현재 지난연말대비 6·07%(집중률)의 상승률을 기록하게됐다。금액으로는 40원10전이 올랐다。달러 환율은 11월말까지만해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금리인하와 함께 환율도 실세를 반영토록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에따라 12월들어 급격한 오름세를보이기시작、12월 한달동안 올해연간 상승폭의 25%에해당하는 10원10전이 올랐다。

外換보유 75억弗로 財務部 내년計劃

재무부는 내년 경상수지적자를 16억달러로 축소하고 외환보유고는 75억달러를 확보키로했다。

29일 재무부가발표한 82년도 外換需給계획에따르면 수출은 2백45억달러、수입 2백51억달러로 무역수지 적자폭을 올해9억달러에서 6억달러로 줄이고 무역외수지에서도 수입74억달러에 지급은 84억달러로 억제、적자폭을 올해 14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줄임으로써 경상거래적자폭을 올해 23억달러서 내년엔 16억달러로 축소키로했다。

장기자본부문은 차관및 투자7억달러、장기무역신용1억달러、開發機關차입6억달러등 14억달러가 도입되는데 비해 차관원금상환14억달러、중장기延拂수출 4억달러등 18억달러가 지출됨으로써 장기자본수지는 4억달러 적자를 나타내게되며 장기자본수지와 경상수지를 합한 기초수지는 20억달러 적자로 올해보다 적자폭이 1억달러가 줄게된다。

奬學積金이자에 課稅안물리기로

정부는 내년부터 학생저축의 이자와 무주택서민들의 입주자저축에대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하고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기술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경우 그지출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했다。

재무부가 마련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租稅減免規制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미취학아동·국민학생·중고교생이 장학적금에 가입했을때는 그이자에대해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으며 住宅建設促進法의 규정에의한 입주자저축에 대해서도 그이자는 비과세키로했다。

장학적금의 한도는 1인당 10구좌 50만원이하이며 입주자저축은 1세대1구좌로 월불입액 10만원이하에 한한다。

이개정안은 또 기술집약적인 산업에대한 기술개발준비금제도를 도입、일반산업의경우 수입금액의 1%또는 소득금액의 20%범위에서 많은쪽을택해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할수있도록하고 기술집약산업은 수입금액의 1·5%또는 소득금액의 30%범위에서 택일할수있도록했다。

기술개발준비금은 3년거치후 일시에 사용할수있으며 미사용분은 환입해야한다。

기술집약산업은 컴퓨터등 전자기기와 통신기기 반도체등을 포함하는 전자공업과 기계공업 항공공업 방위산업 정밀화학등 5개부문이다。

「便利融資」制 실시

200만원까지 急錢대출 가능

第一銀서 새해부터

통장하나만 갖고있으면 2백만원범위내에서 필요할때 언제든지 은행대출을 받아쓸수있는『便利融資』제도가 새로생겨 내년1월4일부터 第一銀行에서 취급한다。

29일 제일은행에의하면 편리융자제도는 급전이 필요한 일반서민들에게 손쉽게 은행대출을 받을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위해 마련된 補償的성격의 가계융자제도로서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통장을 갖고 3개월이상 거래한 고객들에게 최근 3개월간 예금평균잔고 범위내에서 최고2백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이다。융자기간은 1개월、적용금리는 연17·0%(일반대출금리)이며 담보없이 신용으로 대출해주도록 돼있다。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대신 재산세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2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한다。

先給金지불義務化 내년 下半期부터

정부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자가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을줄경우 자기가받은 先給金의 비율만큼 하도급업자에게도 선급금을주도록 의무화、내년하반기부터 시행키로했다。

29일 건설부에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원도급업자의 횡포로부터 중소하도급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한편 자금난에따른 공사의 不實化를 막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지금까지 권장사항으로만 규정해온 관련법규를 고쳐 내년7월부터 하도급업자에대한 선급금지급을 의무화 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원도급업자가 공사대금의 20%를 선급금으로받았을경우 하도급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의 20%를 먼저지급해야 하게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의무화조치의 시행과함께 이를위반하는업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1百10억엔 日借款도입

長期信用銀行

長期信用銀行은 29일 일본으로부터 1백10억엔의 장기전대차관을 도입、국내민간기업들에게 시설자금으로 轉貸해주기로 했다。

이차관은 아시아개발은행과의 협조차관형식으로 도입하는 것이며 기간이 10년(3년거치후7년분할상환)짜리인 장기차관인데다가 고정금리(일본장기우대금리더하기 0·3%)인 점이 특색이다。

◇29일오전 장기신용은행 회의실에서 金奉殷행장(우측)과 차관단대표들이 차관협정을 체결하고있다。

中小企業 支援委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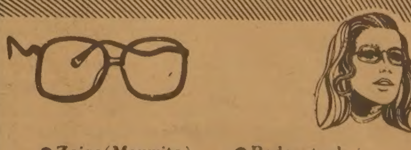
새해에 中小企業振興公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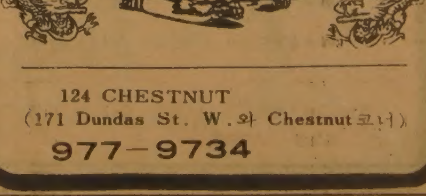
中小企業진흥공단(이사장 裵相穆)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각종기금의 효율적인운용과 지원시책의 원활한수행및 중소기업지원기관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하기위한「中小企業支援委員會」를 새해부터 운영키로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주관아래 각 유관기관이 매월순번제로 개최하게될 이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대상의 중복방지와 금리、지원기간、지원규모등 지원조건의 균형및 지원절차의 간소화등에관해 협의하게되며 이외에도 관련정보의 상호교환、업무추진에 관련된 문제에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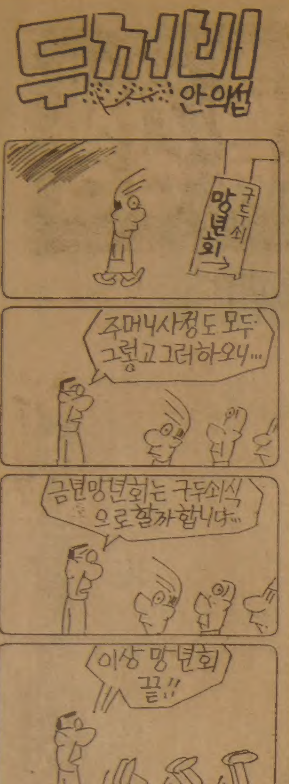
주간여성
인기절찬 판매중!
12월 27일자
주간女性

홍콩 스타 鄭美羅양 시집간다네
21일 은퇴하고 28일 친구 오빠와 約婚
碧眼처녀가「孤兒사랑」20년
81년 演藝총결산「映畵界」편
人氣 배우들의 개런티 明細
스타 誕生 夜話 尹福姬 편
中共서 돌아온「宋家 큰어른」
마거리트 公主의 쇼킹 傳記
發明賞탄「항생제 새合成法」
李美淑과 全永祿의 뜨거운 사이 眞相
50代 外國人 신랑과 40代 畵家 신부의 스위트 홈
<탤런트 琴寶羅>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 · 9 : 30AM~7AM
금 · 9 : 30AM~8PM
토 · 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謹賀新年
지난해 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부디 여러분과 온가정이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 보다 밝고 행복된 새해 되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니다.
황용현 배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한국일보 533-2361

北傀、「서울五輪」두달간 숨겨

「金日成 神格化」세뇌교육도

歸還 공영호 漁夫 회견

◇귀환어부들이 북괴억류 1백91일동안 보고겪은 북한의 실상과 북괴의 대남모략비방선전등을 폭로하고있다。【鄭在斗기자찍음】

【仁川=姜秉泰기자】북괴피랍 1백91일만인 지난18일 귀환한 제1공영호(선장 孫舜實·49) 선원 21명이 29일상오10시 仁川 항운노조회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괴는 88서울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 서울 유치를『민족의 영구분단조작』이라고 왜곡, 비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귀환어부들은 또 북괴는 88서울올림픽개최사실을 2개월이상이나 북한주민들에게 숨겨왔으며 지난12월초에는 강제기자회견을열고 어부들로하여금 88서울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을「두개의한국조작」「경제적파국」등의표현으로 비난하도록 강요했다고 전했다。

북괴는 어부들에게 귀환직전『돌아가면 친척과 동지들을규합, 서울올림픽개최반대여론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라』는 지령을 내리기까지 했다는것。

어부들은 납북후「평화통일위원회」요원들로부터 6개월동안 아침7시부터 밤10시까지 강제세뇌교육을 받았으며 교육내용은 대부분 金日成신격화와 金正日후계의 당위성을 북한주민들에게 주입시키려는데 이용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히고『강제기자회견에서 金日成부자를 찬양하도록 강요하고 거부하는 어부들에게는 약물을 강제로투여하기도했다』고 말했다。

북괴는 또 어부들을 개별적으로 심문, 한국의 중요기관과 검문소、군부대위치、민원서류신청방법、여관、식당、술집등과 교통수단 이용방법등 대남군사도발과 간첩남파에 필요한자료를 수집했으며 어부개개인에게 학생、지식층포섭、저명인사에대한 협박편지발송、북괴가 보내주는 金日成선전책자 전파、소요선동、공작원접선등 특수지령을 지시하기도했다。

어부들은 또「북괴는 미정찰기가 공격을해와 사태가 엄중해졌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군사장비를 빈번히 이동시켜 북한주민들에게 위기 위식을 심어주고있다고 전했다。

水協경기지부소속 오징어잡이 어선인 제1공영호는지난5월26일 濟州島근해에서 조업을마치고 仁川으로 귀항하던중 심한안개로 군사분계선 남방4마일까지 접근、영해를 침범해온 북괴경비정2척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가 돌아온 것이다。

事故관련12명令狀

음식점 가스爆發

속보=대한화재해상보험빌딩 지하음식백화점 가스폭발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29일 가스배관시설공사를 맡았던 大洋설비대표 韓觀洙씨(54)와 기술부장 丁仁基씨(45)、안전관리를 소홀히한 한국가스공업주식회사 대표 朴益緖씨(46)·안전관리원 尹大烈씨(25)와 보조원 金演奎씨(20)、빌딩관리회사 白暘산업대표 白光宣씨(37)와 방재실 대리 金守權씨(46)·주임 金君鳳씨(54)、한국가스안전공사 점검관 金弘式씨(26)、權寧福씨(34)、宋泰昊씨(27)안전과장郭鍾鎰씨(33)등 모두 12명을 가스사업법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위반과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년간 원호성금 4백9억6천만원

원호처는 지난74년부터 금년12월말까지 8년간 국민각계각층이 보내준 원호성금총액이 4백9억6천9백만원에 이르렀다고 29일 발표했다。

李種浩원호처장이 밝힌 원호성금기탁내용을 보면 74년부터 78년까지 4년동안 2백39억2천8백만원이 기탁되었으며 79년한햇동안엔 1백8억2천만원이 기탁돼 연간 가장많은 액수를 기록했으며 금년엔 50여억9천만원이 모금되는등 지난8년동안 모두 4백9억6천9백만원이 기탁되었으며 이자증식 53억1천7백만원을 합해 모두 4백62억8천6백만원의 원호성금이 모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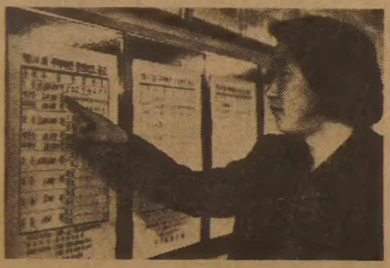
이를 사용내역별로보면 무주택국가유공자 1만6천69가구에 전체성금의 77%에 해당하는 3백58억1천9백만원을 지원했고 농토구입및 자영사업지원에 17%인 77억5천7백만원 재해구호및 중상자집단촌지원에 6%인 27억1천만원이 지원됐다。

歲暮 억세게 재수좋은 사나이

東大門시장 皮革商주인

福券10장사 9장당첨

3천3백20여만원 타


◇주택복권추첨에서 1등을 포함, 한꺼번에 9장이 당첨된 행운의 사나이 安씨。당첨공고문을 보고 뜻밖의 행운을 재삼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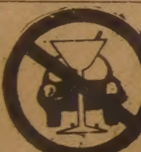
서울東大門상가에서 피혁제품상점을하는 安相俊씨(가명·36·서울 東大門區 中和2洞)는 29일 제510회 주택복권추첨에서 10장의 복권가운데 1등을포함 9장이당첨돼 복금3천3백20만4백원을탔다。

지난69년 주택복권발행이후 한꺼번에 탄 복금액수로는 최고기록이다。

安씨는 지난21일 東大門버스터미널건너 노점판매소에서 5조 294651∼9번등 연식복권10장을 샀는데 이가운데 5조 294659번이 1등에 당첨됐고 나머지 8장이 행운상에 그리고 2장이 6등에 각각 당첨된 것。

이날 安씨는 기타소득세、주민세、방위세등을 공제한 2천8백96만7천3백49원을 실수령액으로 받았다。

73년 鎭海市에서 맨주먹으로 상경、東大門 상가에서 가게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安씨는『3주전부터 연식복권10장씩을 사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거액의 복금을 타게됐다』면서『일단 은행에 예금시켰다가 적절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選擇혼란·未達현상 빚을듯

大入銓衡요강 募集단위세분·地域제한 철폐로

專門家진단

서울法大·의예과 2백93점

高大法大·延大경제과 2백70점

慶北·釜大등 지방名門 2백55점이상

중간층두터워 올보다 위험부담 늘어

82학년도 대입에서는 정부가 채택한 갖가지제도적 보완장치에도 불구하고 81학년도 대입과정에서 나타난것과같은 혼란과 미달현상이 여전히 계속될것으로 보인다。대입학력고사 성적이 밝혀진29일 대학입시전문가와 고교교사등 입시관계자들은 ▲올해 학력고사 성적분포가 유난히 중간층이 두꺼운데다 ▲대학들의 모집단위가 소계열내지 학과단위로 세분돼 대학선택이 어려워져 입시혼란과 진학난이 극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전기대학의 1차전형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미달사태를 피할수 없을 것같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이번 입시에서는 대학선택이 모집단위의 세분화와 이로인한 모집인원의 축소때문에 81학년도보다 훨씬 더 위험부담이 커질것이며 이를해소하기위해 보완된 복수지망제는 수험생들에게 이렇다할 실질적인 도움이되지못할것 같다고 지적했다。

입시관계자들은 특히 이같은 혼란은 수험생들이 대거 몰려있는 중위권점수대에서 극심할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부분의 중·하위권대학들을놓고 이들 점수대의 수험생들이 갈팡질팡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입시에서 대학선택이 더어려워진이유로 커트라인및 지역제한철폐를 들었다。

한편 서울및지방대학의 학과별합격선은 명문대 인기학과가 81년도보다 대체로 낮아지고 그대신 명문대 비인기학과와 중·하위권 대학은 대체로 비슷하거나 다소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분석은 상위권점수가 줄어든반면 중위권점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것이다。이에따라 일선진학담당교사나 입시전문가들은 82학년도 전기대학지원가능선을 학력고사성적을 기준으로 명문대는 2백50점대로 지난번보다 낮춰 잡았으나 비명문대는 2백점안팎으로 지난번보다 5점정도높게잡았다。

이들전문가들은 특히 서울大인기학과는 2백80점、高麗大·延世大의 일부 인기학과는 2백70점이상이면 합격이 가능하고 이들대학의 여타학과와 慶北大·釜山大등 지방명문국립대는 2백55점이상이면 지원가능할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진학전문가가 예상한 「전국전기대 지원자 배치기준」표도 서울大法大 의예과는 2백93점、사회Ⅱ·경영·자연Ⅱ는 2백85점이면 지원가능하고 高大법학과·의예과、延世大경제과는 2백70점이상이면 합격이 가능할것으로 내다봤다。

또 서울大사회Ⅰ·인문Ⅰ·사회Ⅲ은 2백81∼2백84점、공학계·치의예과·자연Ⅰ은 2백78점으로 합격선을 잡고있다。

入試관리 허점

大入學力고사성적 사전에 누출소동

문교부가 30일 정오를기해 공개키로한 82학년도 대학입학력고사성적이 사전에 누출돼 대학입시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문교부산하 중앙교육 연수원은 당초 이번학력고사응시생 59만1천7백27명의 성적과 성적누가표를 30일 전국각시·도교육위원회를 통해 출신학교별로 통지하고 그이전에는 엄격한 「대외비」로 보안한다고 했으나 이를이 앞선 28일상오11시 대학입학평가고사위원회의 보고과정에서 이를 누출시킨것。

중앙교육 연수원은 이날학계、언론계대표등 30명으로 구성된 고사위원회에서 82학년 대입학력고사 누가분포와 함께 성적분포개황을 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바람에 30일 발표를 기다리던 수많은 수험생과 고교 교사들 29일 아침 각 보도기관에 학력고사 성적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걸어오는 등 큰소동을 겪었다。

한편 교육관계자들은 국민적인 관심사인 대입학력고사의 성적발표를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는것은 큰문제라고 지적하고 만약 누출된 성적발표가 잘못돼 있는것이 있다면 그혼란의 책임을 어디서 지겠는가고 입을모았다。

한달동안 전세詐欺 45명구속 園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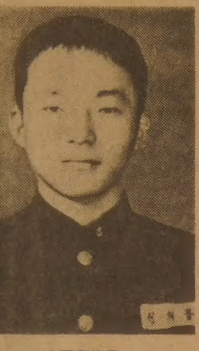
치안본부는 지난11월26일부터 전세금 전문사기범에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모두 1백38건에 1백62명을 검거、이중 45명을 구속하고 83명을 불구속입건했는데 피해액은 모두 4억7천4백여만원임이 드러났다。

단속결과를 유형별로보면 ▲자기소유 가옥을 사채업자에게 넘긴후 이를 숨기고 전세금을 받아가로챈것이 55건 66명으로 가장많고▲연립주택을 이중으로 분양하거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후 돈을빌어쓰고 분양금을 받아가로챈경우가 38건45명

學力考査 영광의 얼굴들

전국首席 제주 제일 高 元喜龍군

<3백32점>


◇元喜龍군

82大入학력고사에서 59만명의 수험생중 전국최고득점의영광은 3백32점을딴 제주 제일고교3년 元喜龍군(17·西歸浦市中文洞)이 차지했다。

元군은 고교3년간 줄곧 수석의 자리를 지켜온 수재。

29일상오 최고득점의 소식이 전해지자 元군의 모교인 제일고교에서는 교직원들이 모두모여「개교(53년)이래 최대의 경사」를 자축하느라 들뜬 모습들이었으며 연신 걸려오는 축하전화를 받기에 분주했다。

法大희망、高校3년 줄곧首席

母校선 "慶事났다" 덩실덩실

西歸浦市中文洞집에서 소식을 전해들은 元군은『실수없이 시험을 치른것으로 생각했지만 최고득점은 전혀 뜻밖이라 얼떨떨할뿐』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元군이 밝히는 입시준비의비결은 교과서를 철저히 공부하고 꾸준히 예습과 복습을 게을리하지 않은것。

元군은『학력고사를 치르면서 문제가 지난해보다 세련되고 깔끔한것 같았다』며『수학문제가 비교적 까다롭다고 느꼈으나 모두 제대로 풀었고 쉽게 생각했던 영어에서 4문제나 틀려 아쉽게 생각했다』고 밝혔다。그밖에 국어·국사에서 1문제씩과 과학선택과목인 생물에서 2문제등 모두 8문제가 틀렸다는것。

아버지 元應斗씨(48)와 어머니 金春年씨(48) 사이의 6남매중 차남인 元군의 집안은 중간규모의 귤밭을 갖고있어 비교적 넉넉한 편이며 아버지가 中文교회장로직을 맡고있는 독실한 기독교집안。

元군은『서울大法大에 진학、법사회학을 전공하고싶다』고 장래포부를 밝혔다。

여자首席 서울 禮一女高 韓承美양

<3백29점>

◇韓承美양

외동딸、오빠4명 모두 서울大

敎授희망…兪鎭午박사 外孫女

3백29점으로 여자수석을 차지한 禮一女高(교장 金禮桓·57) 韓承美양(17)은『고득점을 딸것은 알았지만 수석까지 되리라곤 생각도 못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一潮閣대표 韓萬年씨(57·서울鍾路區社稷洞93)와 兪孝淑씨(51)의 5남매중 막내이자 외동딸인 承美양은 兪鎭午박사의 외손녀이기도。

承美양은 학력고사를 치른뒤 답안지와 맞춰보았을때 3백29점이 나왔는데 점수가 그대로 나왔다며『이기쁨을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景福국교 培花女中을거쳐 禮一女高에 진학한 承美양은 국민학교때 성적은 보통이었으나 중학교때부터 줄곧 상위권에든 IQ 1백37의 재원으로 이번학력고사에서도 13과목중 8과목에서 만점을 얻었다。

承美양은 일찍자고 일찍 일어나는편인데 새벽4시에 개방하는 학교도서관에 5시30분에 도착、8시까지 복습위주로 공부를 해왔는데『짧은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한것이 효과적이었다』며『틈틈이 팝송을 들으며 머리를식혔다』고털어놨다。

담임교사 申昌姬씨(39·여)는 承美양이 집중력이 강해 어떤곳에서나 책을 펴는 버릇이 있다』며 성격이 소탈하고 원만해 친구들로부터도 호감을사고 있었다고 전했다。

承美양의 오빠 4명은 모두 서울大로 진학했는데 承美양도 가족들이 모일 망년회때 의견을 들어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 자신의 희망은 서울大 인문 또는 사회계열에 진학、대학교수가 되는것。

賃金인상 制裁말라

勞總 "10%이상올리면 與信중단" 橫暴

한국노총은 29일『금융단이 각은행의 주거래 기업이 내년 임금을 10%이상 인상할때 신규여신을 중단토록하겠다』는 임금인상억제 방침과 관련、『이같은 조치는 금융단 고유의 기능과 업무한계를 이탈한 횡포이며 임금인상 억제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총은 이 성명에서『權重東노동부장관도 지난11월22일 내년 임금인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지난 23일 중앙노사대표자 간담회도 임금을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조기에결정한다고 합의문을 채택한바있다』고 지적、『금융단이 이같은 사실을 외면、임금인상을 적극 억제하겠다고나서는 것은 금융의 본래적인 공정성을 스스로 포기하는것』이라고 밝혔다。

노총은『따라서 임금인상은 노사간에 평화적이고 자율적인 교섭에 맡겨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詩壇

새들의 해돋이

金良植

별빛이 엷게 사위어 가고 있다。
새롭게 탄생하는 새벽의 寶石
보석 속에 날으는 새、새、새…
잉카文化를 쪼아대던 새도、
이집트 피라미드 꼭대기에 머물던 새도、
마야夫人을 축복하던 룸비니의 새도、
또 샤갈의、그리고 피카소의 새도、
모두 일곱빛 보석 속에서 날고 있다
지저귀고 있다
새벽의 窓은 온통 열어 젖혀져 있다
싱싱한 햇살의 내음—
거기 비껴 날으는 고운 깃털의 主人들、
서로 사랑하고 때론 서로 다투어도
새들은 野心도 權利도 모른다
財物도 虛榮도 아예 모른다
神이 주신 것으로 足하기 때문—
없으면 없는 그대로 足하기 때문—
새들의 해돋이는 눈부신 보석
보석 속은 하나의 커다란 淨土。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특별세일(매출)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가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목, 금, 토, 일 : 오후8시30분~새벽1시
가수 : 박 소 영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오리엔탈 · 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白頭山 登頂

나의 이력서 〈題字·元一漢〉 元一漢 ㉗

한말전인가, 한국일보에 백두산天池, 松花江의 飛龍폭포, 정상으로 오르는 오솔길 컬러사진이 실렸었다.

안개서린 천지와 한폭의 동양화같은 飛龍폭포의 모습을 보는 순간 꼭 50년전 우리가족이 백두산을 오르며 보았던 갖가지 절경이 눈앞에 되살아 나타나는 느낌이 들어 아주 감개무량했다.

우리가족이 백두산에 오른 것은 1931년 여름이다. 백두산등정

31年 여름…惠山鎭서 往復10일

은 아버지가 九州浦항해를 성공리에 끝마친 이태뒤에 상당한 준비를 거쳐 결행됐다. 우리가족들은 평소에도 하이킹을 무척 즐겼다. 서울에서 가까운 北漢山 道峰山 冠岳山등에 자주 오르내렸다.

한번은 道峰山에 오르다 아버지가 한곳에서 경치가 썩좋다며 사진을 계속 찍는바람에 하루종일 몸만 잡다 내려온일도 있다.

뒤에 필름을 뽑아보니 우리들이 道峰山에서 찍은 사진은 한장도 나오질않았다. 道峰山 입구에서부터 필름 소모량을 알려주는 숫자판이 고장난것도 모르고 셔터만 눌러댔던 것이다. 그때 실망이 너무도 컸었기때문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물론 白頭山에서는 그같은 실수없이 사진을 많이찍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것은 天池에서 찍은것뿐이라 섭섭하기만 하다.

白頭山 등정에는 우리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나, 쌍둥이 동생등 5명과 세브란스의전 산부인과 교수인 허스트박사와 그의 아들 도널드, 역시 세브란스병원 여의사인 블록등 모두 8명이 참가했다.

이때 내가 14세, 쌍둥이동생들이 12세, 도널드가 17세였고 블록은 30세가 넘은 노처녀로 醫專에서 신경해부학 강의를 하기도했다.

여기서 우리 일행중 가장 年長者였던 허스트박사에 대해 언급을 안할수가 없다. 그는 세브란스병원이 신축된 1904년에 미국북장로교회 선교사로 파송되어와 꼭 30년간 의학교육과 환자진료에 많은 공을 남겼는데도 에비슨박사의 그늘에 가려 잘 알려지지않았기 때문이다.

白頭山에 올라가던해 아버지의 나이는 41세였고 허스트박사는 그보다 15세나 많은 56세였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출신인 허스트박사는 프린스턴대학과 필라델피아 제퍼슨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존즈·홉킨즈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마치고 MD학위를 받은다음 4년간 모교인 제퍼슨의대학에서 조직학과 부인과 진단학을 가르쳤다.

이같은 경력을 가진 그가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주임교수로 얼마나 많은 공을 쌓았는가는 쉽게 짐작할수 있다.

허스트박사는 불행히도 1927년 몸이 약한 부인을 여의고도 초지를 굽히지 않고 선교및 의료봉사를 계속했으며 白頭山등정에도 父子가 흔쾌히 참여했다.

◇아버지가 사냥길에서 몰이꾼들과 점심을 같이 즐기는 모습。이분위기는 항상 해학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꽃을 피우곤 했다.

우리家族등 8명참가…天池주변서 2日間야영

우리일행은 서울에서 北靑까지는 기차여행을 했고 거기서 트럭을 갈아타고 惠山鎭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 白頭山정상의 天池까지 다녀오는데는 열흘이 걸렸다.

오르고 내려오는데 각각 나흘 그리고 天池주변에서 이틀밤을 야영했으니 꼬박 10일이 소요된것이다.

아버지 元漢慶박사가 평소 사냥을 즐겼고 호랑이를 잡기위해 강원도와 함경도 산골을 누볐다함은 이미 밝힌바이지만 白頭山 등정길에도 총을 휴대했다.

서울을 출발할때 총을가지고가도 좋은가를 경찰에 문의했다. 국경지대에 그런걸 휴대하면 위험하다는 것이 경찰의 답변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惠山鎭경찰에다시 알아보았다. 대답은 서울경찰과 정반대였다. 강도가 있으니 신변안전을 위해 반드시 총을 가져야지 그렇지않으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이때의 총은 절대로 사냥이 아닌 강도에 대비해서 휴대했지만 경찰인가가 나기는 어디까지나 사냥용으로 되있음은 물론이다.

宗敎集會빙자 反韓선전
北傀, 유럽서 親北僑胞 앞세워

【제네바28日=聯】해외교포를 상대로한 北傀의 선전활동에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있다.

최근 北傀는 기독교관계종교집회를 빙자해서 유럽에서 해외친북교포들을 모아놓고 反韓정치선전을 벌이고있다.

지난11월3일부터 4일간 오스트리아 수도 빈근교에 있는 하데르스도르프 기독교수양회관에서 열렸던 소위「해외한국인 기독자회의」가 그 대표적인 실례다.

이집회는 북괴측에서 許貞淑(북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서기국장) 전금철(북괴통일위원회부위원장) 康國烈(북괴사회민주당부위원장)을 비롯, 가무단및 태권도 시범요원등 30여명과 해외친북 인사로 지난6월부터 9월사이에 평양을 방문했던 崔德新, 崔弘熙및 李和신(재독조국통일해외 기독자회장)등 약70명, 모두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집회마지막날인 11월6일 인터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소위「고려연방제안」등 정치선전을 하면서 이집회가 마치 남북한 전체 기독교인들의 집회인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다.

이러한 정치집회에 대해 집권사회당기관지 아르바이터 차이퉁紙는 11월7일자에서『소위 해외한국인 기독교인들이 북한을 위한 정치선전활동을 했으나 이는 순수종교문제를 토의한다는 미명하에 개최되었다』고 지적하고 주최측은 이집회가 빈에서 개최된 최초의 남북한 간의 비공식 회의인것처럼 가장하려고 노력했으나 이점이 오히려 오스트리아에와있는 한국교민들을 자극, 반대시위를 불러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安保강화·경제安定 새해施政 주요목표

정부는 내년도 施政目標를 국가안보의 강화, 경제안정의 定着, 사회개발의 확충, 정신문화의 啓發로 확정, 29일 각부처에 이를 시달했다. 各部處는 이에따라 세부적인 새해施政계획을 수립, 시행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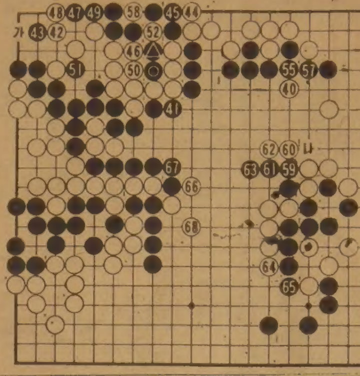
携帶用 스포츠세트 5종器具 같이넣어

좁은 공간에서도 기본체력과 건강을 증진할수있는 간단한 휴대용 건강스포츠세트〈사진〉가 개발되어 인기를 끌고있다. 5가지 운동구를 가방에 넣어 간편하게 휴대할수있는 스포츠세트에는 심장을 튼튼히하는 기구, 릴, 줄넘기, 악력테스트 기구등 5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무게도 2.5㎏ 밖에 되지 않아 간편하게 아무곳이나 운동을 할수있는게 특징.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0局 第7譜 140~168 (각 5시간 덤 5집반)

白(6段) 徐能旭〈0勝2敗〉
黑(7段) 徐奉洙〈1勝1敗〉



본보에서 얼핏 눈에띄는 것은 우변 白진을 兩分한黑이 白4점을 몽땅싸안고 광대한 영토를 확보한 大變化이다. 원래 상변의 패맛을 미끼로한 전과이거니와, 지금 문제의상변黑을 46자리로 완생하지않고 41로 봉쇄한것이 강수였다. 白도 당장은 42가부득이하다.

여기서 黑은 역시46에 두어 살면무사하다. 그러면 白도「가」에 뛰어두면 이른바 各生으로 협상할수 있는데 徐7단은 결코 그것을 내켜하지않고 黑43.

이 진행에따라 이해하게되겠지만 중黑53은 이하 白54로서 단패다. 수순는 ●표자리에 ▲표자리에 되따내고 白54을 52자리에 따내고서 黑57때 비로소 白56·58로 패를 해소하게 된것이다. 다시 이과정을보면 白54때 黑55·57이 白으로서는 뼈저린점。정말 白은 오히려 40이 거의 헛수로되고 黑은 오히려 패를 크게 만들려하니 白은 진흙 여울한 끝을 당해야되었다.

魚腹이 最後勝負處

하나 부득이 白56·58 두수를 소비해야 되었는데 상변의 소득도 적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중앙싸움에서 白이 불리하게 될것임은 明若觀火。

아니나 다를까。黑은 마치 숙제라도 풀듯이 59로 밀어 중앙제패를 노골적으로 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보니 이곳이 최후의 승부처로 커다랗게 부각되었다。黑59에서 61로 꼬부린것은 이른바「빈삼각」이긴 하나「나」의 斷點을 노리는 솟법이다。白62, 黑63은 물론 기세。

白은 64, 66, 68등으로 동분서주하며 안간힘으로 저항한다。53…▲, 56…52, ●…54 【一光】

바다에서 플룻을 <17>

梁順錫 作 / 金鈴 畵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과, 그 시간에 나의 행적이 칠해 놓은 색깔이 나의 것으로 기억되지 않았다。그것은 회한도, 되돌리고 싶은 연연함조차도 없이 완전한 망각이었다。

있는 것은 바다와, 한 남자와, 그리고 내 악기 뿐이었다。사람이 사는일에 필요치 않은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상처내어 왔던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다만 그 자리에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바다。삶이 힘겨울 때 내 삶을 이끌어 줄 가상의 힘, 그것은 어쩌면 내 자신이 보유한 최후의 힘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바다를 향해 막연히 버스에 오를 때, 나는 도시의 냉혹하고도 비정한 성격에 혐오했고 그곳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가졌으나 한편, 결국 되돌아올 수 밖에 없음을 예견하고 있었다。그러면서도 바다를 찾은 것은 무엇을 보고 싶은 때문이었을까。허물어 지고 닮아져도 다시 돌아나는 살처럼 다시 살 수 있으리란 신선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까。내 기억과 욕망과 어리석음은 무화시키고 다시 살고 싶은 까닭이 아닐까。

『버리고 싶은 것들, 그러나 버려지지 않는 것들, 이것들과의 이별을 위하여 이곳에 왔어요。마치 품속에 지녔던 부적(符籍)을 소각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의식이 있어야 하듯이。』

『왜 버려야 해?』

『다시 살기 위하여』

『다시 살기 위해서는 버리지 말아야해。영원히 그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게 될테니까。무모하고도 간악한 짓이야』

『간악하다구요?』

『살기 위한다면 아무것도 버려서는 안돼』

『그러면?』

『용서』

『……』

『용서해야 해』

일순 전율이 지나고 한없는 무기력에 빠져들었다。견딜 수 없는 혼비의 와중으로 날카로운 비수가 날아와 꽂히며 나는 말할 수 없이 위축되었다。그것은 가장 두려운 언어였으므로。내가 쥐하지 못하는, 내가 다가갈 수 없는 말(言)이었으므로。아니, 내가 거부하였던 언어였으므로。

도시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내게는 황량한 벌판이었다。거리에 나서면 유독 그날따라 바람이 불었다。묻어두었던 증오가, 퇴색되어가던 기억이 바람에 씻긴 더욱 선명한 모습으로, 다가서곤 하였다。

용서할 수 없어。용서 못해, 시내버스의 붐비는 사람들 틈에서 그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나는 손잡이를 비틀듯이 움켜잡았다。화강언니의 얼굴은 어느곳에나 있었다。언제라도 내게 달려와 줄 사람이었다。용서해주겠니? 용서할수 없어。내가 너를 사랑하도록 그것만 허락해줘 명령이야。못해, 난 못해, 언니는 바로 나야。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를 용서 못하는 거야。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나는 언니를 용서 못해。

화강언니가 나를 버려두고 잠적하였을때 나는 한 여자의 한계, 바로 나에게도 다가오고야 말 한계를 보는 듯하였다。나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향기에 많이 의지하였던 것이다。그것이 내게도 있을 것이란 확인의 기쁨이었다。그녀가 떠남으로써 남겨진 한 여자의 아름다움과 향기의 빈 자리는 내 자신의 껍질을 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내게 주었다。

流星의 賦 < 273 >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風雅와 策謀 ④

흥계남을 유혹하고자하는 책모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도리가 없다。

다만 왜인통사(倭人通事)、히라또쇼오스께(平戶庄助)가 최초의 발안자였다는 것은 확실하다。히라또는 그러한 안을 소서행장(小西行長)의 부장(部將)다니유끼찌(谷由吉)에게 말했고, 다니의 동의를 얻었다。

그런데 이러한 책모가 구체화된 것은 하까다의 가나이(金井)의 의견 때문이었는데 보다 더 확정적으로 된 동기가 가미오까다이젠과의 시합이었다。

그 시합이 있은지 2、3일 후 가미죠오(上條)에 있는 수장(秀長)의 집에 요시오까(吉岡)와 다니유끼찌(谷由吉)가 모였다。수장은 수길의 친동생이다。

그 자리엔 소로리신자에몬(曾呂利新左衛門)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수길의 심복이며、수길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브레인(頭腦)이기도 했다。

『도대체 흥계남이란 조선인이 어떤 사람이기에 모두들 그처럼 욕심을 내는가』

수장(秀長)이 물었다。

요시오까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그 인품과 문무겸전한 기량이 탐복할만한 것이라고 하고

『만일 그 사람을 붙들어 둘 수만 있다면 정병(精兵) 수만에 해당하는 보람을 다할 수 있을 것이란』고 매듭했다。

『정병 수만은 좀 과장이 아닐까?』

하는 수장의 말에 요시오까는 정색을 했다。

『전하의 검객 가미오까를 일순간에 항복시킨 사람이며, 동시에 그 지략은 능히 삼군(三軍)을 통솔하여 움직일만하다고 보았읍니다。만일 그만한 지장(智將)이 적중에 있다고 해 보십시오。십만의 병력으로써도 난공불락(難攻不落)일 것입니다。그런데 어찌 수만의 정병에 해당하는 보람이 있을 것이란 말이 과장이겠읍니까』

『그럼 그렇다고 치고 그만한 사람을 어떻게 이곳에 붙들어 둘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궁금한군』

하고 소로리(曾呂利)가 말을 끼었다。다니유끼찌가 말할 차례였다。

『가히 인걸(人傑)이라고 할만한 그 사람을 조선사람이란, 아니 걸출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환경에 대해서 반발을 느끼는 것입니다。그런데 조선인들이 흥계남에게 대한 태도는 알아주지 않는 다는 정도를 넘어 고의로 천대한는 경향마저 있읍니다』

『그것 묘한 일이군。조선은 고래로 예의를 존중하는 나라이며, 과거(科擧)를 행하여 인재(人材)를 등용하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어째서 그런 인사를 천대한단 말인가요』

소로리의 질문은 당연했다。

다니가 대답했다。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예법이 지나친 탓이라고 합니다。즉 흥계남의 어머니는 첩이라고 합니다。조선에선 첩이 낳은 자식은 서출(庶出)이라고 하여 천대하는 버릇이 있는 모양이지요。아무리 훌륭해도 서출은 출세를 못한다고 합니다。하루 흥계남은 출중해서 지금 군관으로 활약 왔지만, 그 부하들조차 그를 업수이 여기는 기미가 있읍니다。사람들 그토록 몰라보니 한심하지요。흥계남은 그런 천시를 견디고 있는겁니다』

☆브랜돈 운동구점☆

이전개업안내

그간 저희 운동구점을 애호해 주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사확장이전을 기해,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리고자 하오니 바쁘신 중에도오셔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읍니다.

때 : 1982년1월9일(토)오후7시

장소 : 브랜돈 운동구점

337 BLOOR ST. W.

(연합교회건너편)

※ 파킹장은 운동구점 건너편에 큰 주차장이 있음.

598—3732 이 건 영

Canada Post Postes Canada

새 우편요금 제도가 1982년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81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캐나다 국내및 국제우편료

비지네스 우편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우편료를 포함, 새 우편요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얻을 수 있읍니다.

국내우송우편

1종우편	0~30g		.30¢
속달우편	1종우편요금외		$1.00
배달증명우편	1종, 3종 혹은 4종우편요금외		$1.00
등기우편	1종우편요금외		$1.85
축하카드	0~50g		.30¢
3종우편	0~50g		.30¢
소 포			
예)			
2kg(4.4lbs)	토론토→위니펙	1종	$4.00
		4종	$1.75
	몬트리얼→퀘벡시티	1종	$2.45
		4종	$1.30
전 신	50단어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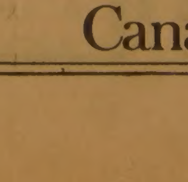
미국우송우편

항공우편및 엽서	0~30g	.35¢
	30~50g	.50¢
축하카드	0~50g	.30¢

해외우송우편

항공우편및 엽서	0~20g	.60¢
	20~50g	.93¢
항공봉함엽서		.60¢
축하카드	0~20g	.30¢

The 'A' Stamp



새 30¢ 우표가 통용되기까지, 캐나다 우편공사는 "A"우표라고 불리우는 특별우표를 발행합니다. "A" 우표는 아무런 액면금액을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30¢의 가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캐나다 내에서 우송되는 우편에 한해서만 사용됩니다.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Canada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 (한국관 건너편)
☎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블루어 하드웨어
Benjamin Moore PAINTS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수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나라의 노래 國歌만들자"

移民과여행자를위한 生活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ONE AT A TIME, PLEASE.

필자가 뉴욕에 있을때의일이다。LA로 가는 친구를 전송하러 J.F.K (John F.Kennedy의 약자) 공항에 간적이 있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임박하여 gate로 급히 들어가는 도중 갑자기 미국인 경비원이 「원네터 타임 프리즈」라고하였다。알고보니 한사람씩 통과하게 되어있는 detector (무기 휴대 여부를 가리는 장치)에서 친구와 내가 바쁘다보니 한꺼번에 들어서자 「한사람씩 입장하세요」란 말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씩~을하다」의 뜻으로 One at a time.이란 표현을 일상 영어에서 흔히 들을수 있다。버스를 서로 먼저 타려는 사람들에게 운전사가 「한분씩타십시오」하는 때나 「그 알약은 한꺼번에 다 먹지 말고 한알씩 복용하시오」혹은 여러건의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지말고 「한건씩 처리하시오」이러한 경우의 적절한 표현이 바로 One at a time.이다。

A : Do you have anything for a cold?

B : Do you have a fever?

A : No, I don't. I have a cough and my nose is running.

B : Why don't you try Contac capsules?

A : Okay. How many should I take?

B : Only one at a time-every twelve hours.

A : 감기에 좋은 약이 있나요?

B : 열이 있으세요?

A : 열은 없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흐릅니다。

B : 콘택을 한번 잡숴 보시지요。

A : 그러지요。 몇알씩이나 먹어야 되나요?

B : 12시간마다 한알씩만 복용하십시오。

※have a cough : 기침을하다。
nose is running : 콧물이 나다。
코를푼다는 blow nose라고표현 함。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2권용(33불)3권용(33불)

◇愛國歌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2절. 남산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듯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3절. 가을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4절.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세계의 國歌

▲미국 國歌
새벽의 여명으로 당신은 볼수 있으리 자랑스럽게 희망의 빛을 경하하노니 그 빛은 영원히 널리 퍼져 흐르리 대기중에서 폭발하는 그 화염은 암흑속에서도 생동하고, 우리의 저 깃발은 여전히 나부끼고, 아! 우리의 깃발은 대지 위에 펄럭인다, 자유를 위한 땅 용감한 자의 고향 위에—

▲영국國歌
하나님은 여왕님을 안전케 하신다。하나님은 우리들의 빛나는 여왕님을 안전케 하시고, 우리들의 고상한 여왕님을 길이 보전하시며, 하나님은 여왕님을 안전케 돌보시며 승리로 이끄신다。우리들을 길이길이 행복되고 영광되게 하나님은 여왕님을 돌보신다。

▲독일國歌
독일 조국을 위하여 통일과 자유 그리고 자유를, 우리 다 함께 이 목적을 위하여 협력해 나가자 우애 정성을 다한 통일과 정의 그리고 자유는 우리 조국 독일을 빛내고 영광되고 행복하게 해주나니, 축복받아 행복하게 뻗어 나가기를—

▲일본國歌
임금의 세대는 천대나 팔천대까지도 작은 돌이 바위가 되어 거기에 이끼가 낄때까지 영원히—

▲중화민국 (대만) 國歌
三民主義를 전국민은 지키자 민국을 건국하여 대동 단결하고 많은 사람이 국민을 위하여 싸우자 이 주의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세, 용기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한마음 한가지 덕을 쌓아 시종일관하세。

▲프랑스國歌
조국의 아들이여 나아가자 우리의 적을 향하여 성스러운 피를 뿌리자, 초원의 저 말이 들리느냐 저 용감한 군인의 외침소리를…그들은 우리들의 품안에 있도다, 우리의 자식을 죽이고 우리의 친구를 죽인다, 무기를 들어라 시민이여 그대들은 편대를 갖추어라, 나아가자 나아가자 불순한 피가 우리들의 앞길을 적실 때까지

新年特輯

「새해에는 꼭 나라의 노래 (國歌) 를 만들자」。대망의 올림픽을 6년 앞으로 맞게된 1982년 새해 새아침, 각계각층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國歌제정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나라의 심벌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國歌를 만들기 위해 거창한 발걸음을 내디뎠다。이번의 國歌制定 추진운동은 현재의 애국가는 애국가로 남겨두고 별개의 國歌를 제정하자는 점이 특징。또 발기인들 모임이 대규모적인데다 치밀한 사전 계획도 세우고 있어 과거와 같이 有名無實한 움직임으로 그칠것 같지는 않다。순수한 민간인에 의해 출발해서 지금은 이미 범사회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國歌制定 추진운동의 내용을 알아보면—。

國歌제정推進委、적극적으로 運動 펴기로

愛國歌는 그대로 두고 "國歌따로 制定하자"

작사·작곡은 各界망라한 심의기구서 결정

공청과정을 통해 法的으로 확정실시 주장

洋曲아닌 우리스런 한국적인 音樂방법론도

지난해 12월17일 하오1시 한국일보사 13층 松岷클럽에서는 國歌制定 추진운동의 핵심 발기인들이 참석, 國歌制定추진委를 구성해서 汎국민적으로 國歌를 제정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 같이한 인사는 安浩相 (초대文敎部장관)、金根燦(체육인·前대한유도회 부회장)、韓甲洙(한글학회이사)、羅運榮(음악가·世宗大교수)、金鍾甲 (一念救國運動本部 총재)씨。

이밖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宋志英씨 (언론인)를 비롯, 작가 金東里(예술원원장)、柳周鉉、朴花城、鄭乙炳、朴완서、음악가 曺祥鉉、金大賢、국회의원 李載雨 (民政)、金文錫 (民韓)、鄭男 (民政)、李晶來씨등 각계의 대표급 인사들이 적극 참여의 뜻을 전해 왔다。

이번의 國歌제정추진운동은 각계 각층의 대표급 인사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애국가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것과는 별개로 나라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國歌를 만들자는 점이 새로운 점이다。

國歌제정추진委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國歌의 작사와 작곡은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문학계、음악계중진을 주축으로 각계 각층을 망라한 심의기구를 결성、작사·작곡을 한뒤、공청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확정 실시할것、가사는 애국·애족적임은 물론、의타적이거나 추상적인 것보다는 민족정기와 의지를 담은것이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발기인의 한사람인 羅運榮 교수는 이밖에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작곡은 洋曲 그대로가 아닌 우리스런 음계와 화음、리듬、박자、분위기등을 자아내는 한국적인 음악이어야 한다』고 말한다。뿐만아니라 가사는 문학적으로 고도의 문학작품 가치가 있어야하고 곡도 세계수준의 명곡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國歌 추진委에서는 한때 현재의 애국가를 國歌로서 승격 제정하자는 의견도 대두됐다고 했다。

그런 의견을 전제로 할때 몇가지 장단점이 지적된다고 밝혔다。

우선 長點은 이 곡이 세계적인 지휘자 安益泰씨의 작품이며 이미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면 短點은 가사내용이 현재의 思潮나 국민적 감각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국가의 1절은 「하느님의 보우」를 바라는 다분히 의타적인 내용이다。2절은 「남산 소나무」와 같은 기상의 비유인데 이 내용은 세계로 뻗어나갈 신생 대한민국의 기상으로서는 매우 미약하며 근면·자조·협동의 실천적 의사가 부족하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맑고 구름 없이」로 이어지는 3절은 다분히 감상적이고 추상적이다。4절은 1、2、3절을 종합한 가장 애국가다운 표현인데 보통 1절만을 부르기 때문에 지극히 요식행위적이고 1절만 부를 경우、추상적 공허감만 남는다 등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된 가사의 단점들이다。

애국가는 곡에서도 國歌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지적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르고 있는 애국가의 곡은 「한국 팬터지」의 일부 곡인데 「한국 팬터지」 전체에서 느껴지는 정감은 다분히 우리스럽지만 애국가 부분만은 기법이나 내용이 순전한 양곡이므로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새 國歌는 한민족의 독자적 분위기를 자아내게 작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애국가 가사는 76년전인 1906년께 외무협판(現 外務次官)으로 있던 尹致昊씨가 高宗의 어명에 따라 작사했고、곡은 1936년6월、安益泰씨에 의해 작곡돼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에서 처음 불려졌다』고 전제。

그러나 작사자 尹致昊씨가 태평양전쟁 당시 親日행각에 나섰던것을 감안한다면 애국가가 國歌 구실을 하는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프랑스등 선진국 國歌와 같이 정의와 자유、山水의 아름다움과 웅장、광대함을 읊은 가사를 갖춘 國歌를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58년에 처음 擧論…이번이 네번째 움직임

순수 민간운동으로 출발해서 汎國民的인 呼應얻기를 바라

해방후 國歌 제정 문제가 처음 거론된것은 정부수립 10주년을 맞던 해인 1958년 5월중순이었다。

당시 음악평론가 崔寧煥씨는 매스컴을 통해 미국、영국、독일、프랑스등 여러 나라가 國歌가 따로 있고 國歌 이외에도 많은 애국가를 가지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애국가를 國歌의 代用으로 하고 있으니 정부수립 10주년을 맞아 國歌를 새로 제정하자는 것이었다。

崔씨는 이를 위해 「國歌制定 심의회」같은 기구를 마련해서 그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崔씨의 주장은 그뒤 뚜렷한 호응을 얻지 못한채 개인의 의견으로 그쳤다。

두번째로 國歌 제정문제가 대두된것은 그뒤 13년이 지난 71년8월이었다。

이때는 개인이 아닌 語文硏究會(회장 揭濟七)가 총대를 메었다。

語文研究會는 『지금의 애국가는 국가의 환경이 달라져 노래 자체의 감각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현실 감각에 맞는 국가를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계인사의 서명을 받아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

건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애국가가 제정된 韓末과 오늘에는 국가의 환경이 다르고 ②「마르고 닳도록」이란 표현이 좋지 않고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와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는 서로 연결성이 없고 내용이 불린뿐 아니라 ③「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로 이어지는 4절은 본래 황실을 찬양한 내용으로、다소 고치기는 했지만 후렴과 중복되는 것이었다。

國歌 문제가 세번째로 거론된것은 77년1월께였다。

이때는 音樂協會(회장 曺祥鉉)를 중심으로 애국가에 대한 표절시비와 함께 새國歌 제정 건의 움직임이 있었는데、결국 애국가 표절 시비는、않기로 결론을 내렸었다。

그러나 당시 여론은 찬·반이 엇갈려 朴鍾和씨(당시 예술원회장)는 『國歌제정은 통일후로 미루자』、金秀顯씨(작곡가)는 『별안간 좋은 노래가 나올수 없다』로 반대의사를 나타낸 반면、具常씨(시인)는 『현재의 애국가 가사는 단어가 격에 맞지 않고 부정적이므로 가사를 고쳤으면 좋겠다』、具斗會씨(교수)는 『국가에 대한 표절시비가 많으므로 새로운 곡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등의 의견을 내세워 國歌제정을 찬성했다。

이처럼 여론이 일었으나 國歌 제정 추진 움직임은 그뒤 뚜렷한 결실을 얻지 못한 채 또다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國歌 제정문제는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고 만족한 내용의 國歌가 제정되지 않는 한 그 시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싯점에서 태동한것이 國歌制定 추진위원회—。이 모임을 처음 발의한 사람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인 金鍾甲씨(37)였다。

金씨는 忠南 부여 태생으로 서라벌藝高 출신。무역회사에 근무하다가 서적및 레코드 판매사업에 종사한것이 주요 이력이다。

金鍾甲씨는 선비 가정의 후손으로 어렸을 때부터 한문교육을 받으면서 민족철학에 대해 깊이 연구해 왔다고 한다。

그런 바탕 속에 민족에 대한 自覺을 일깨우기 위해 一念救國運動中央會 총본부란 단체를 만들어 총재 자리에 오른것이 3년전인 79년초였다。

金씨가 어떤 단체의 이름으로 처음 주창한것은 『國是、國歌、國旗、國花를 법으로 규정하는 國基法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와같은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國是、國歌、國旗、國花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國是(反共통)、國旗(태극기)、國花(무궁화)는 지정돼 있지만 國歌는 정해지지 않은 채 다만 애국가가 그 代用 역할을 하고 있다는것이 金씨의 지론—。

金씨와 그의 뜻에 동조하는 많은 인사들은 『다른나라의 사례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애국가는 여러 작품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나라를 상징하는 國歌는 단 한 작품이 꼭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 인사들은 『한나라의 國歌는 민족의 얼과 이상과 민족 자체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노래』라고 전제、『따라서 國歌는 국민의 기상과 개척정신을 반영해야 하며 국민화합과 문화창조에 큰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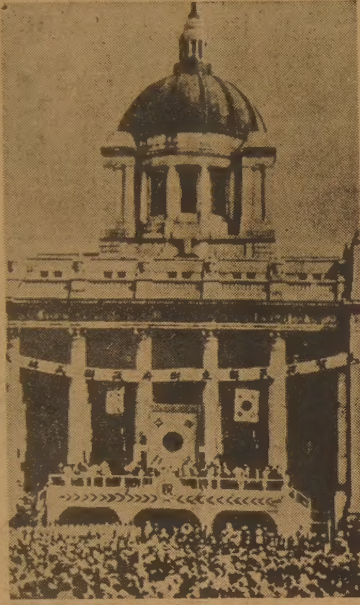
이같은 金씨의 이론은 國歌制定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시간이 지날수록 각계각층의 유력인사가 속속 참여、이 운동은 점차 활기를 띠어 갔다。그 결과、國歌制定추진委가 결정된것이다。

金씨는 國歌제정운동은 정부나 특정 정당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단체에 의해 추진돼서는 안되며 순수민간운동으로 출발해서 범국민적인 호응을 얻어 실현돼야 한다는것이 당초부터의 소신이라고 전하고 있다。

한편 國歌制定추진委는 앞으로 지원단체로 國歌思想硏究所를 발족시킨뒤 국회청원을 거쳐 작곡·작사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國歌制定 심의위원을 임명해서 國歌가 제정되면 다시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켜 정부를 통해 정식으로 공포、실행시키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있다。

<白承悅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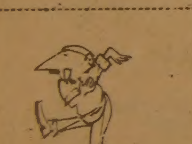
◇1948년8월15일 정부수립기념식。그로부터 37년째를 맞는 새해 새아침 범사회적인 國歌制定추진委가 의욕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國歌制定추진委의 발기인 대표들。좌로부터 金根燦, 安浩相, 韓甲洙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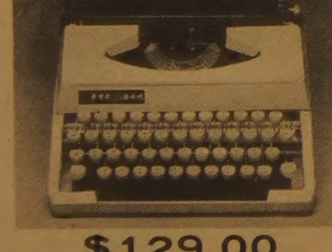
◇國歌制定운동에 불을 붙인 羅運榮교수 (좌) 와 金鍾甲씨。『國歌制定 추진은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시작돼서 범국민적인 호응을 얻어 실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海外걸작漫畵

『우리 그인 같이 일하기를 좋아해요』
"Herb like for us to do things together"



한대의 기계로 한글과 영문을 마음대로 칠수있는
공병우 한영 타자기



$129.00
* 누구나 1분 설명듣고, 5분간 연습으로 한글을 칠수 있읍니다.
* 교본으로 하루 한시간씩 6일간 연습으로 누구나 초급 전문 타이피스트가 될수 있읍니다.
* 사무실마다 가정마다 구비하고, 사무능률을 올리고, 어린이들의 IQ 도 올립시다.
* 타이프라이터는 높은 수준의 문화를 상징하는 최신 과학 문명의 이기입니다.
* 타자기의 사용 목적은 시간 절약에 있고 타자기의 생명은 배우기 쉽고, 빠른속도에 있읍니다.
판매처
(IL) ALBANY OFFC. SUPLY. CO. (312) 267－6000
(CA) SOKWANG INTERNATIONAL (213) 570－8288
(PA) SUNJUNG KONG (215) 527－1132
(NY) KIM'S CALCULATOR CO. (212) 937－8670

희 소 식
새로나온 골프·스윙
분석 컴퓨터로 멋있는
스윙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기능 :
● 골프·스윙의 속도를 표시
● Head의 속도를 표시
● Impact의 경우 Club Head의 각도를 표시
● Impact의 경우 Club Head의 공을 맞추는 지점을 표시
● 공을 친후 Club-Face의 각도를 표시
● 공이 떨어지는 거리및 장소를 표시
●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가르킴
● 멤버모집 : 월~토 오전10시~저녁 9 시
일요일 오후 3 시~저녁 9 시
● 초보자를 위한 기초반 모집
모나미트로피스포츠
298－3584 이 기 훈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종합보험

김 홍 랑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壬戌年 개의 해 犬公 이야기

옛날부터 개는 충실한 人間의 벗으로 지내왔다. 「忠犬과 같다」, 「犬馬의 勞」를 다했다는 표현으로 충직한 일, 정직한 일을 개의 충성심에 곧잘 비유해 오기도 했다. 영리하고 명랑하고 충실하며, 주인에겐 절대 복종하는 美德의 개는 확실히 정다운 동물임에 틀림없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부장품으로서 순사한 개의 뼈가 나온것을 보면 개는 일찍부터 사람들을 위해 종복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것 같다. 壬戌年 개의 해를 맞아 묶어본 몇토막의 犬公雜話.

◇총상을 입은 주인을 살려낸 忠犬 라츠。

◇68년 3월 상습 텔리비전 절도단 7명을 사로잡은 수훈의 크레스트군。

3년 省墓犬에 悲觀 自殺犬도…

먼길 헤매다 主人 그리워 찾은 개들은 얼마든지
롤프犬은 평방근 입방근에 英單語 암산

◇놀라운 歸家性

오래전 일본東京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른 새벽 K씨는 집앞에서 시끄럽게 짖어대는 개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밖엘 나가보고 그는 또 한번 깜짝 놀랐다. 몇달전 피부병치료를 위해 大阪의 가축병원에 맡겨둔 愛犬 로이스가 주인을 반겨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파리하게 야윈 로이스는 온몸이 흙투성이였다. K씨는 혹시 꿈인가 싶어 大阪에 전화를 걸어 보았다.

그랬더니 수의사는 『사실은 며칠전 로이스가 행방불명이 되어 찾고있는중』이라는 대답이었다.

이때 비로소 K씨는 로이스가 주인을 그리워한 끝에 병원을 뛰쳐나와 천리길을 찾아온것을 알았다. 이같은 얘기는 얼마든지 있다.

오래된 일로는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때 러시아까지 따라갔던 개가 주인을 잃고 헤매던 끝에 다시 이탈리아의 밀라노까지 집을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 1923년8월 미국오리건州 실바톤에 살았던 프레이저씨 부부는 인디애나州의 오르코트市에 자동차여행을 떠난 일이 있었다. 이때 그들 부부는 평소 자식같이 귀여워하는 愛犬「보비」양을 함께 데리고갔다.

그런데 오르코트市에 도착한후 거리에서 그만 보비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프레이저 부부는 혈안이 돼 사방팔방으로 愛犬을 찾았으나 끝내 보비를 발견할수는 없었다. 그들은 넋잃은 사람처럼 실망한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약6개월쯤 지난후였다. 뜻밖에도 보비가 초췌한 모습으로 실바톤의 주인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부부는 기뻐 어쩔줄을 몰라했다. 이 실화는 당시 미국전역에 하나의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보비는 한번도 다녀본 일이 없는 북미대륙의 3분의 2이상이나 되는 무려 3천3백㎞를 횡단한 셈이었다.

1905년께 독일의 만하임市의 모에켈부인의 愛犬 롤프가 화제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 롤프의 지능이 너무 지나쳐 사람보다 오히려 훌륭했기 때문이다. 롤프의 지능을 발견한 사람은 물론 모에켈부인.

어느날 그녀는 딸에게 덧셈을 가르치고 있었다. 『롤에다 둘을 더하면 얼마?』 그때 그녀는 우연히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롤프가 눈망울을 굴리며 무엇인가를 지껄이고 싶어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는 미처 답을 못하고 있는 딸에게 『그까짓 정도라면 이 롤프도 알겠다 얘』하고 꾸짖었다. 이때였다. 롤프는 금새 앞발로 네번 땅바닥을 쳤다.

이 엄청난 사실에 놀란 부인은 그후부터 롤프에게 열심히 수학을 가르친 결과 엄청나게 지능이 발달되어 마침내는 平方根 立方根까지도 암산으로 답할수 있게끔 되었다. 부인은 이 신기함에 또 한번 놀랐다.

이번에는 카드로 알파베트를 가르쳐 보았다. 그랬더니 쉬운 단어를 이내 익혀 부인이 부르는 것을 스펠링대로 그 카드를 물어다 配列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모에켈 부인의 지나친 평가에서 과장된 내용이 아니겠느냐는 뒷 얘기도 있다.

아뭏든 개의 지능은 후각과 귀가성 만큼이나 놀라운건 사실이다.

名犬라츠는 銃傷의 主人 살려내 銅메달 받아
크레스트犬은 TV窃盜일당7명 사로잡아

◇忠犬「라츠」

名犬의 이야기는 국내에서도 적지가 않았다. 지난 63년 京畿도 廣州군 東部면 德豐리에서 있었던 일. 이 마을에 사는 俞모씨의 아들 B군(당시18세)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아버지의 엽총을 들고 꿩사냥에 나섰다. 이때 그는 아버지가 3개월전부터 맡아 기르는 셰퍼드 라츠군을 길동무 삼아 데리고 갔다. 산길 10여리 가량을 걸었을 때였다. 꿩을 발견한 B군은 잽싸게 산등성이로 뛰어 올랐다.

그러나 그만 돌부리를 차고 넘어지면서 산허리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쓰러지는 순간 들고있던 엽총의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散彈이 발사됐다. 이 오발로 그는 오른편 허벅다리에 5발, 왼쪽 허벅다리에 1발의 산탄 세례를 받았다. 물론 B군은 그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앞서 달려가다 이 광경을 본 라츠군은 잠시 멈칫 하더니 그대로 산아래로 뛰어내려갔다. 그가 달려간곳은 10여리밖의 집이 아니라 5리쯤밖에 안되는 泉峴里마을이었다. 「멍멍멍」! 낯선 개의 짖는 소리에 林濟泰군(당시 17세)이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의 집안을 향해 불안한 표정으로 짖어대던 라츠군은 林군이 나오자 바지자락을 물어 당겼다. 그리고는 앞장서 산으로 향해 뛰어 올라갔다. 이들이 올라가는 동안 날은 점점 석양이 짙어져가고 있었다. 한참을 달려가던 林군은 개를 믿고 산속으로 따라가는 자신이 어리석은것 같아 발길을 돌리려했다. 그러자 라츠군은 다시 林군쪽으로 돌아와 바지자락을 물고 가던 길로 끌어 당겼다.

할수없이 개에 끌려 올라가기 20여분 됐을무렵 林군은 신음소리를 들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B군은 마침내 林군의 연락으로 달려온 동네 청년들에 의해 구출돼 인근 병원에 입원할수 있었다. 얼마후 B군은 완쾌됐고 라츠군은 銃傷의 主人을 살려낸 공으로 새싹회가 주는 銅메달을 받았다.

상습텔리비전 절도단 일당 7명을 사로잡은 수훈의 방범犬도 있었다. 67년 서울城北경찰서 崇仁파출소 관내를 지키고 있던 셰퍼드 크레스트군(3살)이 그 주인공.

그해 12월3일 새벽2시께 松泉동 泳薰국민학교옆 골목길에서 크레스트군은 여느때처럼 방범대원 印鐵萬씨(30)등 3명과 함께 방범근무중이었다.

눈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크레스트군이 갑자기 꽁무니를 빼고 일어나 어디론지로 뛰었다.

예감이 이상한 印씨등은 크레스트군을 따라 1백여m 가량 뒤쫓아 갔다.

거기서 때마침 텔리비전을 보자기에 싸들고 달아나던 엽총강도 李鐘熙등 일당7명과 맞닥뜨렸다. 그러자 李등 일당은 혼비백산해 사방으로 달아났다. 크레스트군의 슬기는 이때부터 발휘되기 시작했다.

크레스트군은 다른 범인엔 아랑곳없이 텔리비전을 운반하던 李의 뒤만을 살금살금 쫓아갔다. 눈위에 찍힌 발자국과 냄새를 따라 三陽洞 난민촌까지 추격하던 그의 발길이 갑자기 멈추어졌다. 주범 李가 담을 넘어 자기집에 숨어버렸기 때문이었다.

크레스트군은 李의 집을 두어바퀴 돈뒤 발길을 되돌려 崇仁洞파출소로 뛰었다. 그러고는 당직순경의 바지가랑을 물어 李의 집으로 되돌아 왔다. 다락방에 숨어있던 李는 형사들에 의해 쉽게 붙들렸다. 李는 공범6명과 함께 전날 밤12시께 城北구貞陵3동山1번지 李모씨집에 엽총을 들고 들어가 위협, 텔리비전 1대를 든채 달아났다고 자백했다.

크레스트군의 기지로 李를 잡은 경찰은 그의 자백에 따라 3일동안의 수사끝에 나머지 6명도 무난히 검거했던 것이다.

「백동이」는 主人臨終하고 매일아침 墓所에 參拜
새끼빼앗는줄 알고 잘못문殺人犬…끝내自殺

◇省墓한 孝子犬 백동이

자신을 끔찍히 사랑해준 주인의 무덤에 3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묘를 한 孝子犬도 있었다.

이 화제의 忠犬은 順天시 梅谷동에 살았던 金孝哉목사의 「백동이」.

혈통서는 물론 품종도 가릴수없는 잡견이지만, 늙은 목사의 지극한 사랑에 감읍해선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쓸쓸한 묘지를 찾아가 마치 살아있는 金목사와 얘기를 나누듯 시간을 보내곤 한것이다.

생전의 金목사(당시83세)는 이 개를 끔찍히도 좋아했다.

『저 백동이 표정좀 봐. 마치 감정이 있는 사람과 같단말야.』

몸이 노쇠한데다 병환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노경의 외로움을 달래듯 백동이에게 과자를 사주며 어린이처럼 장난을 즐기기도 했다. 그러다가 金목사는 66년10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임종자리에는 부인과 자녀, 친척, 그리고 백동이가 있었다. 『달빛보다 더 밝은 천당 믿는 맘 가지고 보겠네. 며칠후…』 슬픔을 억누르는 찬송소리가 울려퍼질때 백동이는 문상객들에게 밀려 마당으로 쫓겨났다.

장례를 치른 사흘뒤였다. 그때까지 비통에 젖었던 가족들은 비로소 백동이가 없어진것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끔찍히 사랑하던 개인데…』 온동네에 수소문을 했으나 『장례치른 뒤론 한번도 못봤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때 나무하러갔던 이웃 사람으로부터 전갈이 왔다. 『글쎄, 백동이가 金목사님 묘소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더구먼.』

허동지동 가족들이 뛰어갔을때 백동이는 완전 기진맥진한채 金목사의 묘에 입을 대고 엎드려 있었다. 배가 홀쭉한 것으로 보아 아무것도 먹지 않은것 같았다.

『자, 백동아 이젠 집으로 가자.』

金목사의 미망인 崔할머니는 사흘동안 시묘를 한개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했다.

일단 집으로 돌아온 백동이는 그러나 매일 아침일찍 어디론가 나갔다가 돌아오곤 했다. 복스럽고 하얀 털이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오기도 했다.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계속되자, 金목사의 손자 준선군이 하루는 개의 뒤를 따라가 보았다. 새벽5시, 눈을 비비며 백동이를 뒤따라 가던 준선군은 깜짝 놀랐다. 『아! 할아버지 묘소로 가는 것이었구나.』

개는 묘소에 이르자 묘의 뗏장에 몸을 바짝 붙이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약5분여를 지난후 비로소 어슬렁 어슬렁 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 준선군은 『우연이겠지』하고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서 그뒤로 사흘 동안을 계속 미행을 했다. 그때마다 백동이는 한결같이 金목사의 장지로 갔다. 천천히 묘지를 한바퀴 돈다음 5분여 잔디위에 엎드려 있다가 내려오곤 하는 것이었다.

그 자세는 자못 경건하기까지 했다. 이후 마을사람들 사이에선 백동이를 가리켜 『효자 개』 또는 『효자상을 탈만한 개』등등으로 불렸다는 것이다.

자신의 텔레퍼디에의해 主人의 무릎에서 죽은 개도
일부 셰퍼드·土佐犬은 殺人犬으로 돌변

◇自殺까지 한 개

개가 아무리 영리하다고해서 스스로 생명까지 끊는다는것은 상상할수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묘한 일이 지난70년 프랑스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해6월26일 프랑스 판토카레 현의 한 농장에서 메루라고 부르는 셰퍼드가 7세된 에리메라는 소년을 물어죽인 일이 있다.

사건은 에리메군이 삼촌집에 놀러갔다가 메루가 낳은 새끼와 더불어 논게 화근이었다. 밖에서 돌아온 어미개는 혹시 자기 새끼를 해치려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착각했고, 그래서 새끼를 빼앗는다는 것이 그만 소년의 머리를 잘못 물어 숨지게 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4일후였다. 에리메군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삼촌 메루날씨는 침통한 마음으로 들을 거닐다가 우연히 마굿간 밖에서 죽어있는 메루의 시체를 발견했다.

에리메군이 죽은 후 메루는 마굿간 속에 묶여 있었는데 며칠후 이 개는 마굿간의 판자구멍을 뚫고 빠져나간 채 목을 매달아 죽어 있었던 것이다.

메루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단정했으나 주인인 메루날씨만은 그렇지가 않았다.

『내 조카가 죽은후 메루는 비통에 젖어 며칠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따라서 메루의 죽음은 조카 에리메를 죽인 비극에서 온 비관자살임에 틀림 없다』며 자살을 강조했다.

이후 프랑스 신문들은 「개의 자살」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수차 보도했고 또 그러한 자살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그러나 愛犬家이며 「개와 미스터리」라는 저서를 낸적이 있는 메리 박사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자살은 있을수 없다』면서 『자살은 추상적이며 관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을수 없는 개에게 자살은 생각할수 없는 일』이라고 이를 부정했다.

하지만 동물자살 긍정론자들은 『주인의 무릎에서 죽은개의 이야기나 해안으로 기어올라와서 죽은 문어 혹은 고래의 시체등을 들어 동물들도 스스로의 텔레퍼디에 의해 죽음에 대한 의식을 갖고있다』고 주장, 개의 자살론은 적극 지지하고 나섰던것. 심지어 어떤 동물자살긍정론자는 『실연한 나머지 투신자살하는 코양이를 본일이 있다』고까지 강변, 『이메루의 죽음은 틀림없이 자살일것』이라며 개주인의 자살론을 지지하기도 했다.

아뭏든 그 眞僞야 어떻든 동물애호국 프랑스 국민들다운 논쟁임엔 틀림없을것 같다.

◇61년, 소련수상 흐루시초프가 당시 케네디 美國大統領에게 선사했던 푸칭카양。

개의 이미지는 반드시 「忠犬」의 그것만은 아니다. 猛犬 또는 狂犬의 예를 우리는 흔히 보아왔다. 지난3~4년 사이에만도 셰퍼드와 土佐犬등이 그처럼 猛·狂犬으로 돌변해 사람을 해친일이 10여차례를 넘었다. 집계에 따르면 그 10여차례 가운데서 5세이하의 꼬마6명이 희생이 됐다.

지난해 3월16일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효자리 야산에서 이동네 劉昌玉씨(61)소유의 도사견 2마리, 셰퍼드잡종 1마리등 개 3마리가 朴在鳳씨(32)의 장남 星俊군(당시 3세)을 물어 숨지게한 사실은 그 본보기였다.

물론 이 사고의 책임은 개주인 劉씨에게 있었다. 放犬의 책임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속에서도 개의 이미지는 바뀌어 질수도, 바뀌어져서도 안된다. 슬기와 義理를 함께 갖춘 犬公은 여전히 사람과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떨어질수 없는 動物이기 때문이다. 〈卓成万기자〉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作家의 출발

어떤 작가가 『나의 초기의 작품들은 유치해서 눈물이 나올만큼 부끄러워요』라고 말하자 체호프 왈 『그렇게 유치한데서부터 출발했다는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처음 시작하는 신출내기 작가가 대뜸 성공에서부터 출발했다면, 그사람은 파멸(破滅)이지요。』

얘기의 샘

나쁜놈일수록

어떤 사람이 장·콕토에게 물었다. 『선생께선 운명이란 것을 믿습니까?』 콕토 『물론입니다. 운명을 믿지않는다면, 치사하고 나쁜놈들이 성공하고 있는것을 설명할수 없으니까요。』

에티켓 滿點

요한·슈트라우스의 부인이 어느날 브람스에게 부채를 내놓으며 『여기에 사인해 주실수 없을까요?』라고 부탁했다. 브람스는 부채에다 슈트라우스의 작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의 테마를 쓰고 그 아래에 이렇게 썼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나의 작곡이 아님」

얘기의 샘

거 드 름

아테네의 장군 테미스토크레스는 어느날 악사(樂士)들이 모인곳에 가게 되었다. 그는 악사들을 훑어보면서 거드름을 피웠다.

『본인은 유감스럽게도 악기를 전연 켤수가 없소이다. 다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이란 조그만 나라를 커다란 나라로 만드는 일뿐이요』

거지와 哲學者

한친구가 『사람들은 거지에겐 잘 적선(積善)을 하는데, 철학자에겐 그렇게 안하는것같더군요』라고 통속에 사는 철학자 디오게네스에게 말하자, 디오게네스 왈 『그건 말일세, 사람들은 자기들도 언젠간 절름발이나 소경이되어 거지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만, 저들이 철학자가 되는일이 있으리라곤 생각조차 않기 때문이지。』

얘기의 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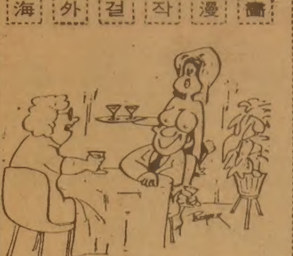
失職 대책

추리소설가인 에드가·윌레스에게 한 지면(知面)있는 청년이 나타나 『저는 선생님의 작품을 탐독하느라고 출근하는 것을 잊어버려 실직(失職)했읍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라고 탄식했다. 윌레스 왈 『내 신작(新作)을 줄테니 빨리 읽도록 하라구. 그럼 실직당한것같은 건 잊어버릴테니 말야。』

海外걸작漫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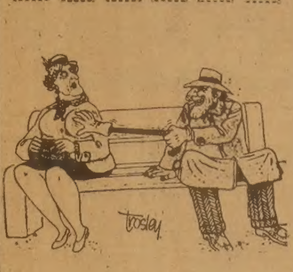
『내 컵을 빠뜨렸어요』
"Dropped my cup"

海外걸작漫畵



『날 그렇게 노려보지 말아요, 난 안취했다구!』
"Will you please stop looking at me like that, Harry? I am not drunk!"

海外걸작漫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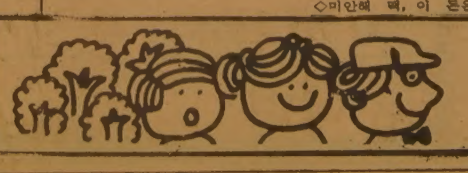
<무 제>

해외 걸작 만화

◇미안해 맥, 이 돈은 다 거쳐야 할 데가 있는거야。

◇「우주인의 방문」 아! 안돼요, 거긴 아직 청소 안했단 말예요。

◇음, 아주 잘 보이는데요, 저걸 누가 썼지요。



고국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신문 구독 및 광고 문의 (416) 533-2361~4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일보

連載小說

스물세살의 자서전 ⑯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畫

사내 나이 스물 세 살이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나이면서 무엇이든 안되는 나이인 것 같다.

어쩌면 가장 애매한 연령인 것 같다. 애들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어른도 아니다.

스물 세 살 짜리 사내들은 어른 흉내 내기에 바쁜, 그러면서도 어른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애매한 부류인 것만은 사실이다.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 보았다. 내게 남아 있는 유일한 지난해의 증거는 살아 있다는 것뿐이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도 좀 애매하긴 마찬가지였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란 고작 살아 있는 일일까?

나는 달력 옆에 큰 백지 한 장을 붙였다. 어려서도 해만 바뀌면 책상 모서리에 흰 종이를 붙여놓고 성공·노력·성실 따위의 글씨를, 마치 교훈이나 급훈 흉내처럼 써놓곤 했었다. 물론 그 종이는 오래 붙어 있지 않았다. 뜯어내서 딱지를 만들거나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려 버리는 것으로 내 성실·성공·노력도 접어버리거나 날려버리는 게 고작이었다.

> **새해 인사**
>
> 새해가 되어 한 살을 더 먹었읍니다. 스물 두 살이나 스물 세 살이 애매한 나이인것만은 확실하지만 한살 더 먹었다는 건 그만큼 철이 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이 난다는 건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을 조금 더 안다는 건 어쩌면 그만큼 때가 묻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때를 털어내는 새로운 자세로 이 소설을 쓰겠읍니다. 새해에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상식적으로 살자.

사인 펜으로 이렇게 썼다. 보통으로 살자, 사람같이 살자, 솔직하게 살자, 힘껏 살자, 사는 것처럼 살자, 뭔가 하자, 악쓰며 살자….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봤지만 모두 상식적으로 살자는 낱말만 못한 것 같았다.

내가 지난 한해를 반추해 볼 자료라고 생각하는 일기를 쓰지 않은 것도 벌써 두어 해가 넘었다. 기차길 옆에서 왕초 노릇할 때부터 시덥잖게 써왔던 일기장, 가출할 때도 옆에 끼고 다니던 일기장. 그런 내 비밀스런 기록들도 그 해 겨울에 한 줌의 재가 되고 말았다.

그 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관상대는 예보가 틀려야만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이라는 걸 눈치 채서 그랬는지, 그 해 겨울은 따뜻할 거라고 했다가 더 유명해진 해였다.

충청도 공주의 어느 한적한 산골로 피신 겸 겨울방학 동안 책이나 보겠다고 내려간 적이 있었다.

새해를 맞는 날 아침이었다. 뭔가 마음을 다져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과궤짝으로 만든 앉은뱅이 책상 앞에 흰종이를 붙여놓고 머리를 쥐어 짠다는 게 하필<솔직하게 살자>였다.

어려서 고해성사하러 신부(神父) 앞에 가서도 솔직한 것처럼 속스럽고 죄스러운게 없었다. 토요일마다 고해소앞에 가서 멀뚱멀뚱 살아 있는 신부에게 부모님께 거짓말했읍니다, 신공을 바치지 않았읍니다, 연보 돈 준 걸로 눈깔사탕 사 먹었읍니다, 여선생님 변소 들어갈 때 거울 디밀어 봤읍니다, 여학생을 치마들춰 보고 약을 올렸읍니다, 친구를 때렸읍니다, 이웃집 판자담을 뜯어다 쥐불놀이 했읍니다, 친구들 공책 훔쳐서 딱지 만들었읍니다, 여자 선생과 남자 선생이 숙직실에서 이상한 짓 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읍니다…, 이렇게 정신 없이 고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린 소견에도 매 토요일마다 죄목을 적은 공책을 펼쳐놓고 신부가 생각해도 그 나이에 그만한 죄를 짓는 건 있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죄목만을 너덧 개씩 외어 가지고 고해하곤 했다.

나는 새해 아침에 어째서 갑자기 솔직해지고 싶었는지 모른다. 내가 너무 솔직하지 못한 삶을 지속해 왔다는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다. 언제나 나는 착한 척, 괜찮은 사내인 척, 의리의 사내인 척, 곧고 바르게 사는 척, 정의롭고 슬기로운 척만 했다.

솔직해 보자. 일기장 속, 내 비밀스러운 그 속에서만이라도 솔직해 보자는 오기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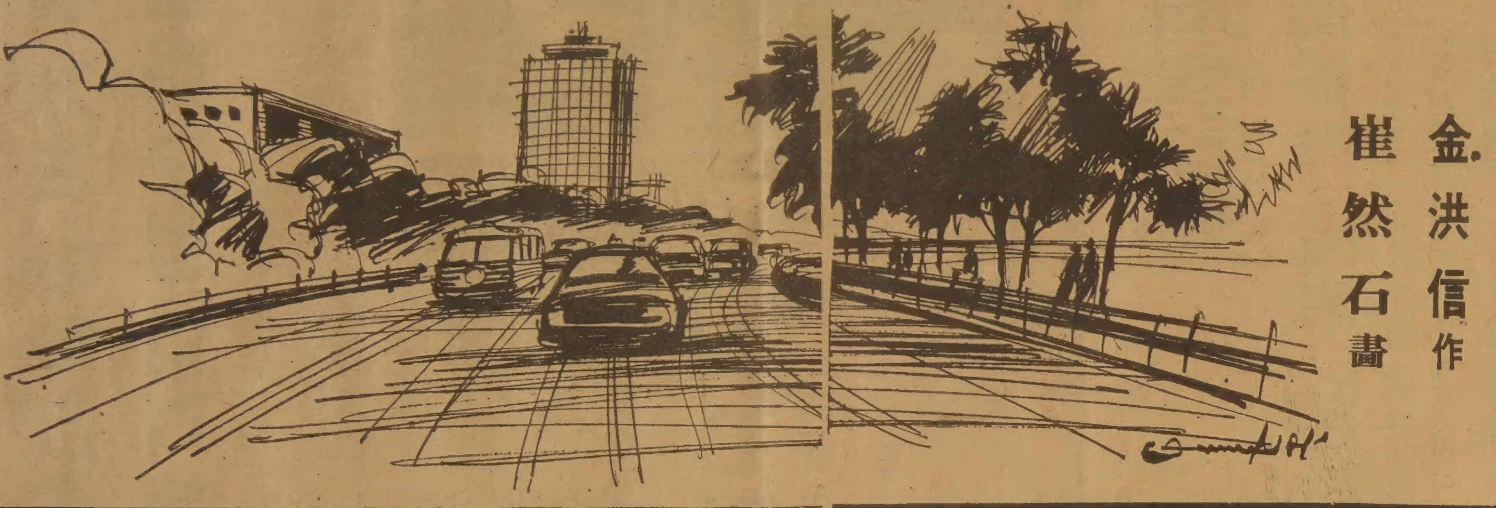
나만 솔직하지 못한게 아닐까?

그런 자격지심도 생겼다.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근엄하고 도덕적으로 굴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자신은 악마의 피를 타고 난 것이지, 천사의 피를 이어받은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일기를 써 나가며 솔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깨달았다.

보통<솔직이 말해서>라는 단서를 붙여 말하는 사람치고 정작 솔직한 사람은 없는 법이었다.

매일 매일 피를 거꾸로 붓는 기분으로 썼다. 솔직하자는 구호와 그래도 남아 있는 내 지독스런 위선자 기질과 남이 혹시 볼지 모른다는 두



日記를 쓰며 자서전등이 얼마나 엉터리인줄 깨달아

새사람되고자 악마전 같은 일기장을 몽땅태워 버려

려움, 새롭게 내 치졸함과 비겁함을 발견하는 소름 끼치는 스스로의 혐오감, 이렇듯 추잡스러운 자신을 향한 분노로 치를 떨며 써 나갔다.

위인전과 자서전, 영웅전과 회고록 따위가 얼마나 철면피한 가면을 쓰고 쓰여졌는지, 나는 또 깨달았다.

되돌아 읽는 내 일기장속의 나는 99·9퍼센테이지 이상의 악마와 0·1퍼센테이지 이하의 천사로 조립된, 극도로 조악하기 이를 데 없는 악마 덩어리였다.

솔직한 게 죄가 아니라면 감히 얘기할 수 있겠다.

나는 내 혈족, 그것도 가까운 혈족을 뺀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갖고 싶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독재자, 하나님과 비슷한 권한을 갖는 황제이고 싶었다. 세상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해치우고 싶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한 권한만 주어진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해치울 게 뻔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나는 악마였다. 더럽고 추잡하고 비겁한 모든 것의 대명사였다.

스무 살 남짓한 사내의 짧은 일기장, 겨우 3개월 남짓한 그 일기장은 지옥에 갖다 놓아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최고의 악마전이었다.

화로를 얹어놓고 그 알불 위에 일기장을 태우기 시작했다.

한장 한장 찢어서 불을 사르고 그 타버린 종이 위에 남은 글씨 자국을 지우기 위해 종이재를 부수었다. 얼마나 치를 떨었는지 모른다. 내 자신이 고작 그 정도의 인간밖에 안되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일기장을 태우고 집에 와서 그 동안 소중하게 보관했던 일기장들을 죄다 마당에 내던졌다. 그 위에 석유를 뿌리고 성냥을 그어 던졌다.

십 수 권의 악마전, 조악하게 위선으로 써 왔던 그 일기장은 남김 없이 타버렸다. 그것들을 태우지 않고는 견딜수 없었다. 나는 내 과거를 태우는 심정으로 일기장을 태웠다.

아침밥을 먹고 몇 군데 세배하러 다녔다. 다혜네 집에 세배하러 가려다가 되돌아 서고 말았다. 차라리 구정 때 세배하러 가는 게 현명할것 같았다. 나같은 촌놈에겐 아직도 신정보다는 구정에게 향수가 많았다. 남들이 하니까 그저 따라 하는 세배에 지나지 않았다.

명절이라면, 적어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축제의식이 살아 있어야 한다. 신정은 아직도 축제라는 개념보다는 남들 눈치나 보는 그런 날 같기만 했다.

춘삼이 형 전화를 받은 것은 저녁 때였다.

『할 얘기도 있고 하니 나와라.』

『오늘은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저녁에 다혜가 놀러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너, 나한테 세배 안할 거냐?』

『형이 좀 더 늙으면 할 거요. 그때까지만 살아 있어요.』

『정초부터 재수없는 소리 말고 나와라. 내가 뻐근하게 살 테니까.』

『형, 나 편하게 좀 해 줘요.』

『자아식, 내가 언제 너 괴롭힌댔어. 얼굴 보자는 거지. 네 맘 아니까 걱정 말라.』

『오늘 집에서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완강하게 나갈 의사가 없다는 걸 밝혔다.

『너, 미향이 알지?』

『미향이요?』

『설악산 말야.』

『보슬비…알아요. 왜요.』

가슴이 몽클했다. 그녀를 생각하면 가슴 밑바닥에서 욕망의 덩어리가 치솟아 오르곤 했다. 나를 초대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여자지만 그 밤의 정열을 나는 잊고 있지 않았다.

『걔 언니가 없어졌어. 나는 땡땡도 못하겠다. 도치 애들이 안 보여. 가물치가 나 잡으려는 판에 뛰어들 수도 없고, 얘는 딱하고 해서 전화했다.』

나는 잠깐 머뭇거렸다. 정초부터 그런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형, 나 정말 편하고 싶어요.』

『알아, 자식아. 애들이 불쌍해서 그랬어. 안들은 걸로 해라.』

『형, 미안해요. 서유리라고 있죠. 걔 요즘 어디 있어요?』

『그 녀석 잘 있지. 요즘 재일동포 녀석한테 시집 간다고 정리하는 모양야. 너 짝사랑 하냐?』

『아노. 애가 하도 괜찮아 보여서 말이죠. 잘 됐군요. 금친구 시작할 때 파 [illegible] 줘요.』

『커튼 뒤에서 울려고 그러는 거냐?』

『좀 울면 안됩니까.』

춘삼이 형은 서운한 말투로 전화를 끊었다.

전화가 끊어진 후부터 내 가슴속에는 묘한 죄책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런 증발사건이라면 빤한 것인데, 내가 모른 체 한다는 게 아픔으로 와 닿았다. 춘삼이 형이 내게 부탁하는 것은 그만한 것을 부탁할 데가 마땅찮기 때문인 것 같았다.

한 여자가 납치된 것을 알면서 내가 모르는 체 할만큼 강심장을 가졌을까?

다른 여자도 아니고 내 불타는 욕망의 찌꺼기를 가라앉혀 준 여자의 언니인데도. 아니, 그게 아니라도 내가 내 양심을 걸고 참을만큼 독한 것일까?

보슬비라면 사랑받는 가수였다. 언제나 발랄했고, 언제나 대중에게 기쁨을 주는 율동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참아보자. 그것은 그들 개인의 고통이지, 내가 아파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나는 엎드려서 춘삼이 형 부탁을 잊어버리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정초부터 그런 일에 뛰어들기는 정말 싫었다. 정초에 재수가 없으면 일년 내내 재수가 없다는 어른들 말이 퍼뜩 떠올랐다.

『너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그러니. 다혜 온다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나 부다. 좋을 때다.』

은주 누나가 옆에서 빈정거렸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잡았다.

빤한 증발 사건을 모른체 하자니 아프고 괴롭기만 해

납치·소문퍼지면 큰일나요, 우리언니 좀 구해 주세요

『형, 나요. 총찬이요.』

『편하게 해 드렸는데, 왜 이러셔.』

『형, 지금 나갈께요.』

『너 말릴 사람 있겠냐?』

『어디로 가면 돼요.』

『H호텔 와서 날 찾아. 미향이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알았어요. 금방 갈께요.』

나는 다시 다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혜는 볼멘 소리로 투덜거렸다.

『은주 누나가 갑자기 시골 가서 그래.』

『내가 뭐, 찬이네 누나 보러 가는 줄 알아?』

『이왕 오려면 누나 있을 때 오는 게 좋잖니?』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네.』

『좋아. 그럼, 와. 단둘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봐 주려니까 되게 빼기네.』

내 말은 약이 되었다. 다혜는 노골거리며 대주했다.

『누군 공일인 줄 알아? 되게 양심적인 척하구, 그래.』

『오라니까 그래. 와서 밥도 좀 해 주고 양말도 좀 빨아 주고, 그러면 되잖아.』

『좌 좋게.』

다혜는 언제 보아도 현명한 여자였다. 나와 단 둘이 있게 되면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은주 누나에게 집에 들어오지 못할지 모른다는 말과 만약 다혜가 전화한지도 모르니까, 아예 전화기를 내려 놓으라고 말했다.

『네 노름에 내가 놀아나야 하니, 원. 정신 좀 차려라. 너, 정초부터 바쁜 걸 보니 올해 내내 정신 모 차리겠구나. 좀 가만히 있을 수 없니?』

『그게 내 사주팔자에 쓰여진대로 사는 건가 봐. 호적초본에도 내 팔자는 그렇게 쓰여 있을 거야.』

『조심해라.』

『알았어, 누나.』

나는 밖으로 뛰어나와 급하게 택시를 잡았다.

『H호텔로 가십시다.』

택시는 한적한 도심지를 질주해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유심히 신호등을 쳐다보았다. 차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면 그 다음 신호등이 통과신호를 보내 줘야 마땅할 것같았다.

『저 놈의 신호등 개판이구만요. 정상적인 속도로 달리면 신호등이 딱딱 떨어져 줘야지. 저 지경이니 차가 밀릴 수밖에 없겠어요.』

내가 이렇게 투덜거리자 운전사가 맞장구를 쳤다.

『우가 아니랍니까. 개판이라구요.』

운전사가 투덜거리며 달렸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초조한지 몰랐다.

나는 H호텔에 내려서 춘삼이 형을 찾았다.

객실에 들어서자, 춘삼이 형이 능글맞게 웃었다. 그 옆에는 초췌한 표정의 미향이가 앉아 있었다.

『미향이 때문에 온 거예요.』

『누가 뭐래?』

『술 한 잔 할래?』

춘삼이 형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런 일에 내가 뛰어들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번 일은 그런 내 마음을 노린 셈이었다.

『본론으로 들어가요.』

내가 다그치고 나섰다.

『미향이, 네가 시작해라. 재 성질 급해서 난 자신 없다.』

미향이는 눈두덩이가 부어 있었다. 실컷 울고 난 뒤끝인 것 같았다.

『미안해요. 괜히 이런 일로 괴롭혀 드리게 돼서요.』

미향이는 제대로 얼굴을 들지 못했다. 나와 정열적인 밤을 지샌 그날의 기억 때문인 것 같았다.

『처음부터 얘기해요. 자세하게.』

내가 서두르는 만큼 춘삼이 형은 태연한 얼굴이었다. 그는 도대체 서두르는 적이 없었다. 그것이 그의 뱃심인 것 같았다. 그는 체질적으로 그럴만한 사람이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 남아서 왕초로서 대우를 받는 것도 그런 배짱 때문이었다.

『어젯밤에 K호텔에서 심야무대가 있었어요. 새벽에 공연 끝내고 짐 챙겨서 운전하는 미스터 박에게 맡기고 뒷문으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덮쳤어요. 여섯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때 무슨 정신으로 계단에서 뛰었는지 몰라요. 그 높은 데서 말예요. 그리고 사람 살리라고 소리지르며 주차장으로 뛰었어요. 마침 미스터 박이 짐을 챙기다가 쫓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미스터 박을 때려 누이고 하는 사이에 저는 무서워서 소리만 치고 있었어요. 언니는 어디로 끌려갔는지 몰라요. 지금 무슨 짓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새벽 몇 시였지?』

『세 시쯤 됐어요. 그리고 뛰어가는데, 미스터 박이 쫓아와서 신고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맞아요. 신고해 봤자 빤하잖아요. 우리만 엉망진창이 될거고, 언니는 언니대로…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하면 지금도 떨려요. 어떻게 좀 우리 언니 구해 주세요. 소문나면 큰일예요. 우린 끝장이라구요.』

『그 자식들이 노린게 바로 그거야.』

애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 어떡 하면 좋죠? 우리 좀 살려 주세요. 춘삼이 오빠께서 총찬씨만 나서면 쉽게 해결될 거라고 했어요. 당장 내일 공연 펑크내면 소문이 날지도 몰라요.』

미향이는 떨고 있었다. 나는 그런 미향이 등을 도닥거려 주었다.

『차근차근 생각해 봐. 언니나 네가 납치될 만한 일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조짐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었는지, 말야. 공연이나 밤무대이거나 귀찮게 굴던 애들이 있었는지, 말야.』

미향이는 훌쩍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화장기 없는 앳된 얼굴이 더 고와 보였다.

『춘삼이 오빠한텐 얘기했어요. 데뷔할 무렵부터 성주학이라는 사람이 쫓아 다녔어요.』

『성주학?』

『성주학.』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S주식회사 성사장, 큰 놈 있잖아.』

춘삼이 형이 대신 말했다.

『밑 닦아 주는 놈들이 있나부죠?』

『도치 애들이라니까 그래. 그 녀석 벌써 그런 전과가, 여덟 건야.』

『가물치 애들 아네요.』

『그러니까 내가 옴짝달싹 못하지.』

나는 담배를 입에 물고 한참 동안 방안을 걸어다녔다.

『내가 하죠.』

나는 입을 앙다물고 말했다.

〔다음주에 계속〕

무슨 광고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

新入生 130%모집 彈力운용

83학년도부터 大學·學科別차등 검토

◇28일 世宗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학총·학장회의에서 李奎浩장관ⓔ이 졸업정원제의 정착과 학원사태에대한 극복의지를 설명하고있다.

脫落比率·方法 대학自律로
學事改革委 구성 엄격施行

文敎部、總學長회의서 指示

문교부는 대학졸업정원제의 탄력적인 운영을위해 초과인원(30%)에 대한 학년별 탈락률과 탈락방법을 각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하도록 하는한편 장기적으로는 현재 졸업정원의 1백30%로 고정돼있는 초과모집 비율을 대학별 특수성과 계열및 학과별성격에 따라 차등을 둘수있게 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28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 1백개 대학총·학장회의에서 졸업정원제의 운영방법과 새학기학원대책등을 시달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대학측에 맡겨진 학년별 탈락기준과 방법은 학칙 또는 자체규정을 제정, 엄격히 시행하되 각대학은 이를위해 총·학장직속으로「대학학사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문교부는 또 졸업정원제를 계속한다는 기본방침에 아무런변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현재처럼 졸업정원의 1백30%를 일률적으로 모집하는데는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예를들어 국비양성대학, 국가정책상 필요한 대학, 극히 우수한 학생들만 모여 탈락률을 높일 필요가 없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100~130%범위내에서 모집인원에 차등을 두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그러나 이에대한 구체안은 아직 마련돼있지않으며 앞으로의 장기연구과제라고 말했다.

문교부는 또 앞으로 각대학에 구성될 대학학사개혁위원회는 ▲교수및 시설확보 ▲학업성적평가개선 ▲대학재정 ▲학사징계강화 ▲교수학습방법개선등에 대한 계획을수립, 추진하고 한기마다 자체평가를해 문교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문교부는「대학평가위원회」를 운영, 대학들이 제출한 자체보고를 매년1회 이상 현지출장을통해 확인토록했다.

또 문교부장관은 대학편제의 보고에따라 졸업정원제가 부실운영되고있는 대학과 학사개혁이 안되고있는 대학을가려 학생증원및 재정지원등 일체의 정부시책을 조정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취할수 있도록했다.

이날 시달된 그밖의 사항은 다음과같다.

▲대학교수재임용=임용기간이 6년인교수및 부교수는 82년2월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므로 재임용은 총·학장이 직접책임아래 연구실적중심으로 엄정심사하여 부적격자의 재임용이 없도록할것.

▲대학원정원관리=82학년도부터 계열 학과별정원제가 학위과정별(석사또는박사) 총정원제로 바뀌나 학칙변경을 신청, 인가받도록 할것.

▲國·公立大교수처우=國·私立大간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봉급인상 9%외에 기성회 자체재원으로 급여를 받는 교수는 월28만5천원까지 지급을 허용함.

▲장학금수혜자30%확대=현재의 교내장학금17%를 23%로, 교외장학금3·8%를 7%로 86년까지 높여 전체학생의 30%가 등록금수준의 장학금을 받도록함.

▲군입대자등 휴학자의 정원관리=군입대자등 휴학자는 학적보유자이므로 결원으로 취급해 편입생을 뽑는일이 없도록 할것.

"大學生들에 우롱당하는 어리석은巨人 안되겠다"

李文敎 밝혀

李奎浩문교장관은 28일 전국대학총·학장들에게『81학년도는 과거20년동안의 연례행사처럼 계속돼온 휴업·가정학습·휴교의 연속을 깨뜨리고 전국적으로 휴업이나 휴교를 한일이없던 획기적인 한해였다』고 회고하고『앞으로 학원소요에 대처함에 있어 과거처럼「우롱당하는 어리석은 巨人」처럼 행동하지는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李장관은『학생들의 개별적인 지도에있어 대화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규칙과 질서를 위반한 학생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졸업정원제에 언급, 이제도는 대학교육의 진정한발전을위해 앞으로 계속 고수될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제도가 뜻하는 바를 이룩하기위해 교수및 학습방법을 개선, 학점의 비중을 무겁게하고 학업평가를 엄격히해 자연탈락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社会漫評

겨울속의 봄! 앞으로
석달열흘간만 더…

北傀、DMZ를 要塞化

대규모軍事作戰…緊張感 조성

停戰委 유엔側대표 밝혀

북괴는 지난 12월약2주간에 걸쳐 전국적인 규모로 공중, 지상및 해상활동 작전을 대대적으로 실시, 휴전선일대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음이 28일 드러났다.

유엔군측 수석대표 스톰즈 해군소장은 이날상오11시 板門店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제409차 회의에서『유엔군측은 이달초부터 약2주간 북한측의 격증하는 군사활동을 관찰해왔으며 전국적규모로 실시된 이 훈련은 공중과 지상, 해상활동작전과 낙하산투하, 군부대전방전개, 상륙작전이 실시됐고 예비군과 기타 군사부대가 동원됐다』고 밝히고『북괴측이 은밀한 군사활동을 펴 비무장지대에 지뢰밭을 만들고 중무장 벙커를 설치하는등 비무장지대를 불법적으로 방대한규모로 요새화 하고있고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톰즈소장은 앞으로 쌍방간에 군사훈련을 할때는 板門店을통해 사전통보하는 정도의 기를 제의했다.

스톰즈소장은 이에따라 우리측의 성실성을 보이기위해『내년2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팀·스피리트82 한미합동훈련이 실시된다』고 통고하고『군사훈련이 연례적으로 실시된것이며 규모는 과거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북괴측은 오히려 우리측이 한반도의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억지를 썼다.

이날 회의는 낮12시40분에 끝났다.

獨寡占지정 品目·업체 再調整

48개品目·87개業體로 늘려

경제기획원은 내년1월1일부터 적용할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상의 市場支配的 사업자를 일부조정, 현행 42개 품목、71개업체에서 48개품목、87개업체로 늘려 28일고시했다.

독과점업체가 제품 가격을 멋대로 올리거나 출고를조절 하는등의 橫暴를 집중감시하기위해 지정하는 이들 시장支配的 품목및 사업자는 80년중의 국내시장 총공급액(輸入포함輸出은제외)이 3백억원이상되는 대량거래 품목으로 1개社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2~3개社 시장 점유율이 70%이상의 독과점업체다.

이고시 내용에따르면 현행 대상품목중 비스키트 사이다 콜라 레미콘 熱延薄板 선풍기등 6개품목、東洋物産 龍洋火 롯데칠성등 10개업체가 대상에서 빠지고 코피 合成洗劑 유리병 모터사이클등 12개품목、東西食品 愛敬油脂 斗山유리등 26개업체가 새로 추가되었다.

48개품목중 라면 설탕 화학조미료는 2~3개 대기업이 1백% 국내시장을 완전 독점하고있고 90%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것도 아이스크림 大豆油 대두박 껌 코피 맥주등 29개품목에 이른다.

또 지난4월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시행이후에도 이들 48개주요工產品에 대한 3사 이내의 소수기업시장獨占度는 더욱 심화되어 무려 30개품목이 오히려 시장점유율비중이 더욱 높아졌던것으로 나타나고있다.

공정거래법에따라 지정된 市場支配的사업자들은 가격을 멋대로 올리거나 덤핑이 올리는 사실상의 談合、出庫조절 또는 경쟁을 막기위해 새로운 경쟁기업의 참여를 방해하는지 여부가 중점적인 정부의 監視를 받게되며 不公正 去來行爲에대한 벌칙도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서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82年度 市場支配的 品目의 국내總出荷額및 독과점업체 市場占有率

(단위 : 억원%)

품목	대상사업자	국내총공급액 80	市場占有상위3사 80
조제분유	南陽乳業 每日乳業 서울우유협동조합	38,000	99·92
아이스크림	大一乳業 해태롯데	85,569	90·96
유산균발효유	한국야쿠르트 해태 南陽乳業	64,735	82·26
대두유	東邦油糧 제일제당	57,308	95·85
대두박	〃	52,118	98·38
라면	三養식품 農心	111,703	100·00
정당	제일제당 三養社 대한제당	184,055	100·00
껌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양제과	45,683	98·51
화학조미료	서울味元 제일제당	79,663	100·00
커피	東西食品 美州산업	31,314	97·08
맥주	동양맥주 조선맥주	135,281	99·93
아크릴방적사	韓一合纖 泰光產業	52,691	94·52
신문용지	全州世大 大韓	53·086	89·08
크라프트지	雙龍製紙 大元제지 朝日제지	69,342	84·75
스틸렌모노마	蔚山石油化學	32,971	86·53
저밀도폴리에틸렌	韓洋化學	94,376	86·49
폴리프로필렌	大韓油化 湖油	58·441	94·57
폴리스틸렌	韓南化學 信亞化學	33,171	89·11
PVC	한국프라스틱 럭키	63,896	99·17
나일론F사	東洋나이론 코오롱 高麗合纖	44,772	92·51
폴리에스터F사	鮮京 코오롱 東洋포리에스터	34,485	83·53
자양강장변질제	東亞제약 一洋약품 同和약품	37,148	91·23
합성세제	럭키愛敬油脂	34,091	87·27
자동차타이어	三陽 韓國 同信化學	92,286	94·41
판유리	한국유리	59,741	90·23
유리병	斗山유리 三光유리 효성유리	66,751	73·81
합금철	三陟產業 한국合金鐵 東一電工	52,211	72·87
빌레트	浦鐵	44,336	57·56
중후판	浦鐵 東國製鋼 한국鐵鋼	85,418	92·68
냉연박판	연합철강 浦鐵 日新제강	96,048	90·37
스테인리스강판	한국종합특수鋼	55,960	70·91
핫코일	浦鐵	122,477	99·98
주석도강판	東洋錫板 日新제강 新和實業	35,863	98·49
아연도강판	연합철강 日新제강 浦鐵	31,386	85·72
동괴	한국鑛業製錬 溫山銅제련 建設實業	74,931	98·07
알루미늄괴	대한알미늄공업	89,773	67·46
통조림관	韓一製罐 三和製罐	33,011	71·08
경운기	大同工業 국제종합기계 아세아종합기계	67,288	95·66
TV수상기	金星社 三星電子 大韓電線	83,456	90·85
자동전화교환기	金星通信 한국電子通信 東洋정밀	80,879	95·79
가정용냉장고	金星社 三星電子 大韓電線	74,500	90·24
통신케이블	大韓電線 國際電線 金星電線	119,888	86,85
전력 〃	〃	56,803	78·03
승용차	現代 새한 起亞	138,402	90·73
일반버스	새한現代 아세아	122,276	96·12
일반화물자동차	起亞現代 새한	203,641	99·87
자동차디젤엔진	大宇重工業	94,497	68,57
모터사이클	起亞技研 曉星기계	45,230	94·65

國家사회발전 有功 85명에 勳·表彰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28일 하오 청와대 영빈관에서 金鳳學씨(60·平統자문회의분과위원장)등 국가사회발전에 숨은 功이큰 有功者 85명에게 국민훈장 국민포장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한뒤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리셉션을 베풀고 이들을 치하 격려했다.〈사진〉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사회의 그늘진곳을 어루만져준 여러분들의 숨은 공로야말로 이사회를 밝게하는 등불이며 또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치하했다.

이날 훈장등을받은 유공자들은 ▲지역사회발전과 불우이웃등을 위해 많은 誠金을 낸 독지가 ▲고아원·영아원등 보호시설에서 일해온 사회복지사업가 ▲孝子孝婦및선행자 ▲재난이 발생했을때 헌신한 사람 ▲공적이많은 篤林家 ▲국위를 떨친 해외동포들로 국가와 사회발전을위해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다.

"가스施設·管理 보완"

全대통령、「大韓火災」事故현장들러

全斗煥 대통령은 일요일인 27일상오 대한화재해상보험빌딩 LP가스폭발사고현장 대책본부에들러 朴英秀서울시장 黃鍾屹대한화재해상보험사장으로부터 약50분간 사고수습현황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앞으로 가스사용이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는만큼 이번사고를 교훈삼아 당국의 건축허가때에는 가스사용 안전관리및 시설, 긴급사고때의 대피시설등을 철저히 점검토록하라』고 지시하고『관계전문가들로 하여금 사고현장을 답사시켜 불의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시설관리면에서의 보완책을 연구검토하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특히『이번사고로 부상한 각업체 직원들의 치료대책에만전을기해 그들이 하루속히 직장에 복귀할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工場새마을 優秀分任組長에 茶菓

全斗煥 대통령은 28일하오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청와대에서 崔海淸씨(32·東亞중공업永登浦공장工員)등 공장새마을우수分任組長 29명에게 다과를 베풀고 노고를 치하했다.

서울市豫算 첫1兆원돌파

市民1人擔稅 4만5천원

서울시 82년도예산이 1조1천3백96억9백만원으로 확정돼 서울시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28일 국무총리실의 승인을받아 최종 확정된 82년 서울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천6백96억5백만원、특별회계 5천6백99억7천4백만원등 모두 1조1천3백96억9백만원.

이에따라 내년도 시민1인당 시세부담액은 4만5천7백90원으로 올해의 4만7백80원보다 4천10원(9·6%)이 많아지게됐다.

文化短信

김일구 國樂발표회

소극장 공간사랑은 82년 새해를 여는 첫 프로그램으로 1월6、7일 양일간 김일구씨의 기악과 唱 발표회를 마련한다. 공연시간은 오후4시、7시.

기능사훈련생 募集

성남직업훈련원은 기능사과정 국비직업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기계공작 기계조립 특수기계공작과가 있으며 주간은 6백80명정원으로 1년간、야간은 5백50명 정원으로 9개월간 교육한다. 中卒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주간은 1월6일~2월3일, 야간은 1월6일~2월13일 원서를 교부접수한다. 문의 城南②4441.

심신장애자 作品展

청소년근로문제연구소 부설정박인 직업훈련원(원장 朴贊甲)은 31일까지 서울鍾路區仁寺洞 리빙아트2층 전시실에서 심신장애자작품전을 열고있다. 『얼굴을 중심으로』란 이름의 이작품전에는 40명의정박아들이 만든 탈, 생활용 목기, 가구 1백50여점이 전시되고있다.

地平線

첫날밤에 소박맞은 새색시가 신랑을 걸어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25만달러(1억7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일이 지난4월 미국에서 있었다. 새색시와 신랑은 모두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섬출신 이민이었다. 안나양은 스물세살때인 77년 목수인 루피노청년과 결혼했지만『숫처녀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박맞았던 것이다. 색시가 처녀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재판이 시작됐다. ▼신부쪽에서는 안나양이 혼자서 남자를 만나지못하게하는 시칠리아섬의 엄격한 관습에 따라 컸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신랑은『새색시가 첫날밤에 딴남자에 관해 얘기하고, 아이를 갖지않도록 하려면 몸위치를 어떻게 해야된다고 얘기하더라』고 주장했다. 아무리 미국이지만 이런 희한한 재판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기야 이탈리아에서는 아내나 딸、누이의 정조나 명예를 지키기위해 사람을죽였을 경우에는 살인죄를 적용하지않고 가벼운 형을 주도록하는 「명예살인법」이 지난7월까지 있었다. 싫든좋든 정조를 빼앗은 남자에게 시집가야된다는 법도 마찬가지다. 남미의 브라질에서도 새색시가 숫처녀가 아닐 경우 열흘안에 소박할수있도록하는 법률이 문제되고 있다. ▼이탈리아나、이탈리아문화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있는 남미의 브라질같은데에 댄다면 우리사회는 상당히 개화된 편이라고 할수있다. 아직도「女必從夫」가 사실상의 도덕률이라곤 하지만, 부부가 육체보다 정신의 결합이라는 보다 자유스런 도덕률이 일반화돼가고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에서 남녀의 만남이 완전히 자유화된 것은 아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록가수 엘비스·프레슬리는 생전에 1천명의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한다. 이것은 최근 영국의 골드먼교수가 내놓은 그의 전기에서 밝힌 숫자다. 돈도 많이 벌었지만 마약과 섹스도 엄청나게 즐겼다는 증언이다. 비슷한 얘기로 할리우드배우 엘리자베드·테일러가 일곱번째 이혼을 하자마자 새로운 애인이 드러났다고 한다. ▼호텔왕의 상속자 니키·힐튼에서 시작해서 배우, 영화제작자, 가수, 그리고 배우 버튼과 두차례、이어서 백만장자、정치인등 화려한 남성편력의 또한페이지가 시작되고있다. 5년전『나는 도덕적인 구식여자』라고 큰소리 쳤던 리즈도 벌써 쉰고개를 앞둔 49세. 첫날밤에 처녀를 따진것도 이제는 어렴풋 멀지모르지만, 그렇다고 식은 죽 먹듯 결혼과 이혼을 일삼는 인생도 불행한 일이 아닐지 상식으로서는 분간하기어려운 일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公正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서울 여행사 IATA 교포특별우대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 동 주

소 잃고 난후 외양간 고치시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

보험대리인 김 종 조는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역이 되드릴겁니다.

자동차 — 생명 — 교육 — 사업 — 적금 — 부동산

◎ 모든보험은 한곳에서 !

김 종 조 종합보험은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가 자랑입니다.

651 BLOOR ST. W. 535—0028 535—7200

김종조 종합보험 대리점

波共黨、穩健派 대거肅淸

모든要職 다시強硬派들 손에

【빈27日=聯合】 폴란드 공산당은 이나라의 계엄통치가 3주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68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소련의 침공을받은후 단행했던것에 비길만한 대규모 온건파 숙청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빈의 서방보도들은 한 폴란드공산당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강경파들이 당내 모든 요직을 다시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보도들은 많은 당원들이 당원증을 반납했다고 전하고 현재『폴란드공산당내에는 직업당원과 스탈린주의좌파강경론자』만이 득실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도들은 폴란드가 지난 2년이래 두번째로단행한 이번 숙청이 49개지방정부중 29개지역을 포함한는등 지난68년 체코가 소련침공후 단행한 대대적인 온건파숙청작업에 견줄수있는 규모라고 전하고 그러나『직업당원및 보안요원』은 숙청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들은 이번 숙청이 폴란드 권력구조의 모든 부문을 강타한것이라고 지적하고 서방에 알려진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들은 강경파의 득세로 인해 당제1서기겸수상 보이체흐·야루젤스키의 장래가 불투명해졌다고 전하고 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와의 협상여부등을 포함한 제반 위기타개방안설정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나라군부지도자들이 과업종식을 위해 당분간 힘과 공포에 의한 정책을 계속 밀고나갈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성鑛夫에 毒가스 使用

戒嚴軍、命令어긴 軍人사살도

【런던·빈27日AP=聯合】 폴란드 계엄당국은 남부·카트비체 부근의 한탄광지하갱도에 물과 유독가스를 집어넣어 계엄령선포에 항의, 10여일째 농성중이던 광부들을 갱밖으로 몰아내면서 항의하는 일부 광부들과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들을 사살했다고 영국BBC방송과 빈에 도착한 자유노조 지하유인물들이 27일 밝혔다.

BBC방송은 폴란드로부터 보내온 한 아마추어 무선사의 보고를 인용, 폴란드계엄당국은 광부들의 농성을 분쇄하기위해 「난폭한 방법」을 동원하고있으며 실레지아의 한 탄광 지하갱도에 물과 유독가스를 고의로주입시켜 광부들의 농성을 강제 해산시켰다고 말했다.

바웬사、戒嚴협조拒否여전

副首相면담 數分만에 끝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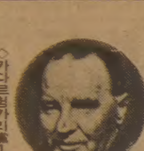
【빈27日AP=聯合】 폴란드계엄당국에 억류되어있는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지난주 폴란드 노조담당부수상 미에치스와프·라코브스키의 방문을 받았으나 라코브스키는 몇분도안되어 바웬사의 방을 박차고 나와버렸다고 서방에 전해진 폴란드소식통보고가 27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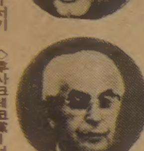
이소식통은 또 라코브스키와 바웬사의 해후가 짧은 시간에 끝나버린것은 바웬사가 다른 자유노조지도자들이 억류되어있는한 계엄당국에 협조하기를 단호히 거부했음을 의미하는것이라고 분석했다.

波、새類型의 「脫蘇몸부림」

헝가리·체코境遇와는 다르다

知識人·執權세력 主動과는 差異커
노동자 主體로한 民衆革命이 특징


◇카다르헝가리黨1서기


◇후사크체코黨1서기

◇야루젤스키波黨1서기

계엄령이라는 충격요법 발동에따라 최대시련에 직면한 폴란드 자유화운동은 지금까지 東歐에서 일어났던 수차례의 자유개혁운동과는 다른 여러특징을 가지고있다.

44년 소련이 東歐를장악한이래 일어난 대표적인脫蘇자유개혁운동으로는 유고의 독자노선추구운동과 56년의 헝가리 사태, 그리고 68년의 체코사태를 들수있다. 이중에서 故人이 된 티토 대통령이 주도했던 유고의 脫蘇정책만 성공했을뿐 헝가리와 체코의 경우는 불발로 끝났다.

대학생을 중심으로한 지식인이 주동했던 헝가리자유화운동은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야노스·카다르現헝가리공산당 제1서기의 무력탄압에 의해, 두브체크 당시 黨제1서기등 소수 집권개혁층 주도로 추진되었던 체코자유화운동은 소련의 직접무력개입에 의해, 각각 분쇄된바있다.

폴란드자유화운동의 주체세력은 자유노조를 중심으로한 노동자세력.

노동자가 자유개혁의 주체니만큼 폴란드자유화운동은 上向的인 민중혁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폴란드자유화운동이 지난여름부터 18개월동안 버티어온 저력의 밑바탕에는 인구4명당 1명이 자유노조회원이라는 민중적기반이 깔려있다.

체코「프라하의봄」은 소련개입 7일만에 완전진압되고 두브체크는 후사크로 교체되어 버렸다.

폴란드는 계엄령선포 2주후에도 계속적인 反계엄항쟁이 계속되고 있다.

헝가리나 체코의 자유화 진원지는 프라하와 부다페스트로두나라의수도였다. 폴란드의 자유화 진원지는 동구최대의 조선소가있는 그다니스크와 카토비체 남부 탄광지대.

反계엄투쟁도 이두곳이 가장 극렬했고 오히려 수도 바르샤바는 조용한편이었다.

폴란드자유화운동의 추진세력이 다수의 하층민중세력임을잘말해주고있다.

게다가 3천6백만 인구의 90%이상을 신도로 확보하고있는 가톨릭세력이 자유화운동을 지원해줬고 위기시엔 정부와 노조사이에 협상중재 역할을 해냈다. 개혁세력과 中·蘇세력사이의 완충역할을 폴란드 가톨릭세력이 하고있는 셈이다.

폴란드 자유노조는 자유혁명주체세력으로서 자유화운동을 주도해오면서 폴란드 사회 각분야에 자유화의 불씨를 던졌다.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농민자유노조를 탄생 시켰고 급기야는 공산당내부에 마저 자유화바람을 불어 넣었다.

폴란드 공산당은 공산국가 최초로 국민의 직접·자유선거를 통해 대의원을선출했고 黨제1서기와 정치국원을 대의원의 직접선거로 뽑기도 했다.

공산체제의 마지막 보루인 공산당에 마저 자유화물결이 스며 들어있다.

계엄령선포후의 국가全權을 구국군사평의회가 장악해 버린것도 자유화바람에 무력해진 공산당이 사태수습능력을 상실했음을 말해준다.

헝가리와 체코의 경우에는 사태수습자는 어디까지나 공산당이었다.

비록 공산당이 소련군과 크렘린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지만.

한편 폴란드정규군은 폴란드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국민의 신망이두텁고 80%이상이 징집병으로 구성돼있다. 징집병중 대부분이 본인이 직접 자유노조회원이거나 아니면 자유노조내에 가족과 친척을 가지고 있다. 폴란드정규군이 유사시에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눌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최악의 경우 군자체가내분에 휩싸일수도 있다.

가톨릭·正規軍성분도 變數로

야루젤스키는 계엄령을 발동하면서 정규군을 믿지못했다. 현재 폴란드의 무력탄압의 주역은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保安軍과 민병대로 알려졌다.

특히 5만6천명의 保安軍은 체제의방패로 국민들에게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되고 있다.

노동자가 주체가된 민중혁명, 중재역할을 하는 가톨릭세력, 국민의 존경을 받는 민족주의군대인 폴란드정규군, 폴란드자유화운동을 헝가리나 체코때 경험만으로 잴수없는 특징들이다.

폴란드자유화운동이 계엄령하에서 存立의 위기를 맞고있는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폴란드는 경이와 찬탄속에서 4·5차례에 걸친 결정적위기를 잘극복해왔다. 폴란드사태는 발전여하에 따라 이제까지 東歐에서 찾아 볼수없었던 새로운 類型의 脫蘇자유체제를 탄생시킬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李炳圭기자】

이란軍使節 극비리 派美

軍需用부품판매 再開토록 요청

"두차례會談후歸國…美政府 신중檢討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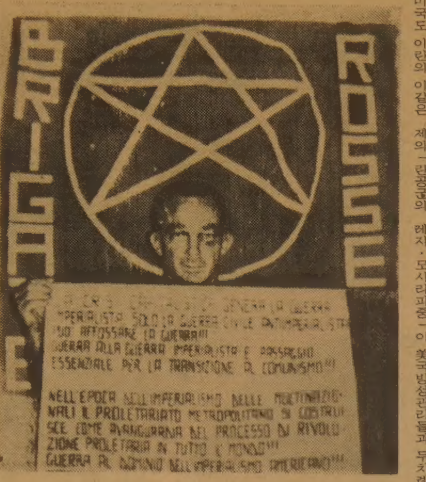
【런던27日AP=聯合】 이란의한 군사사절단이 최근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 美국방성관리들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판매를 재개할것을 요청했으며 미국도 이란의 이같은 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런던에서 발행되는 선데이·타임즈지가 27일 보도했다.

파리주재 아미르·타헤리특파원이 보내온 이보도는 이란공군의 레자·모샤라피중령이 이끄는 3인군사사절단이 최근 워싱턴을 비밀리에 방문한후 파리를 경유하여 귀국했다고 말했다.

타임즈지는 이 군사사절단이 美국방성관리들과 두차례 회담한자리에서 미국이 팔레비王政시절에 서명했던 군사부품공급계약을 완전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는 미국이 팔레비왕정당시 오는 85년말까지 이란이 보유한 F4팬텀과 F14전폭기들에 쓸 군사부품을 공급하기로 약속했었다고 밝혔다.

이란 태생의 타헤리 특파원은 미국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있다고 지적하고 이란 관리들은 미국이 단순히 국내여론과 이란·이라크戰과 관련된 아랍 반응을 의식하여 이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붉은旅團 口號들고있는 도지어將軍 지난17일 이탈리아의 「붉은여단」 테러분자들에 의해 납치된 제임즈·도지어 美軍준장이 이 테러단체의 구호가 적힌 판을들고있다. 붉은여단이 27일 공개한 이사진에서 도지어장군은 왼쪽눈아래가 멍이들어있는모습을 보여주고있는데 구타를당한 때문인것으로 추측되고있다. 【밀라노27日UPI=聯合】

中共、派閥 드러내

李先念、趙紫陽퇴진 가능發言

【臺北27日AP=聯合】 北京당국은 미국의 對臺灣 관계승격을 저지하지 못할경우 수상 趙紫陽을 포함한 중공지도층의 사퇴를 초래할 것이라는 중공 당 부주석 李先念의 최근 발언은 대내용이라고 臺北의 분석가들이 27일 말했다.

대만관측통들은 지난 24일 일본 기자들에게 행한 李의 발언에 대해 그같이 분석했다.

이들은 李가 일본 기자들에게 趙紫陽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趙의 서열이 6명의 당부주석 가운데에서 葉劍英과 鄧小平에이어 3위이지만 李자신보다는 상위임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또 작년 9월 전당주석겸 수상 華國鋒이 그의 수상직을 상실하기에앞서 李가 이끄는 이른바「석유파」와 협력, 鄧小平을 주축으로한「개혁파」의 세력확장을 저지하려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지난 2년간 鄧과李의 양파벌간에 심각한 대립이 있어왔음을 상기시켰다.

李先念이 생산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반해 鄧은 사회복지에 우선순위를 부여, 79년11월의 渤海 제2석유탐사선 전복사고를 공개함으로써 李를 궁지에몰아넣었으며 上海의 보산 제철공장건설을 계속해야한다는 李의주장을 극구반대하기도 했다.

伊「붉은旅團」、美도지어將軍近況사진 公開

왼쪽눈 멍들어…타박상인듯

【밀라노(이탈리아)27日AP·UPI=聯合】 제임즈·도지어美육군준장을 억류하고있는「붉은旅團」테러단은 27일하오 피납된 도지어장군의 근황을 담은 사진과 함께 두번째 성명서를 보내왔다고 경찰이 보도했다.

밀라노경찰은 밀라노중심가의 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도지어장군의 사진은 적군파의 상징인 5모꼴의 별밑에서 도지어장군이 「붉은여단」의 反帝國주의구호를 들고 앉아있는 얼굴부분의모습을 보여주고있다고말했다.

경찰은 이사진에서 도지어장군의 왼쪽눈밑에 검은반점이 있어 타박상을 입은것같다고 말했는데 그가 들고있는 표어들은『자본주의 위기는 제국주의전쟁을 낳는다』 반제국주의 투쟁만이 전쟁을 막을수있다』고 쓰여있었다.

이사진과 3통의 성명서는 한 익명의 전화가 이탈리아의 ANSA통신사 밀라노지사에 제보해옴으로써 경찰의수사로 한 쓰레기통에서발견된것이다.

日、내년防衛費 7.75%增額

GNP의 0.933%

【東京28日=宋孝彬특파원】 일본정부는 28일하오 각의를 열고 미국의 방위증강요청에 따라 82년도예산안중 국방비를 금년보다 7.75%증액한 2조5백61억엔(GNP의 0.933%)을 확정했다.

81년도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7.6%이다.

82년도 국방예산의 증액에 따라 일본정부는 對潛艦초계기 P3C機 7대와 전투기 F15 23機 호위함(2천9백톤급) 3척, 전투용헬機12대를 도입케되었고 육상자위대도 6백명을 증원해 正面방위를 증가할수 있게됐다.

레이건會見

"내년중 美·蘇頂上회담

폴란드、국민투표機會가졌어야"

【워싱턴27日AP·UPI=聯合】 레이건美대통령은 27일 美·蘇정상회담이 내년중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는 한편 現폴란드사태에 언급, 폴란드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스스로의 정치체제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백악관은 26일레이건 대통령이 폴란드사태경고에 대한 레오니드·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의 답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 9만명에달한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의 철수를 촉구하면서 미국은 아프간국민의 자유를 위한 대의명분을 지원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일요판 연말기자회견을 통해 폴란드의 새로운 정치형태를 결정짓기위한 자유노조의 국민투표요구가 지나친 것으로는 생각지않으며 폴란드는 자유노조의 요구대로 국민투표의 기회를 가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폴란드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옹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회견에서 아마도『내년중 어느시기에』 브레즈네프서기장과 만나 美蘇정상회담을 가질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우리가 이 세계에서 함께 살고있기때문에 그러한 회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대통령취임연설에서 밝힌바 있듯이 공산주의독트린에 대한 강경자세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폴란드死亡者상징한 棺을 메고… 美시카고 시민들이 27일 폴란드 계엄령선포이후 사망한 폴란드人들을 상징하는 폴란드 국기로 덮은 검은 관을메고 폴란드 영사관으로 향의 행진을 벌이고있다. 【시카고27日 AP電送=聯合】

과테말라 反政게릴라

議事堂건물 爆破

【과테말라시티(과테말라)27日UPI=聯合】 과테말라시티 중심가의 議事堂건물에서 26일밤 反정부게릴라들이 장치한 폭탄이 폭발、議事堂건물이 크게 부서졌으나 사망자는 없었다고 과테말라당국이 말했다.

그러나 당국은 과테말라전역에서 게릴라들의 습격으로 8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폭발로 의사당의 중앙출입구와 공보사무실이 크게 부서지고 인근의 몇몇건물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의사당을 지키던 5명의 경찰중 중상자는 한명도없었다고 전했다.

메아리

高麗의 板木

사찰경내에 8만대장경 판목을 간직한 관고가 있다고 하여 법보사찰로 불리는 경남 합천군 해인사에서 국내서는 가장 오래된 목판이 발견되어 관계자들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새로 확인된 목판은 고려 고종33년(1246년)에 판각된것으로 7백3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조금의 손상과 하자가 없는 변상도로서 우리나라 불교와 미술사의 획기적인 영구자료가 될뿐아니라 복식등 민속을 이해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병란이 잦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형편에서 국내에 남아 있는 고려시대의 간행물 특히 책자나 문서류는 지극히 희귀하여 거의가 전적으로서 국보, 보물등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판국인데 해인사 아닌 딴 사찰에서도 다수의 고려목판이 발견됐다는것을 아울러 생각할때 놀라운 학문적 수확이라 하지않을수 없다.

이와같은 수확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전국에 산재한 사찰에 소장된 판목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79년부터 연차적으로 경남북의 34개 사찰을 모두 집중 조사한 결과 얻어진 것이며 결코 안이하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거두어진 성과는 아닌 것이다.

즉 지난3년동안 목록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에 남아있지도 않았던 1만8천5백6점의 방치된 판목을 해인사를 비롯한 영남의 고찰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문화재행정이 성장한 증표라 할 수 있다.

사실 나라의 문화재를 애호하고 보전하는 행정당국의 노력이나 사회 일반의 인식이 보다효과적이고 보람되기 위해서는 유형및 무형문화재로 어떤 것이 어디에 어떻게 있다는 기초적인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문화재관리국에 의한 일부 사찰의 판목조사사업이 호남이나 기타지역 사찰로까지 확대되어야 할것은 말할나위도 없고 새로 발견된 판목의 문화재적가치를 가늠하여 지정등 필요한보존과 보호조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일이다.

이런 보호조치는 시중 골동가게에 고판목들이 더미로 나돌고 있는것만 보아도 얼마나 시급한지를 알수가 있기때문이다.

外信안테나

▲알바니아首相 被殺說= 지난17일 자살한것으로 발표된 알바니아수상 메메드·세후는 공산당서기장 엔베르·호자와의 불화때문에 자살을 강요당했거나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유고슬라비아의 한잡지가 26일 보도했다.

유고의 주간지 넌은 이날 서방소식통을 인용, 지난 27년간 알바니아 수상이었던 세후가 16일 공산당중앙위회의에서 폐쇄국가인 알바니아의 문호개방을 요구하다가 호자와 충돌했으며 그후 자살을 강요당하거나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오그라드=聯合】

▲타임誌、81년人物에 바웬사 폴란드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위원장이 27일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誌에 의해 81년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타임誌편집인들의 평가에 따라 뽑히는 올해의 인물은 해마다 12개월동안 발생한 사태의 추이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충격을 가장 크게 준 개인이다. 【뉴욕=AP】

海外토픽

호랑이떼 民家침입

★印度、住民2명등 숨져 인도 우타르·프라데지주의 동부지역일대는 요즈음길을 잃은 호랑이떼들이 민가에 침입、인명과 가축에 피해를 입히고있어 주민들이 전전긍긍하고있다.

이 호랑이떼들은 지난 칠사이에 주민2명과 가축30여마리를 물어죽였다는데 그러나 사살된것은 단한마리에 불과해 주민들은 언제 피해를 입게될지 몰라 출입도 제대로 못한채 공포에 떨고있다는 것이다. 【뉴델리=AFP】

멕시코-시카고飛行

★727면허획득女性 세계에서 최초로 보잉727기 조종면허를 획득한 멕시코여성이 26일 멕시코시티-시카고간의 처녀조종비행에 나선다고 멕시카나항공이 발표.

멕시코민간항공센터에서 소정의 훈련을 끝내고 26일 시카고행 보잉727기를 조종하게될 금년26세의 버나드·루이즈양은 비행시간 6천시간을 기록한 베테랑여류비행사. 【멕시코시티=U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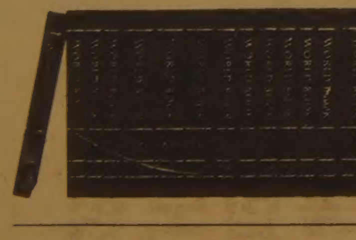
술都賣商에 强盜 경비원을 殺害

【仁川=聯合】 28일 새벽 4시께 仁川市 南區崇義洞342 주류도매상인 주식회사 연합(대표 金弘泰·53)에 괴한이 침입, 사무실에서 잠을자던 경비원 李且鳳할아버지(71)를 각목으로때려 숨지게하고 함께잠자던 트럭조수 李在秀군(17)을 실신시킨뒤 달아났다.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익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밤 242—5774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게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카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NAME
ADDRESS APT
CITY PROVINCE
POSTAL CODE PHONE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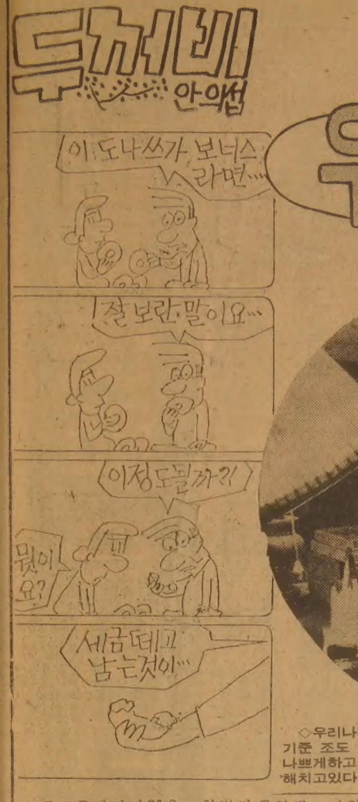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 : 30~6 : 00 월, 화, 수, 토
9 : 30~9 : 00 목, 금

202 SPADINA AVE.
☎ : 363—6077 MRS. PARK



「과학照明」무시…무조건 節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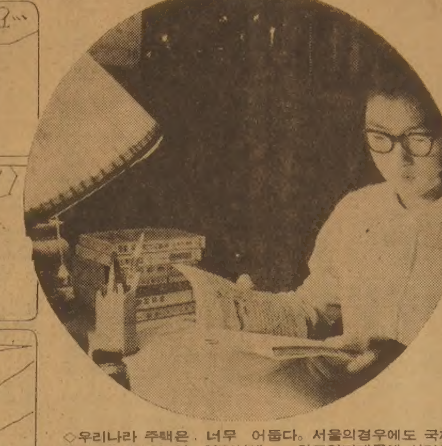
우리네 家庭 너무 어둡다

국제照度기준 30% 못미쳐

主婦 피로감·學生시력장애

서울工大교수팀 調査결과

居室3배·공부방은 9배밝아져야



◇우리나라 주택은 너무 어둡다. 서울의경우에도 국제기준 조도(照度)의 30%선에 그치고있기때문에 시력을 나쁘게하고 활동능률을 저하시키는등 국민보건을 크게 해치고있다.

우리나라 가정의 실내 전등밝기(照度)가 너무 어둡다. 맹목적으로「절전」을 한다면서「한등끄기」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국제기준에 너무나도 뒤떨어진 꼴이 돼있다. 실내 조명이 비교적 잘된 곳으로 알려진 서울등 대도시 지역주택의 실내 조명도 국제기준과 비교하면 밝기가 30%수준밖에 안되고 농·어촌주택의 경우는 10%에 지나지않는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大공대 池哲根교수(54·조명공학박사)팀이 지난4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주요도시와 농어촌주택 40동을 대상으로한「우리나라 주택의 전등조명실태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사는 일몰후 각방의 전등을 완전히 켜놓은채 광전지식(光電池式) 조도계를 사용, 안방·거실·공부방·주방·식당·욕실·화장실·현관등 9개장소의 전등조명밝기를 측정하고 조명방식, 광원의 종류와 크기, 주거인들의 전등조명환경에 대한 시각적반응을 설문조사했다.

조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서울등 도시에서는 국제기준조도의 29.7%, 농어촌주택은 기준조도의 11%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조별로보면 식구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안방의 경우 기준조도가 1백룩스(1룩스는 1촉광의 광원이 1m거리에 있는 1평방m에 비치는광도)인데도 시가 33룩스, 농촌이 19룩스에 그치고있다. 또 공부방은 책상위의 밝기가 5백룩스가 돼야하지만 도시가 62, 농어촌이 12룩스로 각각 기준조도의 12%, 4%밖에안된다.

이처럼 어둠침침한 곳에서 공부할경우 어린이들은 눈이 쉽게나빠지고 피로를느껴 공부에 빨리 실증을내기때문에 책상위에 스탠드등 보조조명기구를 갖춰야 하는것으로 지적했다. 주부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하는 주방도 기준조도가 2백룩스인데 도시가 39, 농어촌이 12룩스밖에 안돼 각각 기준치의 20%, 6%로 설겆이대와 조리대만이라도 부분조명이 필요하다.

거실의 경우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여서 기준조도가 1백룩스인데 도시가 39, 농어촌이 14룩스로 극히 빈약한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다. 거실의 경우 밝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너무 전면적으로 밝으면 침착성이 없어지므로 50룩스내외의 밝기로 전반조명이나 간접조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높은 조도를 얻을수 있는 보조등을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가장 밝아야할 공부방의경우 서울을 중심한 도시가 기준조도의 12%, 농어촌주택이 4%에 그치고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조명수준을 유지하려면 일반주택이 9배이상 밝아져야 한다는 계산이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주택이 과학적인 조명을 고려하지않고있는데다가 무조건 불끄기운동을 벌여 온 현상이 생겼다고 지적하고 조명이「어두운상태」에서는 주부들의 피로, 학생들의 시각장애및 각종질환이 유발되기 때문에 절전을 하면서 조명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被疑者압수품 任意포기 無罪도 國家귀속

억울다이어반지 반환請求審 원고敗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압수품에대한 포기서를 임의로 썼다면 기소후 무죄확정판결이 났더라도 그 압수품을 되돌려 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金光年부장판사)는 28일 재일동포 具宅書씨(56·서울道峰區彌阿洞133의62)가 국가를 상대로낸 압수물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

원고具씨는 지난 78년12월8일 일본에서 귀국할때 7.76캐럿짜리 다이어반지(싯가 1억5천만원상당)를 숨겨가지고 들어와 관세1천2백여만원을 포탈한혐의로서울지검에 구속돼 수사를 받으면서 이다이어반지에 대한 포기서를 썼었다.

具씨는 그후 기소돼 1·2심에서『반지의 상태로보아 밀수품으로 보기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됐으나 검찰이 압수한 다이어반지를 반환하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具씨가 검찰에서 밀수혐의로 조사를 받을때는 소유권포기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받고 작성한것이 아니고 본인의 자유의사에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압수물을 되돌려 주지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治安본부 機構축소

10개係 통폐합

치안본부의 각과(課)소속 80개담당급이 60개로통폐합, 총경과 경정급 각 10명등 모두 2백7명이 시·도경찰국 및 주요도시경찰서로 전보된다.

이는 치안본부의일부중간 기구를 자율적으로 축소, 본부는 명실상부한 기획, 정책적 기능만 맡는 한편 일선경찰의 수사, 정보, 대공기능등을 강화시키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총경급 계장은 1개과에 1~2명으로 하고 다른계장은 경정급으로 배정하며 총경이 배정된 계(係)에는 경정급반장을 두지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본부인력은 1천7백42명에서 1천5백35명으로 줄어들었다.

外國人學校 시절

나의 이력서

元一漢 ㉖

〈題字·元一漢〉

어머니(에델·반·와그너女史)가 외국인학교 교사로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일은 다 아는 바이지만우리형제들은 모두 이학교에서 공부했다.

외국인학교가 창설된것은 1912년이다. 처음엔 培材학당뒤편에 자리잡고 있었다. 얼마안돼 지금의 貞洞 섬프란치스코 수도원 자리로옮겼는데 나는 이곳에서 공부했다.

京·平定期戰 氷球선수로 活躍

외국인 학교가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은 것은 6·25사변후인 56년이다. 그때 학제도 지금과마찬가지로 국민학교 6년,중·고교 6년의 12학년제였다.

외국인학교의 점심시간은 낮12시부터 하오1시반까지 꽤 길었다. 점심시간을 이용,자기집에 걸어갔다 오는 학생이 있을 정도였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볼차기에 열중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열심히도 뛰었다. 그당시 서울외국인학교는 오늘날 高大와 延大처럼 平壤외국인학교와 경기전을 가졌다.

종목은 야구 농구 빙구 육상등으로 기억된다. 나는 빙구선수로 출전했다. 선수라고 부르기에는 좀 시원찮은 선수였지만.

서울외국인학교의 학생수는 1~12학년을 통틀어 적을때는 60명, 많아도 90명에 불과했다. (참고로 현재는 6백명가량) 이에 비해 平壤외국인학교는 2백50~3백명으로 좀더많았다.

선교사들이 서북지방에 집중돼있었기 때문이다. 선교사자녀들의 수가 많아 平壤외국인학교는 기숙사시설까지 돼있었으며 중국대륙의선교사 자녀들도 平壤에 유학올 정도였다.

서·평 정기전은 서울과平壤에서 한해씩 번갈아 열렸다. 어느해가서울에서 열린 야구게임을 잊지못한다.

당시 경기규약은 두번 게임을 해서 총산득점이 많은 팀이 우승컵을 차지하기로 되어 있었다. 첫날경기는 16대3인가로 서울팀이 크게 패했다.

스코어차가 너무 엄청나 누구나 平壤팀이 우승한 것으로 단정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변이 일어났다. 서울팀이 두번째 게임을 18대3으로 이겨 버린 것이다.

平壤외국인학교 교장은 첫번째게임만보고 平壤팀이 우승한것으로단정, 이미 우승컵을들고 平壤行 기차를타러 서울역에 나가있었다. 뒤늦게 두번째게임을 크게 진걸알고 보따리속에 고이간직했던 컵을되돌려 주는 촌극을 빚었다. 이것이 바로 서울팀의 저력이 아니었던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서울외국인학교 재학시절에 연극공연을마치고 기념촬영. 성공회 헌트神父지도로 셰익스피어의 희극을 주로 선보였다.

野球의 一喜一悲·셰스피어作品 公演등 좋은追憶

외국인학교 시절의 추억 가운데 연극공연을 빼놓을수 없다. 성공회 헌트神父의 지도로 셰익스피어작품을 해마다 공연한것이다.

작품이름은 일일이 기억못하지만 비극이 아닌 희극을 공연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공연장소는 외국인학교 교사2층 모리스홀이었다.

한국에 나와 크게 성공한 미국인 실업가 모리스氏가 돈을 내어 지은 건물이다.

공연때마다 셰익스피어 희극을보러 오는 관객들은 모리스홀을 가득 메웠다. 학부모들이 많았고 더러한 국인들도 끼어있었다. 무료 공연이지만 학부모들이 관객을 상대로 케이크를 팔았다.

어머니도 케이크, 캔디등을 열심히만들어 팔았다. 얻어진 수익금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금으로 사용됐다.

연극공연에 참석하는 관객들은으례 자선케이크를 반의무적으로 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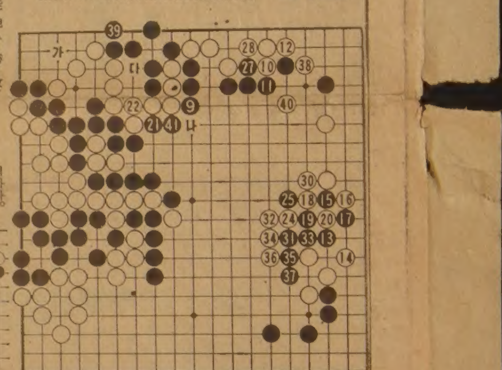
어머니는 팔기도 했지만 딴 학부형이 만든 케이크중 가장 마음에드는 케이크를 사기도 했다.

연극공연의 추억은 갖가지 아름다운 모양에 저마다 맛을뽐내던 그 자선케이크의 추억이기도 하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0局 第6譜112~141 (각 5시간 / 덤 5집반)

白(6段)徐能旭〈0勝2敗〉
黑(7段)徐奉洙〈1勝2敗〉



전보 白12까지에서 남겨둔 숙제거리. 이곳은 黑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만 여겨졌으나 실상 그것이 아니었다. 徐7단의 능기라할까, 먼데까지 내다본 수읽기의 소치라 할수있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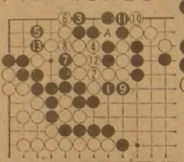
우선 위험해보이는 상변黑의 死活문제를 알아보자. 참고도처럼 黑1이하13이면 다음에 白「A」로 따내고 黑이 다시 되따내어 결국은 1수늦은 패가되는데 바로 이것이 徐7단의 노림이었다.

따라서 黑은 참고도 1、3、5、7등의 패감을 미끼로 삼고서 실전처럼 우변에 黑13으로 침입하여 黑19로서 패를 걸었던 것이다.

참고도의 경우나 실전의경우가 모두, 白으로서는 견딜수 없는일이다.

白32이하36이 부득이하여 黑37로서 14까지의 白4점을 싸잡은전과는 혁혁하다. 이것을 당한 白은 자연 말못할 고통에 시달려야했다.

徐7段의 무서운 수읽기



白38. 어쨌건 이렇게라도 변화를꾀해볼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변에서 포식을한 黑이 39로 내려서자 徐6단은 더이상 견딜수 없었는지 白40으로 결사적저항을 꾀했다. 黑41로「가」면 白「나」로서 9까지의 우측 黑일단과 배수의 일전을 하려는배짱이다. 이래선 黑도 접전이난다. 徐7단은 18분이나 곰곰 생각하더니 상변을 黑「다」로 살리지않고 41쪽을 막아버렸다. 자 이곳은 어찌되려나. 쌍방이 어려운 고비다. 23、26、29…우변의패. 【一凡】

流星의 賦 <27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雅와 策謀 ③

이 무슨 기술인가.

만좌의 사람들은 탄성조차 발할 수가 없었다. 이윽고 멎었던 호흡이 풀린 탓인지 한숨 소리가 바람소리를 이루었다.

망연히 서 있던 가미오까는 정신을 차리자 계남 앞에 덥석 꿇어 앉았다.

『소생의 검술은 아희(兒戱)의 유에 지나지 않았소이다. 삼가 입문(入門)의 은혜를 받고자 하옵니다』

『당치 않는 말씀』

하고 계남은 손으로 끌어 가미오까를 일으켜 세웠다.

『시합 그만』

그때서야 요시오까 심판의 말이 있었다. 그도 또한 넋을 빼앗긴 것이다.

두 사람은 심판을 향해 절하고 요시오까가 이끄는 대로 별실로 옮겨 앉았다. 그 자리에서 가미오까의 말이 있었다.

『소생의 검도수업은 30여년에 이르렀읍니다. 그런데 어이하여 이렇게 무참한 패배를 했는지 알 수 없소이다』

『아까 요시오까 선생으로부터 말씀이 있지 않았읍니까. 시합은 승부를 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귀하와 나 사이에 승부는 없었읍니다. 그러니 귀하가 패배한 것은 아니옵니다』

계남의 말은 겸손했다.

이때 요시오까의 말이 있었다.

『과연 신기 라고 할 수 있었소. 보다도 검의도를 오늘이야말로 본 느낌이었소』

『외람하오나 그 극의(極意)의 일단을 말씀해 주실 수 없겠읍니까』

하고 가미오까의 말이 간절했다.

『극의랄 것도 없읍니다』

계남이 이렇게 겸손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보탰다.

『백원검법의 제일의(第一義)는 불상제살의(不傷制殺意)에 있읍니다. 즉 상대방을 상하지 않고 상대방의 살의 만을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 제일의 수단이 아니겠읍니까. 한데 귀공은 검엔 필살(必殺)의 기백이 있었읍니다. 나도 그 필살의 검을 뺏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귀하의 검의 도가 살의(殺意)에 있다면, 나의 검의 도는 그 살의를 막아 피차가 살아야 겠다는, 말하자면 인의(仁意)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천지(天地)의 이치로서 인의가 살의에 이겨야만 하지 않겠읍니까』

『인의와 살의, 대오(大悟)의 말씀이군요』

하고 요시오까가 감탄했다.

『살의가 인의에 이겨선 안되는 거죠』

하고 가미오까는 신음하듯 말했다.

『그리고 보니 홍공께선 이 도장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하겠읍니다』

요시오까의 말이었다.

『천만의 말씀. 인의(仁意)가 살의(殺意)에 이겨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천지의 이치일 뿐, 세상의 일이 어찌 그렇게 되더이까. 뿐만 아니라 나의 검술로선 일본 검술이 지닌 살의를 충분히 제어할 수 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더욱 더 많은 것을 이 도장에서 배워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계남은 가미오까와의 대결에서 이긴 것을 하나의 요행이라고 생각했다. 진검(眞劍)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담하게 시도해 볼 수 있었던 백원검법의 이점(利點)을 다했다는 것 뿐,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묘기를 발휘해 보지 못했을 것이니 말이다.

바다에서 플룻을 <16>

梁順錫 作
金鈴 畵

그가 둑으로부터 내려서 나를 올려다 보았다. 약1m 남짓한 높이의 제방이었다. 컴컴한 어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어둠에 익숙해졌고, 광포한 파도소리에서도 놓여나 있었으므로 오히려 적막하였다.

『내려와』

그가 나를 향해 두팔을 벌려 비스듬히 쳐들었다. 그의 머리 너머로 파도가 흰 거품으로 질주해왔다. 그리고 질주해 와서는 한순간에 부서졌다. 파도는 달려와 부서지고 또 달려와 부서지곤 했다. 나는 그를 내 발밑에 두고 부서지는 파도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플룻소리의 환청이 순식간에 내 귀를 스쳤다. 아득한 곳으로부터 그 악기의 불안정한, 그러나 아름다운 선율이 내게로 다가오지 않은 채 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들었어요』

나는 여전히 팔벌린 그를 내려다보며 벅차게 말했다.

『들었어요』

『내려와서 말해』

『들었다니까요』

『무엇을?』

『내 악기의 선율을 들었어요』

『플룻의?』

『그래요. 나는 들었어요』

『연주할 수 있겠어?』

『나의 연주가 아니었어요. 그 악기 자신의 목소리, 자신이 스스로 낼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 바로 그것이었어요』

『당신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어?』

『나를 부르는 소리?』

나는 다시한번 그의 머리 너머로 달려와 부서지고 있는 흰 포말의 띠를 보았고, 바다를 배경으로 나를 향해 서있는 그의 모습을 내려다 보았다. 어둠과, 바다와, 그가 구분되지 않는 거대한 물체처럼 거기에 서있었다. 나는 팔벌린 그에게 나의 몸을 던져 실었다.

내 몸이 그에게 던져지자 그는 바다처럼 나를 품에 안았다. 그의 어깨에 머리를 얹고 사선으로 바다를 보았다. 그는 바다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바다를 향해 있었다. 우리는 시선을 반대편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느 시간보다 서로를 가장 확실히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직감했었나요?』

『피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지』

『운명처럼?』

『피하고 싶지 않아』

『바다가 환상이라면 당신은 실체의 모습으로 여기 있어요. 그러나 붙잡을 수 없는 곳에, 만남을 증오해요』

『가엾군』

『누구?』

『우리』

『당신의 아내도 포함되나요?』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을 그녀에게 책임지우고 싶지 않아. 나는 그녀를 진실로 대해 왔어. 그녀의 남편으로서 짊어져야할 멍에가 아닌 진실한 사람으로 그녀를 대해 왔어. 감정의 어느 부분까지 진실로 이름할 수 있을까?』

한 여자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가능할까. 나는 그가 내게 물음을 던졌을 때 그와 같은 부피의 물음을 내 자신에게 던졌다. 한 여자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를 사랑함은 그의 사랑을 파괴하는 행위일까? 그것을 파괴하고야 이룰 수 있는 사랑이란 얼마나 죄악인가.

나는 그에게서 내 몸을 떼어냈다. 파도소리가 처음인 듯이 밀려왔다.

SAVE! SAVE!

집을 가지신 분들

당신의 히팅을 아껴 보세요.

겨울이 다가 옵니다.

WINTER SPECIAL
가스 난방 써비스합니다.

※오직 $30.—에 다음 4가지를 해드립니다.

- Vacuum Furnace & Vents
- Oil Furnace Motors
- Adjust Furnace Motors
- Clean Furnace Filter

FOR ONLY $30

연락해서 아끼세요.
☎: 497-1841

MILLER REFRIGEATION
HEATING & AIR CONDITIONING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416) 222-9480

서울식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오후8시30분~새벽2시
목, 금, 토, 일: 오후8시30분~새벽1시
가수: 박 소 영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률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883-9407
-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알렌

佛光寺 법회안내

장소: 불광사
지도법사: 석광옥 스님
법회안내: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참선지도)
주소: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화: 223-9152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중역간부모집—어느정도 영어에 용통하고 용모 단정한 분. 당회사는 기반이 잡혀있는 무역회사임.
☎ : 962-0019

도미니언·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또는 파타임 여자분 구함(YONGE & COLLEGE 빌딩안)
월~금 : 3시30분~9시30분. ☎ : 598-1140

웨이츄레스와 키친 헬퍼 구함
459CHURCH ST. TOR. (미치 레스토랑)
☎ : 924-7501

도너스샵에서 주말에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11 : 00PM. ~9 : 00AM. (스카보로 지역)
☎ : 284-9325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성실한 남자구함.
저녁6시~새벽2시
☎ : 531-2689(Mr. 김)

도너스샵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밤11시부터 아침7시까지(일요일~목요일까지)
☎ : 482-4088

스토아 헬퍼 구함(유경험자)
☎ : 491-9701(던밀×세파트 지역)

ROOM MATE구함
6시 이후 연락바람
☎ : 745-5174(MISS. BANG)

NIGHT TIME WAITRESS 구함
460 DUNDAS ST. W.
☎ : 977-2164(Mr. NIKKO)

세살난 미국소녀 친구되어줄 한국 어린이 찾습니다.
위치 : HIGH PARK
☎ : 769-7822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 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 : 533-2361
한국일보 토론토 광고국

구 혼

1957년생(26세), 키 167cm.
직업 : 컴퓨터, 결혼할 여자구함.
☎ : 534-9660

1957년생(서울출생. 남)
신장 : 169cm 특기 : 태권도4단(양친 캐나다거주)
☎ : 291-2976

매매및 양도

베이뷰 & 쉰치하우스 4베드룸+훼밀리룸 지하실.
FIRE PLACE, 2개 가라지. 아스킹 : $189950
☎ : 221-9338(7시PM이후 연락바람)

듀폰 수퍼마켓 매매 아스킹 : $5000+인벤토리
☎ : 537-0892
(앨리나 SAM에게 연락요)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이사관계로 급히 매매코저함. 짧은시간의(10 : 00AM~6 : 00PM)GIFT SHOP으로써 은종류, 크리스탈, 밥상보 등 여러종류 취급. ☎ : 낮(656-6660), 밤(224-2227)

부인혼자 할수있는 세탁소 매매(주매상 : $1,200
월세 : $500 리스 : 7년 가격 : $35,000)
오후4시이후 문의바람 ☎ : 423-7280

DELICATESSEN & MEAT STORE
주매상 : $2,300 렌트 : $425
아스킹 : $23,000(모게지가능)☎ : 742-3216

TUCK SHOP 가정사정상 매매코자함.
주매상 : $2,500 렌트 : $600(전기, 물세 포함)
한달 순수익 : $2,200
$28,000+스탁(몰게지가능)
(10 : 00 A.M~10 : 00P. M)
☎ : (416)461-5242(미시사가)

급 매
뎀뿌라, 가마보꾸 제작기계 6점.
냉면기계 3점, 제분기계 1점(ALL NEW)
※기계에 관심있으신 분은 연락바람
☎ : 862-0361(홍)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극장옆 코너위치(로타리오 에이전트)
3344 YONGE ST. (직접 내방 요망)

78년형 VAN(G. M. C.)매매
마일레지 : 45,000마일스 가격 : $3500.
☎ : 281-1938(Mr. KIM)

버라이에티 스토아 주매상 : $4,500
렌트 : $400 리스 : 1+5년 아스킹 : $4,100
☎ : 221-2084(Mr. LEE)

해밀톤 스토아 매매
● 주매상 $6,000. ASKING $195,000
건물포함 다운페이 $90,000
● 주매상 $4,200 ASKING $152,000
건물포함 다운페이 $60,000
● 주매상 $4,000 다운페이 $50,000
건물포함 $159,000
● TUCK SHOP
주매상 $4,200. 좋은리스. 다운페이 $80,000
☎ : 1-662-4705. 1-662-7609
MONTREAL TRUST 전 병 호

스토아+주택(4베드룸) 매매
주매상 : $4,200 $30,000 DOWN+STOCK
☎ : (1)-579-4451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첫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82(B), 534-3346(R) MR. LEE

집·방세·하숙

분위기좋은 방, 세나 하숙합니다. 교통편리, 큰창문
☎ : 532-9139(Mrs. 조)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악기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양장점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샐터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추리냉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인벤토리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변 달 원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쿨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난파 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정 슨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한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8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자동차를 파실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회계사무소

KIM'S & ASSOCIATE
인캄텍스, 어카운팅(노스·욕 AREA)
☎ : 669-2710(김연수, 김명숙)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R.I.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태권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2186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사 진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락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주소이전 배달사고는 533-2361

기 타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5일에 $13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블론디
本社特約·連載漫畫
딘·영 作

"아빠가 편찮으시단다. 그래서 아침을 침대에서 드시도록 하는거야"
"고마워 여보"
쩝 쩝 쩝 쩝
:저놈들이 내 비타민 정까지도 먹어 버렸잖아"

조 규 혁
종 합 보 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블론디
本社特約·連載漫畫
딘·영 作

"누군가 간밤에 사무실문을 활짝열어놓고갔어!"
"누가 들어와서 사무실을 몽땅 들고나갈수도 있었을거야!"
"누가 그런 바보짓을 했는지 생각좀 해보게나?!"
"생각해보고 있읍니다…사장님…한데 떠오르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요"

새해에도 여러분의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정성을 다 하겠읍니다.

KAL 大韓航空

로스앤젤리스 (213)484-1900 · 로스앤젤리스공항 (213)417-5200 • 뉴욕 (212)371-4820 • J.F. 케네디공항 (212)632-6730 • 호노루루 (808)923-7302~6 • 시카고 (312)558-9300 • 샌프란시스코 (415)956-6373 • 와싱톤 (202)785-3644
필라델피아 (215)665-9080 • 아틀란타 (404)522-7461 • 휴스턴 (713)658-8892 • 토론토 (416)862-8250 • 밴쿠버 (604)689-8431 • 달라스 (214)744-5981 • 디트로이트 (313)353-6680 • 상파울로 (259)6719 •
TOLL-FREE: 캘리포니아(800)252-0128 • 기타 전 서부지역 (호노루루, 알라스카 제외) (800)421-8200 • 뉴욕주 (뉴욕시 제외) (800)522-5640 • 기타 전 동부지역 (800)223-1155 • 카나다 (퀘벡·온타리오) (800)268-9431